

The Relations White book of
The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135-8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
02.563.4114 www.kinternet.org


인터넷상생협의체 K internet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3 인터넷상생백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2013 인터넷상생백서

The Relations White book of
The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 2013 인터넷상생백서

The Relations White book of
The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Internet



# 발간사




**김상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2013년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연결된 지 31년을 맞은 해이며,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한 해 동안 라인,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성장, 그룹형 SNS 시장의 확대, 웹툰의 콘텐츠 다양화 및 해외시장 진출, 소셜커머스의 지속 성장 등 인터넷 기업들의 다방면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신규 스타트업의 창업 또한 활발해 지는 등 인터넷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생협의체 외에도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상생발전협력회의 등이 신설되어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펀드 조성 및 벤처 펀드 조성, Daum의 중소 개발사 기술 및 서비스 적극 개방, SK커뮤니케이션의 유망스타트업 마케팅 지원, 이베이코리아의 중소 상공인 창업 및 판매 지원 등 인터넷 기업들의 활발한 상생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G마켓이 2013 사회공헌 부문 3개 대상을 석권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계열사 직원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및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통해 전 세계 유저들의 필리핀 구호에 기여, Daum의 희망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설레는 바자회, 얼라이언스인터넷의 배너 광고를 통한 스타트업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기획, 카카오의 '같이 가치 TF' 결성, CJE&M의 ESC프로젝트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교실 진행, 티켓몬스터의 다양한 소셜 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인터넷드림단 결성 등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기업들은 획일적이던 예전의 모습을 벗어나 각 기업의 특색에 맞춘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점점 변화했고, 소규모 신생기업이 많아 타 산업에 비해 선도 기업이 스타트업과 파트너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인터넷기업들의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한데 모아 '2013 인터넷 상생백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기업들이 공존과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003 발간사
006 인터넷상생협의체
008 참여기업 및 기관 소개

네오위즈게임즈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CJ E&M 넷마블
얼라이언스인터넷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카카오
티켓몬스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협력**

030 네오위즈게임즈
036 네이버
056 다음커뮤니케이션
074 얼라이언스인터넷
078 SK플래닛
082 이베이코리아
094 카카오
100 한국인터넷진흥원

**사회공헌**

112 네오위즈게임즈
118 네이버
138 다음커뮤니케이션
156 CJ E&M 넷마블
162 얼라이언스인터넷
166 SK플래닛
170 이베이코리아
188 카카오
196 티켓몬스터
200 한국인터넷진흥원

206 부록

# 인터넷상생협의체

## 인터넷상생협의체 추진 배경

급변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인터넷비즈니스의 선순환적 환경조성을 위해 2010년 9월9일 인터넷상생협의체가 발족되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다양한 이종 기업 간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과 도전과 창업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인터넷상생협의체 구성

협의체에는 총 17개에 이르는 기업, 협회, 기관이 자율적으로 모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창업 등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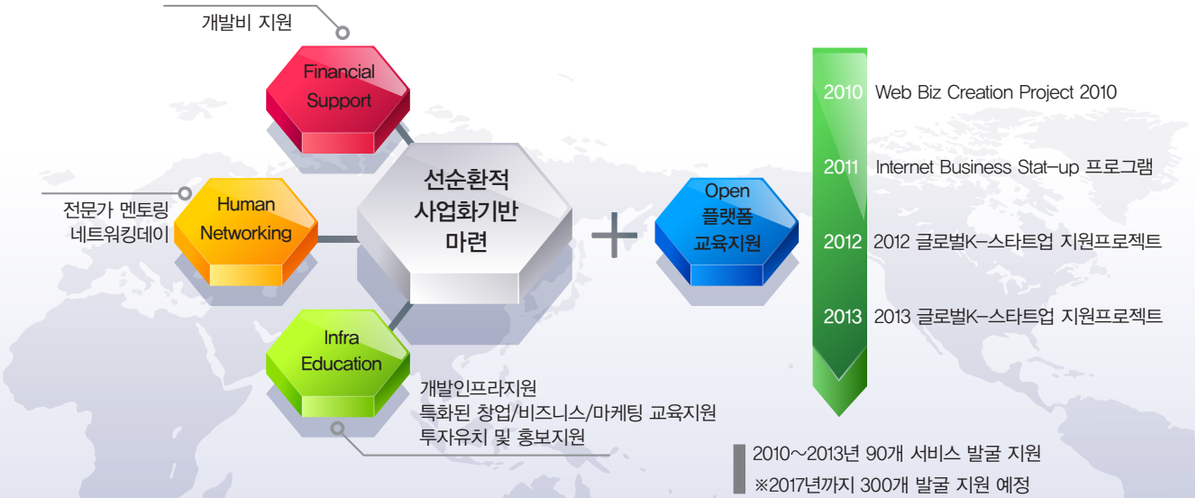



## 상생협의체 주요 사업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의 목표아래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기술 공유 및 개발지원 ▲전문 인력 양성 ▲중소인터넷기업의 광고 수익 증대 등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투자를 도와주는 글로벌K-스타트업프로그램, 오픈API 순회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상생포럼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성공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성공 전략 등을 배우고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도 만들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상생백서를 매년 발간해 인터넷기업들을 상생과 공헌 현황을 정리해 공유하고 2014년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발전 가능한 상생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계획이다.

### 글로벌 K 스타트업 지원

창업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혁신 서비스 선순환적 사업화 기반 마련



NEOWIZ GAMES

#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 : 이기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홈페이지 : www.neowizgames.com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기원)는 2007년 네오위즈홀딩스의 기업 분할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대표 게임사이다. 게임포털 피망(www.pmang.com)을 통해 슈팅, 스포츠, 역할수행게임(RPG)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요 게임으로는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A.V.A) 등이 있다.

특히, 슈팅과 스포츠 게임 장르의 대중화를 선도한 주역으로 국내 최고의 퍼블리싱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 외부 개발 스튜디오를 통해 자체개발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NAVER

## 네이버

대표이사 : 김상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NAVER그린팩토리

홈페이지 : www.navercorp.com

###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갑니다.

모바일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기 위해 NHN은 2013년 8월 1일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 두 개의 회사로 새롭게 분사 창립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네이버는 국내 No.1 검색 포털의 위상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네이버는 핵심 서비스인 검색 분야에서의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인프라를 담당하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서비스하는 라인주식회사, 모바일 전담법인인 캠프 모바일 등의 자회사와 함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해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및 인터넷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최세훈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다음 스페이스닷원

홈페이지 : www.daum.net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995년 2월에 설립됐으며, 3천80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다음은 1997년 대한민국 대표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을 시작으로 기존의 PC 통신과 차별화된 '카페', '미디어다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웹(m.daum.net)을 비롯해 'Daum'앱, '다음 지도', '마이피플' 등을 통해 모바일 시장 리더십을 다져 나가고 있다. 다음은 앞으로도 'Life On Daum'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PC, 모바일, 디지털뷰, 스마트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다음의 서비스를 즐기고, 삶과 생활을 보다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CJ E&M 넷마블

대표이사 : 조영기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 2차 14층

홈페이지 : www.cjenmgames.com / www.netmarble.net

CJ E&M 넷마블(부문대표 조영기)의 전신은 2000년 넷마블로 시작해 2004년 CJ그룹 계열사 CJ인터넷으로 편입, 2011년 3월1일 CJ E&M 통합에 따라 지금의 CJ E&M 넷마블로 거듭났다.

넷마블은 3천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 동시접속자수 43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포털 '넷마블(www.netmarble.net)'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온라인게임 퍼블리싱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 도입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게임 <마구마구>를 비롯해 캐주얼보드게임 <모두의마블>, 총싸움 게임(FPS) <스페셜포스2>, <그랜드체이스>, <대항해시대>, <SD건담>, <클럽 엠스타> 등 우수한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No.1 게임 퍼블리싱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외에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캐주얼, 액션, 웹보드, 모바일, 웹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특히 <다함께 차차차>, <마구마구2013>, <모두의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등 연이은 모바일 게임 히트작을 배출하며 국내 최고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로도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Alliance ECO AD PROJECT Internet

# 얼라이언스인터넷

대표이사 : 이정민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7

홈페이지 : www.ecoadproject.com

㈜ 얼라이언스인터넷은 2011년 인터넷 비즈니스의 상생을 위해 NBP(Naver Bsuiness Platform), 나스미디어, 씨디네트웍스 등이 투자에 참여해 설립된 회사다. 상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진 중소매체에 네이버 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Eco AD Project'를 시작했다.

2013년 4월에는 인터넷중소매체에게는 또 하나의 수익모델을 제공하고, 광고주에게는 좀 더 다양한 매체에 간편하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배너광고플랫폼 "V2"까지  런칭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 얼라이언스인터넷에는 80여개 인터넷중소매체에 수익을 제공해 인터넷중소기업이 본연의 콘텐츠에 좀 더 집중하고 자체 서비스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SK 플래닛

대표이사 : 서진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삼평동) The Planet

홈페이지 : www.skplanet.com

## 온 오프라인 통합 넥스트커머스 시대의 Global Leader

2011년 10월 출범한 SK플래닛은 2013년 2월 SK마케팅앤컴퍼니와의 합병을 거치며 온 오프통합 '넥스트커머스'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광고 마케팅 사업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마일리지 서비스 'OK캐쉬백', 토종 오픈마켓 '11번가, 모바일 지갑 '스마트월렛' 등의 온 오프라인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통합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한 소비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커머스 분야가 대표적이며, 앱마켓 'T스토어', 모바일 VOD 서비스 '호핀' 등의 디지털 콘텐츠 분야, 대한민국 대표 지도 'T map', 위치기반 정보 추천 서비스 '피캣' 등의 위치 기반 서비스 및 광고 마케팅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신개념 유통혁명을 선도하는 전자상거래 전문기업 커머스플래닛, 고객사의 마케팅 성과 향상을 돕는 엠앤서비스 등 관계사들의 콘텐츠와 플랫폼 역량을 결집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SK플래닛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터키,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해외 시장 거점을 통한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과 겨룰 수 있는 미래형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SK플래닛의 인프라와 리소스를 개방하여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파트너십 '동go동락' 운영을 통해 동반성장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 변광윤

주소 :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34-37F)

홈페이지 : www.gmarket.co.kr/www.auction.co.kr

이베이코리아는 많은 셀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형식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업계 1위인 G마켓과 업계 2위인 옥션이 2011년 8월 합병됨에 따라 출범한 두 오픈마켓의 통합법인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유통업 전체 순위에서 점유율 4위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이베이를 통한 중소상인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람중심, 혁신중심, 고객중심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고객의 행복한 삶,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시장, 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안정적인 물가를 선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중소판매자들과의 동반성장을 기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판매 지원, 무료창업교육 제공, 해외판매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관련 정부부처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마켓과 옥션 모두 각각의 사회공헌 기본 원칙을 갖고 후원쇼핑, 나눔박스,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동시에 고객과 국민 모두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KAKAO

## 카카오

대표이사 : 이제범, 이석우 공동 대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번지 H스퀘어빌딩 N동 6층
홈페이지 : www.kakao.com

### 글로벌 모바일 소셜 플랫폼, '카카오'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온 국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카카오톡'.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온 국민을 연결하는 스마트 커넥터로 자리잡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사용량과 소셜 네트워크 파워를 기반으로 카카오스토리, 게임하기도 잇따라 성공가도를 달리며, 카카오는 '스마트 커넥터'로 도약했다. 나아가 개발사, 기업, 작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 세계 최초의 모바일 소셜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한 카카오는 혁신적인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 도약하며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마케팅 △커머스 △게임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플랫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파트너, 개발사, 콘텐츠 창작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성장의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며 모바일 산업 성장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제휴개발사와 힘을 합쳐 '게임하기'로 모바일 게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플러스친구'로 강력한 모바일 마케팅 채널을 열었다. '선물하기'는 모바일 커머스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으며 '이모티콘' 역시 콘텐츠 저작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동반성장의 비즈니스 모델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한 '카카오페이지'는 전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재능을 펼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콘텐츠가 제 가치를 인정 받고 창작자가 공정한 수익을 얻는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카카오친구 관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모바일의 새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소셜 기반 플랫폼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라이프를 민첩하게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카카오 게임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었듯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커뮤니케이션 니즈를 해소하고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카카오의 가장 큰 미션이다. 또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3년내 수익을 내는 100만 파트너와 함께 동반성장을 목표로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카카오는 국내에서 일군 경이적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세계인에게 사랑 받는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야후! 재팬과 합작회사로 운영 중인 '카카오 재팬'은 양사의 고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현지 모바일 시장을 진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전 세계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카카오톡은 2011년 IT전문 매체 씨넷이 선정한 최고의 무료 SMS 앱에 선정된 데 이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드헤링 Top 100 아시아 어워드 2012 를 수상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Way to Success

**"Time to Market" 4:2 법칙** 카카오 성공요인으로는 '타이밍'과 '속도'가 꼽힌다. 단 4명의 멤버로 TF를 구성해 2달만에 카카오톡을 개발해낸 카카오는, 핵심기능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빠르게 내놓고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해 발절시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며, 현재까지도 4:2 법칙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모바일 Only**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 시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민첩하게 모바일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 태생부터 모바일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모바일 소셜 플랫폼 시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치, 다같이" 동반성장의 모바일 생태계 조성**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의 방대한 소셜그래프와 트래픽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확장에 주력한다. 카카오 게임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었듯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커뮤니케이션 니즈를 해소하고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카카오의 가장 큰 미션이다.

# TICKET MONSTER

## 티켓몬스터

대표이사 : 신현성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홈페이지 : www.ticketmonster.co.kr

㈜티켓몬스터는 대한민국 1등소셜커머스 서비스 티몬(ticketmonster.co.kr), 자영업자를 위한 고객관리 솔루션 티몬플러스(tmonplus.co.kr)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기업이다.
대한민국 대표 소셜커머스의 역사, 곧 티켓몬스터의 역사다.

2010년 5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인 티켓몬스터는 파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소셜커머스를 넘어대한민국의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를 선도하고 있다.

티켓몬스터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과 더불어각종 서비스 지표 조사에서 확고한 선두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과 파트너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1월, 글로벌 1위 소셜커머스 그루폰과 한 가족이 된 티켓몬스터는 전세계 48개국 1,000여개 도시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노하우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티켓몬스터는 고객과 파트너 중심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끊임 없이 연구, 개발하여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를 넘어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리더로 나아갈 것이다.








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이사 : 이기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가락동 79-3) 대동빌딩

홈페이지 : www.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이하 KISA)은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근거로 2009년 7월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및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활동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제공서비스로는 인터넷 침해대응,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문화 조성 및 확산(또는 인터넷윤리교육),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터넷주소관리, ☎118 상담 서비스, 인터넷·정보보호 정책기획 등이 있다. KISA는 세계 최고 수준 인터넷 종합기관으로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 상생협력

## Mutual Benefit

네오위즈게임즈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얼라이언스인터넷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카카오

한국인터넷진흥원

NEOWIZ
GAMES

# 네오위즈게임즈







## 스타트업 발굴·지원 프로그램 '네오플라이'

㈜네오위즈게임즈는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 '네오플라이'를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기존 네오위즈인터넷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네오위즈게임즈가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권용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맡고 있다.

네오플라이센터는 판교 신사옥 2층에 마련됐으며 총 125명, 약 20개 업체가 입주 가능한 규모다. 입주사들에게는 개별 사무공간과 회의실은 물론 각종 사무기기, 식사 등이 무상 지원되며 사옥 내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네오플라이'는 입주사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기술, 법률, 특허, 재무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이후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2월 현재 네오플라이센터에는 음악, 여행, 교육,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서비스를 시작한 1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네오플라이센터 입주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이메일(contact@neoply.com)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후 기업의 단계에 따라 입주 및 투자에 대한 상담, 심의가 진행된다.



네오플라이센터 입주업체



입주사 대상 세미나 행사장



네오플라이센터

### '네오플라이', 대학생 창업 지원

네오플라이가 대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를 위해 지난 6월27일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를 방문, 동아리 3곳에 1천만 원 상당의 PC를 기증했다. 이들은 게임, 보안 등 모바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아리들로 PC지원을 통해 이들의 개발 활동을 돕게 된다. 이날 기증식에는 권용길 네오플라이센터장을 비롯해 동아리 회원 25명이 참석했으며 이후 네오플라이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마련됐다.




카이스트 동아리 PC 기증식

### 입주 스타트업 대상 '데모데이' 행사 개최

네오플라이는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11월 첫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리얼트립, 가치온소프트, 라이크라이온 등 총 7개의 회사가 참여해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모델과 현황,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사들은 발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게 되며, 네오위즈게임즈 계열사인 지온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다양한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멘토단에는 캡스톤파트너즈, 소프트뱅크벤처스, 패스트트랙아시아, 사이버 에이전트 등의 벤처캐피탈을 비롯 나성균, 최관호, 이기원 대표 등 네오위즈홀딩스 계열사 임원이 참여해 창업과 경영의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했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 기술, 디자인, 재무 등 기업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도 실전 멘토단으로 참석했다.




데모데이 행사장 전경



데모데이 행사장 전경



멘토단_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멘토단_네오위즈인터넷 최관호 대표

### 입주 스타트업에 투자 진행

네오플라이는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두 곳에 투자를 진행키도 했다. 투자 대상은 모바일 게임 개발사 ㈜가치온소프트(대표 이규호)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라이크라이언(대표 최용철)으로, 투자금액은 각각 3억원과 2천만원 이하의 창업지원금이다.

가치온소프트는 2011년 10월 모바일 게임 개발을 시작해 현재 국내 유명 PC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탄탄한 설정을 갖춘 스케이트보드 레이싱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두 게임 모두 FULL 3D로 제작 중이다.

라이크라이언은 서울대 창업동아리 '멋쟁이사자처럼'의 주요 멤버가 만든 스타트업이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사용한 전자 투표 솔루션 '보트피플(VotePeople)'을 제공한 바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를 온라인으로 교육시키는 '코드라이언(CodeLion)'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네오플라이는 점차적으로 투자 영역을 자금지원까지 넓혀 나갈 계획으로, 이외에도 네오위즈게임즈 계열사인 지온인베스트먼트를 통한 투자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네오플라이는 지속적으로 초기 벤처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라이크라이언 최용철 CEO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CEO


원데이원송 주현규 CEO2


아이디어보브 이인영 CEO2

# NAVER

## 네이버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촉진

**■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벤처 창업 지원 펀드' 조성**

2013년 7월 네이버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창업 초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벤처 창업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1차로 중기청의 '미래창조펀드'에 참여하고, 2차로 민간벤처펀드인 본엔젤스 '페이스메이커펀드'에 출자했다. 이 후에도 창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 **중기청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프로젝트**

- 네이버 200억, 운용사 50억, 중기청 매칭 250억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도 높은 위험성으로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집중 투자
-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노하우, 글로벌 사업경험 공유 및 적극적인 사업 협력 기회도 제공

❖ **민간벤처펀드인 본엔젤스 '페이스메이커펀드'에 출자**

- 출자 규모 50억
- 초기기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인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와 함께 200억원대 '페이스메이커 펀드' 조성
- 국내 IT 산업과 초기 벤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네이버의 미래창조펀드결성 업무협약




페이스메이커펀드 출범기념 간담회

###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합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100억 출연

2013년 7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선도기업, 미래부, 협회, 인큐베이터,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연합체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총 47개 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했으며 네이버는 의장사로서 5년간 100억 출연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성공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 발굴 △글로벌 인큐베이팅 기관과 연계한 인턴십 지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인프라 무상 지원 △투자자 및 창업경험자와의 멘토링 지원 △창업 프로그램 연계 및 정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개소식

### ■ 유망 스타트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휴

유망한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1차로 배달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과 제휴(8.27)했으며, 패션 관련 SNS인 '스타일쉐어'와 2차로 제휴(9.2)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인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과 협약(9.25)을 맺었다.

#### ❖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 업체명 : 우아한 형제들 / 서비스 : 배달의 민족
- 협력분야 : 지도지역 정보, 배달음식점 정보 등 위치기반 정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동 발굴
- 배달의 민족 :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배달 음식점 메뉴와 리뷰를 검색, 전화통화 없이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600만건 이상을 기록 중인 대표적인 스타트업

#### ❖ 스타일쉐어 (스타일쉐어)

- 업체명 : 스타일 쉐어 / 서비스 : 스타일쉐어
- 협력분야 : 패션 콘텐츠 분야 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동 개발
- 스타일쉐어 : 누적 앱 다운로드 60만 건을 돌파한 패션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역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음.

#### ❖ 록앤올 (김기사)

- 업체명 : 록앤올 / 서비스 : 김기사
- 협력분야 : 위치기반 분야 상생협력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 김기사 : 최근 누적가입자수 600만명을 돌파한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스타트업 상생협력제휴 – 배달의민족, 김기사, 스타일쉐어 (시계방향으로)

### ■ 인터넷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서비스 영향 평가제' 도입

네이버는 신규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향 평가를 거쳐, 서비스 구성,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변경 및 조정을 진행하는 '서비스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인터넷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자체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 영향 평가제'는 이미 출시된 서비스도 사후평가를 실시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 중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 ■ 소상공인 상생협력기구 '희망재단' 설립

네이버는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구인 '희망재단'을 중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설립했다. 희망재단은 유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온/오프라인 협력모델을 모색,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설조직으로, 네이버는 재단 설립 및 운영비를 출연할 계획이다.






희망재단 설립 발표,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 상생 플랫폼 '네이버'의 역할 강화

네이버는 각 영역의 전문 기업 콘텐츠가 활성화되도록 플랫폼 사업에 충실한다는 취지 하에 중소인터넷업체와 중복되는 일부 서비스를 상생차원에서 개편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

#### ❖ 중소업체 상생을 위한 서비스 개편 일지

| | |
|---|---|
| 윙스푼 | • 맛집 정보 서비스, 2013년 12월 18일 종료<br>• 해당 전문업체가 검색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
| 윙버스 | • 여행 정보 서비스, 2014년 하반기 종료 예정 |
| 워너비 | • 패션 SNS, 2013년 10월 29일 종료<br>• 패션 SNS 스타일쉐어와 상생 제휴함 |
| 네이버 키친 | • 레시피 서비스, 2013년 12월 18일 종료<br>• 중소업체들과 협력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지원 예정 |
| 굿모닝 알람 앱 | • 알람 서비스, 2013년 연말 예정 |
| 네이버 쿠폰 | • 2014년 종료 예정 |
| 네이버 부동산 | • 네이버가 진행해 온 자체 매물정보 서비스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정보업체의 매물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발표함. |



특히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매물, 분양, 경매, 뉴스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9년부터 직접 매물을 확인하는 확인 매물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가 헛된 발품을 파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나, 장기적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업계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전문 정보업체들의 매물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네이버 부동산을 전면 개편키로 결정했다. 개편 전까지 온라인 부동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입점 및 매물 노출 정책, 매물 검증 방법 등 제반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산업 상생을 위한 협약

### ■ 소상공인과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네이버는 10월2일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 나들가게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소상공인진흥원이 보유한 전국 나들가게 1만여 건의 정보를 네이버 통합검색과 지도서비스 검색결과에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나들가게는 전국 1만여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네이버 검색 및 지도서비스 등에서의 노출을 통해, 그 동안 비용 집행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와 소상공인 진흥원의 나들가게 협약

##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네이버는 7월 문화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며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펀드는 콘텐츠 창작을 체계적으로 지원, 공익적 콘텐츠에 지속적 투자하는 등 콘텐츠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네이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 스토리 콘텐츠 창작 (만화, 장르소설 등) ▲ 지식콘텐츠 생산 (학술 지원, 백과사전 제작 등) ▲ 콘텐츠 디지타이징 ▲ 중소 콘텐츠업체 제작•마케팅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 ❖ 콘텐츠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공제조합'에 100억 출자

네이버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각종 자금 대여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을 출자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출자



#### ❖ 국내 최고 석학 강연 지원 프로그램 '문화의 안과 밖'

네이버문화재단은 지난 12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의 안과 밖' 자문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고 2014년 1월부터 오프라인 강연에 나서고 있다.

'문화의 안과 밖'은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찰적 지식에 대해 논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시사적인 이슈를 넘어 학문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면서 학문과 공론의 광장 구성을 도모하고 문화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강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의 오프라인 강연을 지원할 예정이며 강연 영상을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화의 안과 밖 자문운영위원장에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운영위원에는 유종호 전 연세대 석좌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오세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장(서울대 교수), 이승환 고려대 교수, 김상환 서울대 교수, 문광훈 충북대 교수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문화의 안과밖 김우창 교수 강연 현장



문화의 안과밖 위촉식


문화의 안과밖 강연 현장 스케치

## ■ 웹툰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 한국 만화 해외진출을 위한 '만화발전위원회' 설립

네이버는 2013년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할 '한국만화 해외진출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만화발전위원회 구성

- 만화발전위원장 : 이두호 작가 (머털도사)
- 운영위원 : 이현세 작가 (공포의 외인구단), 김동화 작가 (요정핑크), 원수연 작가 (풀하우스), 윤태호 작가 (미생), 한창완 교수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네이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각각 한 명이 만화발전위원으로 활동할 계획

만화발전위원회 주요 사업

- 해외 출판 판권 계약 등을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번역 및 제작 지원
- 국제 도서전에 국내 작가들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의 지원 사업



한국만화 해외진출을 위한 발전위원회 위촉식

### ❖ 네이버 웹툰, 세계 최대 출판전시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서 호평

네이버는 웹툰 작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13년 10월 세계적인 출판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웹툰 전시관을 마련했다. 핀란드 통신사, 벨기에 온라인 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프랑스, 독일, 대만,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출판 관계자들이 상담처를 방문해 작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평가했다. 네이버 웹툰 전시관은 공원 콘셉트로 만들어졌으며 '신의탑(SIU)', '노블레스(손제호, 이광수)', '갓오브하이스쿨(박용제)' 작가들의 사인회에서 기다리는 팬들로 인해 성황을 이룬바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요 성과

- 국내 최초의 웹툰의 해외 도서전 진출
- 10월 9일~14일까지 진행된 전시 기간 동안 약 2만 명이 방문
- 네이버 웹툰 30개 작품이 35개의 해외 출판사들과 퍼블리싱 상담을 진행함
- 해당 기간 네이버 웹툰 영문 웹사이트(베타)의 이용자 수는 12,000명에 이름
- 국내외 언론에서 웹툰의 전세계적인 인기와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주목함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네이버 웹툰전시관 팬사인회



201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네이버 웹툰 전시관 풍경

### ❖ 웹툰 작가들의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PPS' 도입

2013년 4월 네이버 웹툰은 PPS (Page Profit Sharing)를 도입했다. PPS란 네이버 웹툰 페이지에 수익모델을 도입하고 그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비즈니스 패키지를 의미하는데, 웹툰 페이지는 웹툰을 보여주고, 이를 보러 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 판매, 광고 보이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PPS 프로그램 주요 성과

- 2013년 4월30일 본격 적용하였으며, 2013년 누적 매출 50억원 규모
- 텍스트형광고/이미지형광고/파생상품연계/북스유료화(미리보기/완결작보기)로 고료 이외의 작가 수익 다각화
- 프로작가 뿐만 아니라 베스트도전만화 작가도 수익창출 가능
  (특별편/후속편 북스에서 유료판매 가능, 텍스트형광고 적용)
- 주호민 작가의 '신과함께', '무한동력','짬' 세 개 작품의 완결 유료화를 통해 2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0% 가 작가 수익으로 연결




네이버 웹툰 광고 사례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개발자 지원

### ■ 한국의 IT 사관학교를 꿈꾸다, 'NEXT' (nhnnext.org)

NHN NEXT는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NHN이, 이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미래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융합형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실제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육체계를 갖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NEXT 개요

| | |
|---|---|
| 개원 | • 2013년 |
| 학생 | • 2013년 11월 현재 재학생 86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br>• 2014학년도 120명 모집 예정<br>• 2013년 7월에 1차 전형결과 60명 선발, 2013년 12월에 2차 전형 진행 예정 |
| 교육과정 | • 5개 전공(웹서버, 웹UI, 모바일, 게임, 게임서버) 관련,<br>– BOK(Body Of Knowledge)<br>– 인문사회학<br>– Professional Practice(Critical thinking,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
| 특이사항 | • 소프트웨어 창의 체험 프로그램<br>– 교육기부 활동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고등학생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300명 이상 교육 (연 4회, 1회당 50~60명)<br>–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br>–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교육기부인증마크를 받음 (참석학생에게 수료증 제공)<br>• NEXT 소프트웨어 비전 특강<br>– 전공, 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비전,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최고 개발자들의 꿈과 성장, 개발자로서의 보람과 경험을 생생히 이야기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진행<br>– 연 4회, 회당 200명<br>•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2013. 6)<br>–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br>– 교육운영 및 역량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판단과 교육과정 및 기대효과 측면에서 IT전문인력양성의 역량 강화에 매우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발전성이 있다고 평가인정받음 |





## ■ 대한민국 대표 개발자 컨퍼런스 'DEVIEW'

2006년 NHN 내부 행사로 시작된 DEVIEW는 2008년부터 국내 모든 개발자들과 함께한 대한민국 개발자 컨퍼런스로 성장 중이다. 특히 2011년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네이버 뿐만 아니라 국내외 IT 기업, 중소 규모 벤처 및 오픈 소스 개발자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기술 지식을 나누는 열린 개발자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DEVIEW 2013는 총 8개 트랙이 7타임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됐는데 웹, 모바일, 오픈소스와 개발자문화를 다루는 첫째날과 빅데이터와 멀티코어 컴퓨팅, IT산업에 필요한 선행기술을 다루는 둘째날로 구성됐으며 그 외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소규모 트랙이 추가됐다. 특히 2013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연사를 모집하는 〈Call For Speaker〉를 통해 국내외 숨은 기술 컨텐츠 발굴을 시도 중이다.

### DeView 2013 DAY 1, 4트랙 28세션

| | TRACK 1<br>웹 | TRACK 2<br>모바일 | TRACK 3<br>오픈소스, 개발자 문화 | TRACK 4<br>다양한 주제 |
|---|---|---|---|---|
| 09:30 ~ 09:50 | 키노트 'Unsung Hero(얼굴없는 영웅)' / 송창현 NAVER Labs(다시보기, 발표자료) | | | |
| 세션 1<br>10:00 ~ 10:45 | nGrinder :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성능 테스트<br>윤준호 NAVER Business Platform | 백터 기반 지하철 노선도 렌더링 엔진<br>안덕웅 NAVER | 협업 SW개발 플랫폼 Yobi<br>채수원 NAVER Labs | Android Bionic Linker 구조 분석 및 안드로이드 보안 활용 방안 고찰<br>박준형 SK Planet |
| 세션 2<br>11:00 ~ 11:45 | 생산성 향상을 위한 PHP 개발 방법<br>용영환 PHPKorea | Tizen-Universal Device Platform<br>이원혁 삼성전자<br>박정혁 삼성전자 |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br>유석윤 NHN Technology Service | 리눅스와 모바일 플랫폼<br>한상곤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
| 세션3<br>13:00 ~ 13:45 |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위한 Varnish!<br>윤신주 NAVER<br>강홍근 NAVER | High Performance Android App Development<br>양정수 Kandroid | 당신의 인생에 오픈소스를 더하라<br>OSCON 발표자 뒷담화<br>진성주 KT<br>박민우 인모비 코리아 | Git은 어떻게 동작하는가<br>이용준 Naver Labs<br>박완순 Naver Technology Services |
| 세션 4<br>14:00 ~ 14:45 | 실시간 웹 협업도구 만들기<br>홍영택 카카오 | 안드로이드 앱의 성능 테스트, 자동화가 가능할까?<br>이경민 LG전자 | 나는 왜 개발자인데 자신이 없을까?<br>이민석 NHN NEXT | Energy Management for Mobile Devices<br>윤찬민 연세대학교 |
| 세션 5<br>15:00 ~ 15:45 | 웹 사이트 접근성 점검 자동화 100%를 향하여...<br>박태준 NHN Technology Services | WebView 뛰어 넘기고성능 WebView 만들기<br>박창현 SK Planet | 오픈소스, 오픈된 소스인가?<br>김윤영 NHN Entertainment | PaaS Backend CloudFoundry 뽀개기(Part 1)<br>박난하 SK Planet |
| 세션 6<br>16:15 ~ 17:00 | GUITAR : UI 테스트 자동화 어디까지 해봤니?<br>손민혁 NAVER | Firefox OS Fulfiling the promises of HTML5<br>Chris Heilmann Mozilla | 쫄지마, 글로벌! 평범한 개발자의 좌충우돌 글로벌 오픈소스 도전하기<br>심상민 카카오 | PaaS Backend CloudFoundry 뽀개기(Part 2)<br>박난하 SK Planet |
| 세션 7<br>17:15 ~ 18:00 | Naver office : Desktop Application에 도전하는 J-vaScript<br>권병철 사이냅소프트 | An introduction to Ubuntu Touch and its App Ecosystem<br>Alex Chiang Canoical<br>Michal Kamicki Canoical | Popular Convention 개발기<br>변정훈 SK Planet | Mobile Browser interlmals & Trends<br>이형욱 NAVER Labs<br>김준걸 NAVER Lab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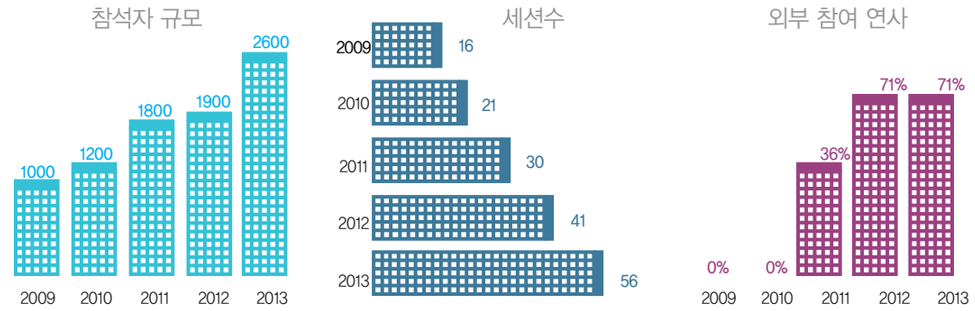


### DeView 2013 DAY 2, 4트랙 28세션

| | TRACK 1<br>빅데이터 | TRACK 2<br>빅데이터 | TRACK 3<br>선형기술 | TRACK 4<br>다양한 주제 |
|---|---|---|---|---|
| 세션 1<br>10:00 ~ 10:45 | Redis Sentinel internal and HOWTO<br>강대명 카카오 | Why Every NoSQL Deployment Should Paired with Hadoop |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with Deep Neural Network<br>김정희 Naver Labs | Towards Collaboration system : OT 알고리즘에서 CRDT 시스템으로<br>노헌걸 삼성전자 |
| 세션 2<br>11:00 ~ 11:45 | 구글의 검색 수집 로봇 최적화<br>김영진 Google | Rise of the (Wimpy) Machine Datacenter Efficiency with ARM-based Servers<br>John Mao Calxeda | 오픈소스를 활용한 분산 환경 구현기술<br>김요한 LG CNS | 멀티쓰레드 프로그래밍이 왜 이리 힘드나요<br>정내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세션3<br>13:00 ~ 13:45 | 응용프로그램 이벤트 실시간 분석 (Real-time Insights into Application Events)<br>배재현 Netflix | How Cloudera impala has Pushed HDFS in New Ways<br>Aaron T. Myers Cloudera | Naver Data Center 'GAK'- 친환경 기술과 자동제어 및 모니터링 Tools<br>최우신 NAVER Business Platform | 게임기술과 수퍼컴퓨팅의 공생관계<br>김태용 NVIDIA |
| 세션 4<br>14:00 ~ 14:45 | SQL-on-Hadoop with Apache Tajo, and application case of SK Telecom<br>정재화 그루터<br>박근태 SK Telecom | Parquet : open columnar storage for Hadoop<br>Julien Le Dem Twitter | 하둡 및 하둡 에코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적용사례<br>김형준 그루터 | 모바일 게임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엔지니어링<br>문성익 5Rocks |
| 세션 5<br>15:00 ~ 15:45 | 이렇게 배포해야 할까? Lightweight Linux Container Docker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기<br>김영찬 KT | Cool ideas from RAMCloud, scalable high-performance storage<br>Diego Ongaro Stanford Univ. PhD | MySQL과 MariaDB를 위한 새로운 암호화 방법, Engine Level Encryption<br>박광근 Penta Security system inc. | 모바일 광고와 분석을 위한 기술<br>박민우 인모비코리아 |
| 세션 6<br>16:15 ~ 17:00 | AWS에서 추천 구현하기<br>이채원 SK Planet | Ceph : Massively Scalable distributed storage<br>Patrick McGarry inktank | Mobile optimization<br>안상준 씨디네트웍스 | SSD 제대로 알고 쓰자<br>신기빈 NAVER Labs |
| 세션 7<br>17:15 ~ 18:00 | 링크드인의 Big Data Recommendation Products 어제의 데이터를 통해 내일을 예측한다<br>김형진 Linkedin | Haeinsa-HBase 트랜잭션 라이브러리<br>김영목 VCNC | NSMT : 통계적 기계번역기 개발<br>김준석 NAVER Labs | 이미지 인식을 통한 정보 추출 네이버 활용사례 및 응용 방법<br>민재식 NAVER Labs |

### DeView의 성장

회차를 거듭할수록 DEVIEW 는 참석자규모 (오프라인만 집계), 세션, 외부 스피커 참여율 등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 개발자들을 위한 오픈소스 코딩 축제 'D2 FEST'

D2FEST는 90일 동안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 소스 경연 대회로 2013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개발자를 위한 환경이 나아질수록 더 좋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럴수록 더 나은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인과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환경에서 90일 동안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개발하고, 마지막 날 모든 팀들이 모여 서로의 작품을 자랑하고 박수를 보내는 축제로 종료된다. 수상팀에게는 상금뿐 아니라 대회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D2FEST 2013 주요 성과

- 140여팀 참가신청 (일반, 대학생부문 통합)
- 각 부문별로 6팀 수상 (최우수 1, 우수 1, 장려 4) = 총12팀
- 수상팀은 DEVIEW 2013 DAY1에 BOF세션에 참여하여 참석자들에게 작품을 홍보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
- 그 외에도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소모임 장소와 서버를 지원하고 있음.

### D2FEST 진행방식




### D2FEST 2013 행사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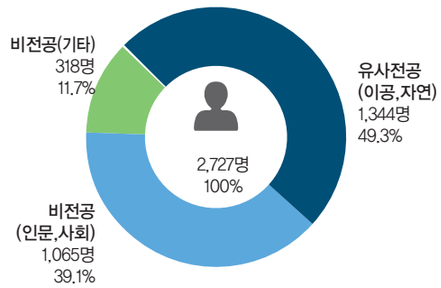


## ■ 개발 비전공자에게도 기회를, 'S/W 멤버십 프로그램'

S/W 멤버십 프로그램은 개발자로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조기 선발해 프로젝트 인턴쉽을 수행하게 하는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멤버십 과정은 5개월 간의 예비과정과 이후 5개월 간의 본과정으로 구성되며, 참여 대학생들은 NAVER 현업 조직 내에서 인턴쉽을 통해 역량 개발 기회 부여 및 경험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이 중 일부는 NAVER의 기술 분야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지원자 인원으로 보면, 총 2,727명이 지원했으며 2013년 대비 207%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매년마다 개발 비전공자의 응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총 1,383명, 전체 응시자의 50.7%가 개발 비전공자로 나타나 비전공자의 참여를 권유하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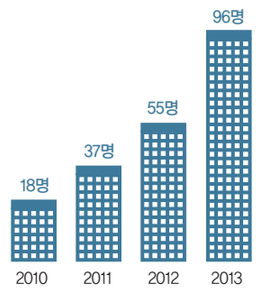
2014년 예비과정 지원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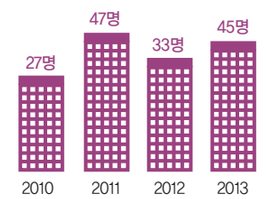

예비과정 커리큘럼

| 교육분류 | 실습내용 |
|---|---|
|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지식 (3주) | 리눅스 |
| | 데이터베이스 |
| | OS & N/W |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12주) | C프로그래밍/자료구조&알고리즘 |
| | JAVA 프로그래밍 |
| | 웹 프로그래밍 |
| | 소프트웨어 공학 |
| | PM 이론/Framework |
| 프로젝트 (5주) | 팀 프로젝트 과제 및 평가 |

연도별 예비과정 이수자




연도별 본과정 이수자



### ■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 시작

네이버는 2013년 12월부터 NHN NEXT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3년 겨울방학부터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2종류 수업을 제공하게 된다. 3~4학년의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를 통해 스스로 구성한 이야기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5~6학년 학생들은 단일보드인 '아두이노'를 활용해 전등을 켜는 법, 음향 크기를 조절하는 법 등 사물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됨을 인지하고, 스스로 이를 적용시켜 결과물을 얻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이번 시범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온라인 강좌,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교육을 장려하는 캠페인 광고도 KBS 1,2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 ❖ 2013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3,4학년)

**3,4학년 컴퓨터 이야기책 만들기**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를 통해 친숙한 동화 스토리를
작게 분해하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익히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요

스크래치란?
아이들이 상상한 스토리를 마치 레로 블록 쌓듯이 조립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래밍 도구

| 주차 | 회수 | 수업내용 |
|---|---|---|
| 1주차 | 1회 | 캔자스 드넓은 초원, 갑자기 불어오는 회오리바람 |
| | 2회 | 뭉크킨 나라에서 난쟁이들과의 만남 |
| 2주차 | 3회 |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
| | 4회 | 여행 게임 :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와의 여행 |
| 3주차 | 5회 | 원숭이 잡기 게임 : 서쪽 마녀와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
| | 6회 | 프로젝트 : 스토리 만들기 |
| 4주차 | 7회 | 프로젝트 : 만들어진 스토리에 따라 스크래치 제작 |
| | 8회 | 프로젝트 : 결과물 완성 및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기 |



#### ❖ 2013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5,6학년)

**5,6학년 창의적 제작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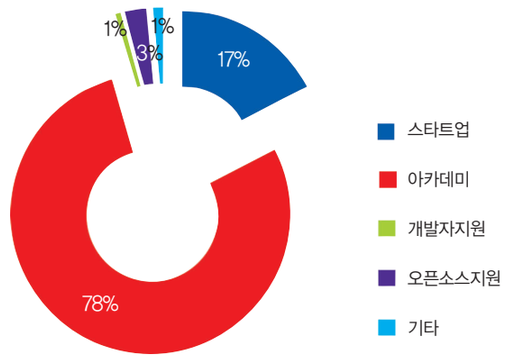
개방형 플랫폼 '아두이노'를 바탕으로 로봇, 자동차 등 움직이는 사물의 원리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됨을 알고 스스로 이를 적용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아두이노란?
여러장치들을 결합하여 통제 가능한 상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일보드

| 주차 | 회수 | 수업내용 |
|---|---|---|
| 1주차 | 1회 | 전등(LED)켜고/끄기 조절하기 |
| | 2회 | 버튼으로 전등(LED) 밝기 조절 |
| 2주차 | 3회 | 바람개비 만들기(서보모터 기반) |
| | 4회 | 사운드 크기 조절(기울기 센서/거리 센서 기반) |
| 3주차 | 5회 | 조에트로프(원통형 장치)를 이용한 움직이는 연속 그림 제작해서 보기 |
| | 6회 | 아두이노 보드로 컴퓨터 캐릭터 동작 제어 |
| 4주차 | 7회 | 종이를 이용한 버튼 조작 |
| | 8회 | 자동차 만들기 |

### ■ IT 교육을 위한 서버 무상 지원 '에코 스퀘어(Eco Square)'

IT 현장 학습과 교육, 그리고 스타트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서버 무상 지원 사업인 '에코스퀘어는'는 2010년 이후 4년째 지속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약 800 여대의 서버, 약 9억원 규모가 무상 지원되고 있다.



##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 벤처기업상생협의체 출범

벤처기업상생협의체는 2013년 8월1일 인터넷 산업 유관 협회들이 회원사들과 협력해 국내 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포털 사업자와 중소인터넷 업체간의 쟁점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다.

❖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주요 성과

- 1차회의 : 출범식 및 역할 공표 ▲중소 벤처와 대형 포털 사이의 갈등 조정 및 중재 ▲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확산 등 벤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2차회의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부동산뱅크) 참여. 부동산 매물정보를 네이버가 직접 하지 않고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함. 또한 허위 매물 근절 노력은 계속 하기로 함.
- 3차회의 : 중소벤처/스타트업 (위자드웍스, 스타일쉐어, 메뉴판닷컴, 인스타일핏, 이앤비소프트, 조아라) 참여. 주로 골목상권 이슈를 다루었으며, 네이버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며 공정성 확보에 노력, 그리고 M&A 등 투자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함.
- 4차회의 : 스타트업 (이앤비, 메뉴판닷컴, 스타일쉐어, 인스타일핏, 조아라, 록앤올, 스타마스) 참여. '윙버스', '윙스푼', '워너비', '네이버 굿모닝 알람 앱', '네이버키친', '워너비' '네이버 쿠폰' 등 7개의 주요 서비스를 정리키로 발표함.



벤처기업상생협의체 출범식


벤처기업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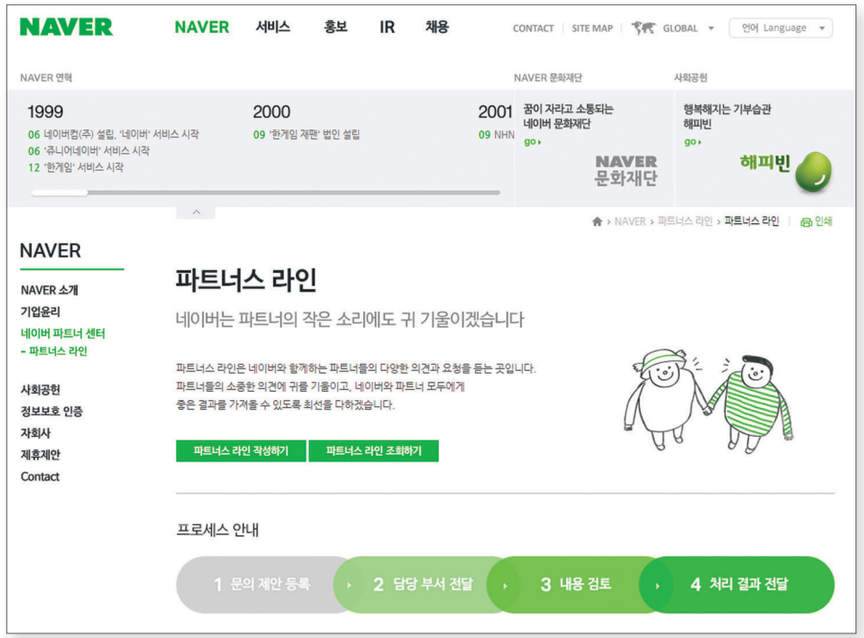
### ■ 네이버 파트너 센터 설립

네이버는 2013년 9월 제휴 협력 관계에 있는 각 파트너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 협력업무를 전담할 CEO 직속의 '네이버 파트너센터'를 신설했다.

'네이버 파트너센터'는 ▲ 대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 ▲ 전사 상생 프로그램 발굴 및 기획 등 다양한 상생 협의 채널 운영 지원 등 전사 차원의 상생 협력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네이버의 각 서비스, 비즈니스가 인터넷 생태계에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영향평가제 운영, 유관 중소벤처들의 의견 수렴 및 참여기회 제공 등 전사 차원의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네이버 파트너센터는 파트너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공식 소통 채널인 '파트너스 라인(Partners' Line)'을 개설 운영 중이다.

파트너 소통 채널 '파트너스 라인'



# 다음커뮤니케이션







## Daum 상생사업 현황 및 계획

**■ 스타트업 지원 기반의 상생사업 현황 및 계획**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도전과 혁신에 연간 수백 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대표 포털로서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직접 투자,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 ❖ 스타트업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를 통한 생태계 지원

**– 스타트업 인수합병(M&A)**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인수·합병(M&A) 혹은 지분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업체인 '다이알로이드'를 인수하고, 국내 최초로 음성인식 API를 더불어 공개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들도 다이알로드의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모바일 광고제휴를 가능케 해주는 크로스 프로모션 플랫폼 분야 선두업체인 'TNK팩토리', 스마트폰 런처 개발사인 '버즈피아'와의 M&A를 통해 스타트업들의 인터넷 생태계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 스타트업 지분투자**

모바일 쿠폰 개발업체인 '나인플라바(위패스)',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NBT파트너스', 무료출력 서비스로 유명한 '애드투페이퍼', 북미기반 웹툰업체로 유명한 '타파스미디어' 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만든 광고 스타트업 애드투페이퍼의 경우,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해 지분 투자하여 최근 국내 다른 펀드에서도 투자를 받는 등 성장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파스미디어'를 통해 국내 웹툰작가의 글로벌 진출도 도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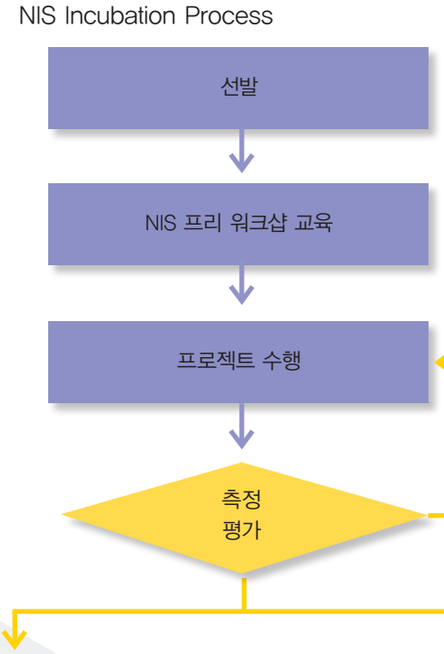
**– 전문 투자사를 통한 스타트업 간접투자**

국내에서는 약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회사인 스톤브릿지 캐피탈(http://www.stonebridge.co.kr/)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알토스 벤처스, Collaborative Fund(공유경제 펀드), 스트롱벤처스 등 VC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있다. 트랜스링크캐피탈 VC를 통해서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국내외 스타트업의 실험과 도전을 통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 ❖ 스타트업 멘토링 등을 통한 성장 도모

– NIS(Next Incubation Studio) 사업

스타트업에게 멘토링과 투자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초 모바일 의료 정보서비스인 '굿닥(www.goodoc.co.kr)'의 임진석 대표와 함께 서비스 소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굿잡, 'TextAt'(www.textat.co.kr) 등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안정적 발전 및 비즈니스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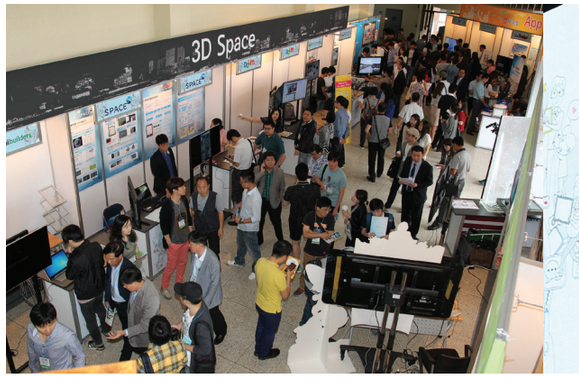

Daum NIS 인큐베이션 프로세스

NIS를 통해 사내벤처인 자동차 외장수리 견적 비교 서비스인 '카닥'과 지역 기반 육아 커뮤니티 '해피맘'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개시했고,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추가 인큐베이팅을 추진 중이다. 내부 인큐베이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 외부 인큐베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내부와 외부 지원은 8대2 혹은 7대3 수준으로 상황에 따라 외부 확대도 가능하다.

## ■ 산학연 기술 협력을 통한 상생사업 현황

### ❖ 실사 3D 기술 개발

Daum은 2012년부터 건국대, 버츄얼빌더스, 연세대, 현대엠엔소프트와 함께 일반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민간 및 공공 공간정보 DB를 활용해 고품질 3D 실사 모델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해 대상물 변경에 따른 3D 실사 모델 DB를 온라인으로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AR/VR 콘텐츠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앱페스티벌의 다음 3D지도 부스




서울앱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최세훈 다음 대표

### ❖ 빅데이터 기반 공공 DB 구축 및 개발

Daum은 2012년부터 서울대와 함께 공공 데이터 지식 자산 분석 처리 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Linked Data 활용 기술 및 개발자 인터페이스 및 매쉬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해당 연구 과제에는 솔투룩스, 코리아메디케어 등 중소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매쉬업경진대회 예선



매쉬업경진대회 예선

### ❖ 모바일 매쉬업 저작 도구 개발

Daum은 2012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와 함께 오픈API 기반의 웹 자원과 사용자의 모바일 자원을 융합해 사용자가 다양한 매쉬업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저작 및 이용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매쉬업 WebApp 콘텐츠 제공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연구 과제에는 네이버시스템, 토마토시스템 등 중소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매쉬업경진대회 시상식

### ❖ 개방형 시맨틱 센서 오픈 API 서비스 개발

Daum은 2011년부터 ETRI와 함께 센서 네트워크의 실시간 대량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하고, 이를 Daum DNA의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센서 AP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자에게 SensorQL 질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셋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센서 기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 연구 과제에는 탑쿼드런트코리아, 비트컴퓨터 등 중소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 ❖ 모바일 음성 검색 엔진 및 서비스 개발

Daum은 2010년부터 ETRI와 중소기업인 디오텍이 함께 개발한 모바일 음성 인식 엔진을 다음앱 등에 음성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음성 검색은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받아 키워드를 추출해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서 향후 음성 인식 및 대화형 검색 등의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산학 연구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 창업지원 및 대학 교육을 통한 상생사업 현황

### ❖ 인터넷 기초 생태계 강화 방안

Daum은 'DevDay'와 'API BootCamp' 등을 통해 오픈API 개발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7년부터 진행된 DevDay는 국내 최장수 라이브코딩 행사로써, 오픈API를 이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과 개발자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2년 처음 진행된 API 부트캠프는 이론 위주로 진행해 온 API 정기교육과 달리, 하루 동안 원하는 API 세션을 선택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API 제휴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협력 채널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디브데이의 라이브코딩 모습




디브온의 다음 서비스 부스

### ❖ DevOn: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소통

Daum은 2011년부터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술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대형 외부 개발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이 행사를 '공유와 소통' 이라는 취지에 맞춰 70여개 부스(개발자 커뮤니티, 17, 대학 개발 동아리 11, 스타트업, 13, IT 전문 출판사, 5, 사내 서비스 6, 기타기관 8, 미디어아트 8)의 참여로 80여개의 기술 미트업을 진행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기술 세션과 대담 프로그램을 늘려서 3배 이상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디브데이 특강




디브온 행사에 참여한 스태프들



디브온의 개발자 커뮤니티 부스



디브온의 대학 개발 동아리 부스




디브온의
네트워킹 파티

### ❖ 참여 커뮤니티 목록

우분투 한국커뮤니티, KDE 한국, 그놈 한국 프로젝트, 한국 모질라 커뮤니티, OpenStack 한국커뮤니티,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 OKJSP, 클리어보스, CDK(CSS Design Korea), 한국 웹 접근성 그룹, 한국워드프레스사용자모임, XE, TNF/Needlworks 등 이상 13개

**주요 행사표**

| 구분 | 개최횟수 | 참여인원 | 참여대상 | 개최목적 | 개최효과 |
|---|---|---|---|---|---|
| DevOn | 연 1회 (2011년부터 개최) | 약 2,700명 | 외부 개발자 및 전공 학생, 기술 커뮤니티 | 국내 개발자에게 다음의 개방 전략 소개 및 커뮤니티와 소통 |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서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 및 상생 홍보 |
| DevDay | 연 3~4회(2007년 시작, 총 15회 개최) | 약 40~80명 | 오픈 API와 매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국내 오픈 소스 이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케이션의 발전과 오픈소스 이용확대 | • 오픈 API에 대한 관심유도와 Third Party 어플리케이션 확보<br>• 개발자 발굴 및 채용 |
| API BootCamp | 연 1~2회(2013년 시작) | 약 70~100명 | | | |
| 매쉬업 경진대회 | 연 1회(2007년 시작, 총 5회 개최) | 약 300명 | | 신규 아이디어 발굴과 서비스화 지원을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 기초 생태계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공공 및 민간정보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
| 서울 앱 페스티벌 | 연 1회(2013년 시작) | 약 1000명 | 약 1000명 | | |

* 매쉬업(Mashup) : 웹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DB 등을 만드는 것.
* 미러링(Mirroring) 서비스 : 서버에 있는 내용을 복사, 백업했다가 이용자의 서버 에러시 동일한 내용을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

### ❖ 오픈플랫폼 정기 교육

2013년 11월21일에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하는 오픈플랫폼 교육행사를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포털 3개사가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공공 및 민간 API 정보활용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11월22일에는 충남대에서 두 번째 교육행사를 개최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수 참여해 공공 및 민간 API 정보활용을 이용한 서비스개발 및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초 생태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 ❖ API 프랜즈쉽 프로그램

2013년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Daum API 프랜즈쉽'은 다음 오픈/제휴 API를 이용해 특정 목적(제휴성)의 웹서비스 및 앱을 만들도록 장려해 API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업 혹은 서비스 가능 아이템을 실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창업 예비팀과 대학 개발 동아리팀 중에서 엄선된 '하터스타일' 팀과 '아빠, 이게 뭐야' 팀에게 제주 오피스에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숙소 등 생활편의를 지원했고 그 결과 제휴성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키도 했다.

### ❖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다음 트랙'

Daum은 2007년에 제주대 컴퓨터공학과에 인터넷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다음 트랙'을 개설해 실무중심의 강의,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회사인 ㈜다음서비스와 제주한라대학 간에도 인터넷 서비스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10년에는 제주대 컴퓨터교육과에도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기술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대구 대경대와의 산학협력

2010년 11월4일 Daum 검색마케팅센터를 대구에 오픈했다. 대경대는 정원 30명의 '온라인 마케팅과'를 신설, 2년 과정으로 온라인 검색엔진 마케터, 온라인 매체 광고 관리 등의 과목을 운영해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 해당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다음 검색마케팅센터'에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 ❖ 대학교 동아리 지원

Daum은 웹 기술 및 프로그래밍 분야의 각 대학 동아리를 발굴 지원해 창업 및 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원 동아리를 중심으로 동아리 캠프 및 간담회를 매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대학 동아리 지원표**

| 동아리명 | 소속학교 | 주요관심분야 | 지원현황 |
|---|---|---|---|
| 와플스튜디오 | 서울대 | 웹 개발 분야, 매쉬업 경진대회 및 궁극적으로는 창업 목적 | 서비스 및 개발을 위한 서버 호스팅 제공 |
| 풀씨 | 연세대 | 프로그래밍 동아리로 웹개발 보다는 앱개발 중심 창업을 목표로 함 | 서비스 및 개발을 위한 서버 호스팅 및 개발 장비 지원 |
| A.N.S.I | 아주대 | 프로그래밍 동아리로 ACM 준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분야에 관심. 장기 인턴 이후로 4명 입사. | APC 행사 후원 및 기념품 제공 |
| 인쿠르드 | KAIST | 프로그래밍 동아리로 ICU 학생 중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특화 | 개발 비용 지원 |

❖ 유스보이스 미디어 컨퍼런스

Daum 임직원 및 주주들의 기부로 2001년 출범한 비영리법인 '다음세대재단'을 통해 미디어 활용,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공유를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킹 사업으로 비영리단체 IT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문화다양성 사업 등을 진행. 2013년 7월에는 2박3일 동안 청소년, 교사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하는 '유스보이스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유스보이스 미디어 컨퍼런스'는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 교사, 미디어 활동가가 모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사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활용해 '청소년과 미디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행사 기획과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 기술 플랫폼 기반의 상생사업 현황

❖ Daum 오픈 API 플랫폼 (http://dna.daum.net/apis)

Daum은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서비스는 검색, 블로그, 지도, 위젯뱅크 등의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외부 개발자들은 오픈API로 공개된 서비스 및 데이터를 이용해 창의적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며 제휴 개발자들은 자사 서비스와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aum이 2006년 말 오픈 API를 제공한 이후 오픈 API 활용 규모는 매년 30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1월 매월 3억3천만 건의 호출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전체 검색 쿼리 가운데 5%가 오픈API를 활용한 외부 사이트에서 유입되고 있다. 다음의 지도서비스 오픈API의 경우, 월 평균 2천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주소록, 마이피플, 알리미 API 등을 활용해 중소 규모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공유도 시작했으며, 캘린더, 카페, 블로그, 티스토리 등의 oAuth 기반 개인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한 오픈 API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모바일 웹 기반 로드뷰 API 및 iOS 및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 지도 API를 추가해 외부 사업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에는 국내최초 음성인식 API를 오픈했고, 프로필 API를 확장한 '다음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제공하는 OAuth 2.0 API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제휴사들이 요구하는 다음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win-win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Daum 위젯뱅크 플랫폼 (http://widgetbank.daum.net)

누구나 직접 등록 가능한 위젯 서비스 'Daum 위젯뱅크'의 경우, 자사 카페, 블로그, 티스토리에 다양한 위젯형 소셜앱을 추가할 수 있으며 타사 블로그, 홈페이지에서도 위젯을 사용 가능토록 했다.

위젯뱅크는 2008년에 국내 포털 최초로 구글 오픈소셜에 참여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타 사이트와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개방했다. 구글 오픈소셜은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마이스페이스 등 국내외 유명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픈소셜로 제작된 콘텐츠는 오픈소셜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이트에 활용 가능해 개발자는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 다양한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다.

2014년 3월 기준 약 2천100 여개의 위젯이 등록됐으며 누적 사용수가 약 3억8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Daum 위젯뱅크를 통한 일 페이지뷰(pv)는 2억에 달해, Daum 바깥의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재 Daum 위젯뱅크 등록자의 개인 대 기업 비율은 약 1대 5로 다양한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에는 Daum 웹스토어로 개편해 유무선 위젯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 ■ 공개 SW 기반의 상생사업 현황

❖ 오픈 소스 인프라 공유 지원

– 공용 FTP 서버 지원

공용 FTP 서버(ftp.daum.net)을 통해 국내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개발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매우 빠르게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해 최근 서버를 교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요가 많은 신규 오픈소스도 추가로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파치, 모질라, 이클립스, 우분투, CentOS 등 20여 가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한국 공식 미러로 등록돼 있다.

– 호스팅 서버 지원

Daum에서는 국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서버 호스팅(oss.daum.net)을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포럼, 위키, 개발 환경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서버 및 회선을 제공 중이다. 현재 한국 모질라 커뮤니티, 한국 파이썬 사용자 모임, TextCube 등에 서버를 지원 중이다.

### ❖ 오픈 소스 프로젝트 직접 지원

**– 태터 네트워크 재단(Tatter Network Foundation)**

Daum은 TNF에서 나온 결과물인 태터툴즈 GPL 버전을 이용해 '티스토리(Tistory)'라는 서비스형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티스토리 개발 인력 일부가 TNF에 참여해 'TextCube' 개발에 동참하고 있으며 TNF의 개발 서버를 DNA에서 제공 중이다.

**–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

Daum은 모질라 재단의 제품인 파이어폭스와 썬더버드의 한국어판 개발 작업에 내부 개발자를 지원해 이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모질라 커뮤니티는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및 썬더버드 이메일 클라이언트 등 웹 기반 데스크톱 플랫폼을 개발 및 제공하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다. Daum은 커뮤니티에 대한 인적 지원 및 마케팅 활동 지원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파이어폭스 다음 에디션을 출시하고 검색 제휴를 통한 수익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 ❖ 오픈 소스 공유 지원

**– Daum Open Editor (http://code.google.com/p/daumopeneditor/)**

웹서비스 개발의 필수 컴포넌트인 웹 에디터를 오픈소스화 해 국내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중복 투자 없이 더 새롭고 가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외산 에디터에 비해 훨씬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진한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탄력을 불어 넣기 위해 꾸준히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의미 기반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 Javascript library (http://code.google.com/p/jeslib/)**

웹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필수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라이브러리들에 비해 기능은 일부 뒤처지지만 상대적으로 쉽고 간결한 코드 구조를 통해 개발자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원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 Quickbread (http://code.google.com/p/quickbread/)**

Daum 오픈AP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oAuth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개발하기 위한 자바 라이브러리로서 이는 Daum에서 근무한 대학생 인턴들에 의해 개발돼 제공되고 있다.



## ■ 콘텐츠 기반의 상생사업 현황 및 계획

### ❖ 게임사와의 채널링 서비스 확대

다음은 국내외 자력 서비스의 기회가 없는 게임사를 위한 채널링 서비스 사업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했다. 다음이 가진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게임들에게 더 큰 서비스의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등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중소 게임사들과도 폭넓은 제휴를 통해 채널링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다음이 가진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을 통해 대형 게임사들의 인기 제품은 물론 중소 게임사들의 다양한 게임 라인업들이 서비스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형 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창구를 열어놓을 예정이다.

### ❖ 중소 인터넷 사이트 및 제공업체와 콘텐츠 구매

Daum 내에서 검색되는 정보들 가운데 실시간 교통정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등 일부 정보는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 인터넷 사이트나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 데이터베이스 등 서비스에 직접 연동되는 콘텐츠 및 웹폰트, 홈페이지 스킨 등 중소업체가 경쟁력을 갖는 인터넷 콘텐츠 구입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 활로를 열어주는 효과와 더불어 더 좋은 검색 결과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윈-윈 전략의 일환이다.

### ❖ 동영상 및 음원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Daum은 동영상, 음원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합법 음원 구입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다.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합리적 상생을 위한 일환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용자 동영상 서비스에서 우려됐던 저작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0월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 저작권 관련 3단체와 협약을 체결, UCC에 BGM(배경음악)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렙사 및 광고대행사와의 수익 분배

Daum은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 분배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협력사와의 건전한 제휴와 합리적인 배분 관계 형성에 주력해 오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서비스 및 콘텐츠 제휴를 위해 총 36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렙사, 광고대행사에게는 광고 집행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렙사 및 광고 대행사와 분배한 수익의 규모는 총 873억 원에 이른다.

### ❖ 모바일 광고 플랫폼 Ad@m(이하 '아담')

국내 1위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은 현재 8천개의 파트너사와 월간 150억 페이지뷰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은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모바일 사이트 운영자 등 다양한 플랫폼의 운영자들이 간단한 등록만으로 아담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광고주 역시 노출할 광고 및 페이지를 아담에 등록하면 자사의 광고를 바로 노출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 ❖ 웹툰 상생 프로그램

Daum은 웹툰 작가들의 사기 진작과 결속력 도모를 위해 매년 테마를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해 왔다. 2012년에는 만화속세상 10주년 기념 문화공연 행사를 홍대에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13년에는 '힐링'을 테마로 작가들의 종합 건강검진과 프로필 사진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건강검진은 30세 이상 작가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학연구소(KMI) 전국 각 센터에서 진행됐다. 웹툰 작가들이 Daum에 보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 직원과 동일한 건강검진 센터 및 검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잦은 밤샘작업 등으로 건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한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포털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작가 50명은 청담동에 위치한 유명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최근 웹툰 작가들이 각종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고, 스타성을 갖춘 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외적으로 필요한 프로필 사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웹툰 작가들도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만화속세상 웹툰 작가로서의 자부심과 사기도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앞으로도 웹툰을 통한 단기적 수익 창출 보다는 장기적으로 웹툰 콘텐츠 발전과 웹툰 작가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만화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포털 최초로 201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연재 종료작품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 영상화 등 2차 시장이 아닌 웹툰 콘텐츠 자체 시장을 만들어야만 장기적으로 만화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작가들에게는 연재를 진행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미래 작품을 위한 창작 비용도 필요한데, 최근 출판시장이 축소되어 단행본 판매를 통한 수입이 줄어들어 인세 수입을 대신 할 다른 방법으로 웹툰 유료화를 도입했다.

다음은 단계적으로 유료화 작품을 늘리며 유료화에 대한 독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 7월에 '웹툰 마켓'을 정식으로 오픈했다. 연재가 종료됐거나 연재 중이더라도 오프라인 단행본으로 출간된 분량이 대상으로, 유료화 여부나 가격 책정은 전적으로 작가들의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강풀 작가의 순정만화, 아파트, 바보 등 9개 작품을 포함해 70여 편의 작품이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다음에 독점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작가에게 매출의 90%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앞으로도 연재종료 작품 유료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장 환경 안정화 및 서비스 편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웹툰 마켓: cartoon.media.daum.net/webtoon/market_info#apply)

웹툰 유료화 외에도 다음은 작품 내 PPL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PPL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작품 감상을 방해하는지 검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PPL의 경우 현재 정식상품이 출시돼 다음이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50%를 작가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행본 발매 ▲영화, 드라마 등으로 영상화 ▲이벤트 ▲웹툰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판매 등의 이슈 발생시 다음 만화속세상 이벤트(cartoon.media.daum.net/event) 페이지 및 다양한 배너를 활용해 해당 이슈를 홍보 지원하고 있다.

## ■ 기타 상생사업 현황 및 계획

### ❖ 제주지역 주요 상생활동

Daum은 제주 본사 이전사업을 통해 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독려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를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 구분 | 후원 내용 | 후원 결과 |
|---|---|---|
|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 네티즌 참여형 제주 이웃 돕기 | 2013년 6,200만원 |
| 다음 견학프로그램 | 초중고, 대학교, 기업 및 기관 대상 | 2013년 4,824명 참여 |
|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 제주도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상 | 2013년 10,168명 참여 |

### ❖ 농어촌 지역 및 군대 소통 카페 지원

농어촌 주민들의 정보화 소외를 줄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E마을 카페'를 무료로 구축, 지원하고 있다. E마을 카페는 전국 어디서나 고향의 소식과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 특산물 홍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소통을 위한 'E군 카페'를 지원, 군 내외부의 신뢰감과 단결심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구분 | 운영 카페수 |
|---|---|
| E마을 카페 | 1,042개 |
| E군 카페 | 2,563개 |



### ❖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다음의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프로젝트를 12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사회적 기업명을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최상단에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 중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총 319개의 사회적 기업을 '바로가기' 서비스에 등록해 이용자 접근을 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IT 실기교육을 진행하는 'IT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금까지 11기 300 여명의 교육생이 배출됐다.

### ❖ 다음 뮤직, 소셜 펀드레이징 프로젝트 실시

여러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해 작품 활동을 후원하는 형태의 '소셜 펀드레이징'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뮤직이 아티스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음악 프로젝트 '서포트 유어 뮤직(Support Your Music, 이하 SYM)'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 공연•음반기획사 '민트페이퍼'가 시작한 SYM은 소셜 펀드레이징(Social Fund Raising)을 통해 뮤지션의 음반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대중과 소통하고,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뮤직 SYM(music.daum.net/sym/top)서비스를 오픈했다.

### ❖ 다음, '제12회 한국IR대상' 코스닥 부문 대상 수상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속가능경영, 투명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KRX)가 선정한 SRI (Socialit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선정한 지배구조(ESG) 최우수기업 5년 연속 선정,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의 DJSI KOREA 부분 2년 연속 선정, 한국표준협회(KSA) 주최로 진행된 '201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포털사이트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방침이다.

### ❖ 다음, 1,600개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위 4위 랭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조선일보, 한국기업공헌평가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3 한국 기업 국가•사회공헌도 평가' 조사에서, 전체 1,600개 상장기업(금융권 제외) 중 4위에 랭크되어 2011년에 이어 10대 매출 대비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Alliance ECO AD PROJECT Internet

# 얼라이언스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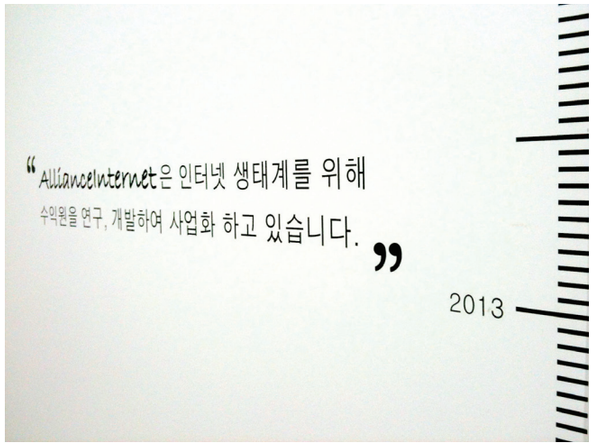






## 얼라이언스인터넷 상생사업

상생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힘이다. 이미 성장하고 힘이 있는 쪽은 힘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를 돌봐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업의 리더로서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아직 힘이 부족하고 성장이 덜된 쪽은 스스로 충분한 자생력이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얼라이언스인터넷은 그 양쪽의 중간에 인터넷 대중소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로 인터넷업계 상생을 도모하며 비즈니스모델 개발로 인터넷 생태계 복원의 꿈을 꾸는 회사다.



### 에코애드프로젝트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 : 배너 광고 플랫폼 V2 런칭

중소 매체사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온 얼라이언스인터넷에서 2013년 4월 중소 매체사를 위한 배너 광고 플랫폼을 런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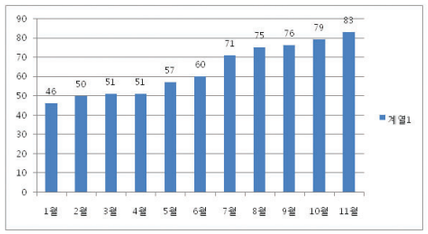
대형 광고주와 대형 포털 위주의 배너 광고 시장을 중소 광고주와 중소 매체사로 확대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V2배너 광고 플랫폼은 NBP에서 제공하는 검색 광고와 함께 중소 매체의 수익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




키워드, 카테고리 기반의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시작해 현재 브랜딩 광고도 진행할 수 있으며 2013년 35개 매체사와 제휴로 2012년 대비 제휴 매체사 약 2배 확대 됐다. (2013년 11월30일 기준)

NBP검색광고와 V2 배너 광고를 통해 2013년 36억여원의 매체사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월별 매체사 증가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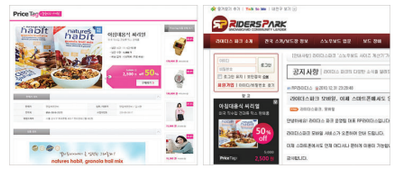



(2011년 22개 매체 → 2012년 45개 매체 → 2013년 80개 매체 제휴)

### 에코애드프로젝트 세 번째 시도!
### : 중소상인의 물품판매와 배너광고 플랫폼 PriceTag

많은 소상공인들은 사업규모가 작아 광고 및 홍보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엄두를 내어 온라인광고를 하려고 해도 변변한 자사 쇼핑몰도 없고, 랜딩 페이지(광고를 클릭한 후에 보여지는 광고주의 프로모션 페이지)가 없어서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큰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더라도 수많은 경쟁판매자 사이에서 판매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운영해야 하므로 처음 진입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상공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광고주가 간편하게 상품내용과 가격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판매 페이지가 만들어져 즉시 판매가 가능하고 동시에 배너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PriceTag 또하나의 큰 혁신은 과금 체계로 물건이 판매됐을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광고노출로 무료 홍보를 우선해주고 판매가 됐을 경우 수수료를 받는 과금 방식이다. 대부분의 플랫폼 제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수료율로 지급하지만 프라이스태그 광고상품은 수수료도 광고주가 직접 정하도록 했다.

얼라이언스인터넷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과금체계를 지닌 광고 상품을 서비스하는 이유는 중소매체를 위해서는 중소광고주들 즉,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소상공인 광고주들에게 인터넷 중소매체의 좋은 광고상품을 제시하고 효과를 본 광고주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중소매체에 광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것이 인터넷생태계를 살리는 궁극적인 선순환을 만들 것이란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SK 플래닛







## 상생의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다

SK플래닛의 '상생혁신센터'는 모바일 생태계(Eco-System) 확대를 위해 개방과 협력의 기치를 내걸고, 2010년 10월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설립됐다. '상생혁신센터'는 외부 개발사 및 개인 개발자를 교육, 육성하고 T맵, 11번가, T클라우드 등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들의 기반 기술(API)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SK플래닛은 상생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개방 및 외부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개발자나 중소업체 등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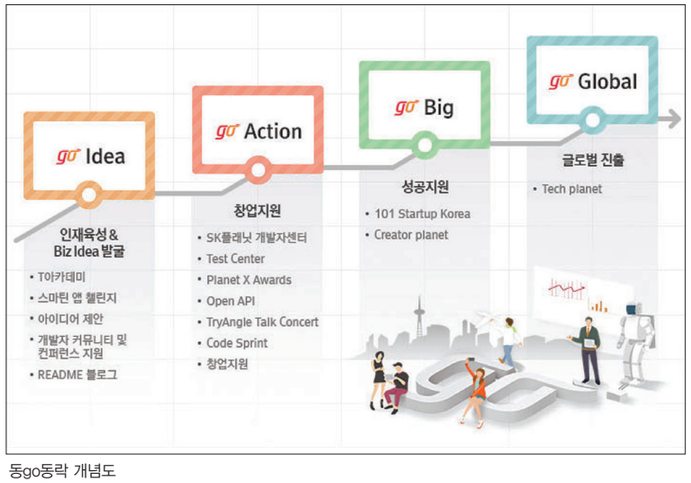
## 개발자와 동반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상생혁신센터는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T 아카데미, 테스트센터 총 세 개의 센터를 통합 운영 중이다. 아이디어 제안접수를 비롯해 T아카데미를 통한 개발자 교육 및 육성부터 개발 공간, 개발비 및 마케팅 활동 지원까지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모바일 생태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동go동락 포스터

특히,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외부 파트너들과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동go동락 창업지원', API 활성화를 위한 '동go동락 Open API', 창의적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제안으로 서비스를 상용화 하는 '아이디어 제안'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약 80여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업하였고, '테스트센터'를 방문해 단말 테스트지원을 받은 이용자만 3만4천명에 이른다.



동go동락 개념도

상생혁신센터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K-스타트업'에 참여해 앱센터운동본부, 구글코리아,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다각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전문가를 초청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관련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파이어사이드 챗'(Fireside Chat) 행사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SK플래닛 자체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 '101 스타트업 코리아'를 시작했다.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개의 팀들은 7개월간 무료 사무공간뿐 아니라 국내 최고 수준의 멘토링과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SK플래닛 서진우 CEO, 정기현 CPO가 직접 참가팀들을 만나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예비 스타트업 팀들에게 현업 전문가의 전담 멘토링을 제공하여 UI/UX 및 개발 완성도를 높여 성공적인 상용화를 지원하는 팀단위 프로그램 '스타트업 비기닝'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비기닝'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앱상용화 경험을 가진 예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15주 동안 UX시나리오 작성, UX워크샵, 개발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있는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창조경제 인재 육성을 위한 앱개발 경진대회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난해 3번째를 맞이했던 고교생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인 '스마틴 앱챌린지(Smarteen App Challenge) 201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 진행했던 '특성화고 앱개발 경진대회'를 발전시킨 것으로 참가대상이 일반고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확대했으며, 모바일 앱 뿐 아니라 웹서비스 아이디어로도 참여할 수 있어 청소년 IT인재를 육성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T아카데미, 스타트업 전진 기지로 진화

SK플래닛의 모바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상 교육 프로그램 T아카데미가 지난 3월 설립 4주년을 맞이해 누적 수료생 6만명을 돌파했다.

T아카데미는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가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모바일 전문 개발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 설립한 프로그램으로, IT 개발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뿐 아니라 기획·디자인 등 앱 상용화에 필요한 과정들을 제공해, 수료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해 왔다.

SK플래닛은 T아카데미를 통해 지난 4년간 모바일 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오고 있으며, 최근 팀 단위의 상용화 협업 프로젝트로 구성된 'T아카데미 전문가 2.0'으로 프로그램을 진화시켜 예비 스타트업 발굴 특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T아카데미는 현재까지 6만여 명의 누적 수료생을 배출해133개의 앱을 상용화 완료 했으며, 과정을 거쳐간 수료생들의 창업 및 취업률은 79.4%에 달한다.

특히, T아카데미 전문가과정 출신 스타트업 기업인 '예스튜디오(대표 최원만)'는 T아카데미 참여 실적과 사업 아이디어 등을 인정받아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로부터 펀딩을 유치했고, '와이디어(대표 강하늘)'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탈로부터 3.8억원의 펀딩 유치에 성공하는 등 SK플래닛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SK플래닛은 전국 스타트업 및 개발자에게 창업 마인드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트라이앵글 토크 콘서트를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7개지역에서 진행, 개발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스타트업 CEO, 벤쳐캐피탈 및 엔젤투자자들의 네트워킹 기회 및 IR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SK플래닛은 앞으로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을 보완·검증한 후 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프로토타입 개발까지 지원하는 '트라이앵글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멘토링을 연계한 특강·세미나를 제공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bay™

이베이코리아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베이코리아는 2012년 12월, 오픈마켓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과 전자상거래 소비자권익의 강화, 그리고 판매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오픈마켓의 공정거래협약'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체결하고, 올 한 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2011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으로, 동 협약 체결을 통해 이베이코리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소비자권익 강화와 판매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 이베이 셀러 CCM 인증 지원

이베이코리아는 오픈마켓이라는 환경이 고객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셀러의 적극적인 CS가 필수적인 반면 대다수의 셀러가 소규모의 업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베이 셀러를 대상으로 CS 체계 환경 개선 및 CS 표준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CCM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7개 기업이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 받아 CCM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옥션과 지마켓 사이트 내 운동기구, 식품, 가구, 완구, 반려동물상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톱 셀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셀러의 CCM 구축 및 인증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총 8억원의 비용을 투입했으며, 각 셀러는 CCM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불만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 CS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진,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및 보상 체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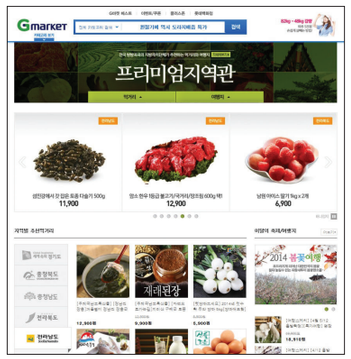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7년 동안 G마켓과 옥션을 통해 전국 12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과 여행상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판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특산물관

G마켓과 옥션의 지역특산물관에는 현재까지 120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이 입점,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642억 원의 거래액이 발생했고, 올해 10월 G마켓 프리미엄 지역관 서비스 리뉴얼을 통해 농림부 인증정보를 보유한 상품들을 지역관 상품에 포함해 지역과 국가가 인증한 안심먹거리 상품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프리미엄 지역관 http://shop.gmarket.co.kr/PremiumLocal/PrLocalMain.aspx

### 지방자치단체와의 MOU 체결

2013년 11월에는 경기도와 농특산물 판매활성화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개의 광역자치단체, 9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또한 월 1~2회 진행되는 'G마켓이 간다', '찾아라 맛있는 내 고향 특산물!' 프로모션의 경우, 각 지역의 숨은 지역 특산물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이 궁금해 했던 생산과정을 직접 취재해 보여준다는 점을 내세운 안심구매 캠페인으로써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 연간 10억원 이상의 거래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MOU 사진

그 밖에도 상품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200~300만명을 선정, 지방자치단체 상품들에 대해 정보를 얻고 구매할 수 있는 메일 마케팅을 매월 진행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브랜드의 상품 및 축제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고객들의 관심과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산 딸기 축제', 옥천군 '옥천 향수 포도 축제', 전라남도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이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 정부부처와의 MOU 체결

이베이코리아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정보화마을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고, 고용노동부와는 사회적기업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쌀 소비 촉진 홍보 및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의 정보화마을 판매활성화 지원

- 전국 361개의 정보화마을의 농특산물 및 여행/체험 컨텐츠 개발 협의
- 600여 여행상품 API 연동 입점 및 정기 프로모션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와 공동캠페인 진행

- 〈파워브랜드대전〉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 프로모션 진행
- 〈지리적표시제 상품 활성화〉 프로모션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 2013년 7월 쌀소비 촉진을 위한 MOU 체결

#### 해양수산부의 자체쇼핑몰 입점을 통한 판매 지원

- 해양수산부 공식쇼핑몰 피쉬세일(Fish Sale) G마켓/옥션 입점 및 판매진행 중
- 2013년 12월 MOU 추진 중

#### 고용노동부와 우수 사회적기업 상생 지원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상품 100여 개의 온라인 입점 및 홍보를 통한 판매채널 확대 진행
- 사회적기업 '타밀'의 아가씨 종이컵의 매출 1억원 달성 성공사례 발굴 (2013년 10월)

### 'e마케팅페어' 개최를 통한 지자체 특산물 온라인 판로 개척

-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 5개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온라인 박람회 진행
- 전국 120개의 도/시/군 홍보관을 개설하고 지역특산물 및 여행상품 홍보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페어**

이베이코리아의 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2009년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페어'가 있다. 2013년 열린 '제5회 G마켓•옥션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페어'에서는 충북•경기•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청송군•부안군•포항시 등 기초자치단체 3곳이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G마켓•옥션 지자체 e마케팅 페어'는 전국 지자체의 먹거리, 우수 농수산물, 여행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최초이자 최대 규모 행사다. 올해는 지난 10월22일부터 총 20일간 진행돼 전국 120여개 지자체, 2만여 개의 우수한 상품을 선보였고, 아울러 이번 행사의 우수지자체 선정투표에는 고객 참여수가 198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종합대상인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상에는 각각 충청북도와 청송군, 경기도와 부안군, 전라북도와 포항시가 선정됐다. 그 밖에 대상에 전라남도 외 5곳이, 최우수상에는 당진시 외 15곳이 수상했으며, 수상 단체에는 총 1억원 상당의 상금이 전달됐다.













## 인터넷 판매의 전문인 양성과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1년 약 118조 규모에서 2012년 1,000조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 창업을 하려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창업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런칭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속한 사업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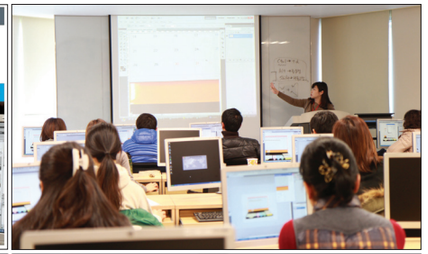
**판매자 교육센터 내 실무중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이베이코리아의 판매자 교육은 창업기초과정, 창업일반과정, 창업실무과정, 전문가특강의 4가지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SNS 마케팅, 블로그/카페 마케팅, 실전판매 활동을 통해 습득한 판매 노하우, 세무/회계,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는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상인의 온라인 창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함에 있어 준비해야 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온라인 창업 A to Z'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G마켓/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2013년 1만4천 여명이 G마켓/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창업교육과정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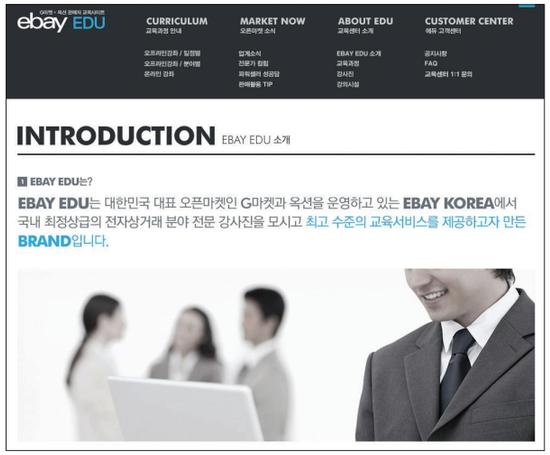







### 통합 온라인 판매자 교육센터 오픈

이베이코리아는 옥션 온라인 교육센터와 G마켓 온라인 교육센터로 운영하던 판매자 교육센터를 통합해, '이베이에듀(www.ebayedu.com)'를 새롭게 오픈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및 판매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실무 중심 온라인 동영상 강좌, 전문가 컬럼, 일대일 전문가 문의, 판매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매활용 TIP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설했으며, 창업자들에게 판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규 기획해 제공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제휴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창업 지원

이베이코리아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출산, 육아 부담 등의 이슈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38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내 15시간 과정의 'G마켓/옥션 창업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여성창업자들에게는 판매활동에 필요한 쿠폰 및 광고성이머니 등을 지원했다. 2013년 약 1,000여 명이 여성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에 참여했다.

### 제주특별 자치도청 온라인 실전창업스쿨 운영

이베이코리아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45시간 과정의 온라인 실전창업스쿨을 서귀포 YWCA, 제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여성창업자들에게는 판매활동에 필요한 쿠폰 및 광고성 이머니 등을 지원했다. 2013년 100여 명이 온라인 창업종합과정에 참여했다.



### 대학생 대상의 맞춤형 무료창업교육지원

이베이코리아는 온라인 창업으로 첫 사회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마케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패션학과' 학생 및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창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창업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돼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전문강사진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무중심의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전문강사진을 통해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려는 중소상인 및 청년, 여성 창업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온라인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

### 판매자들과의 소통공간인 'Together' 운영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2월 G마켓•옥션 판매 및 교육정보와 G마켓•옥션 판매자 회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식 커뮤니티 카페 Togeth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베이코리아가 제공하는 기본 판매 및 교육정보와 판매자 회원이 직접 G마켓•옥션 판매활동 속의 경험하는 다양한 정보 기반의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공유하고 그 내용을 이베이코리아 판매자 서비스나 운영에 반영하는 판매자 참여에 의한 소통 서비스다.




'Together' 서비스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란 가치를 커뮤니티상에서 구현한 것이며, 이를 통해 G마켓•옥션의 다양한 판매활동 정보를 개방하고 여기에 판매자 회원의 경험과 긍정적인 의견이 개진돼 판매자 회원과 이베이코리아가 상생을 통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cafe.naver.com/ebaykoreasellercafe).

## 해외수출지원 프로그램 (Cross Border Trade)

이베이코리아의 CBT는 글로벌 전자 상거래 사이트 이베이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 직접 판매에 도움을 주고, 판매자들 간의 연계를 통해 수출 제품의 수급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중소 상인에게 수출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베이 CBT 서비스에서는 5만개 이상의 상품 카테고리가 지원되고 매초 2,000달러 이상의 상품이 거래되며, 매 순간 1억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 리스트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CBT 판매자들이 손쉽게 글로벌 셀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의 툴로 묶어 지원해주고 있고, 정기 교육을 통해 판매자들은 더 많은 해외 수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성공 비즈니스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 적극 육성

이베이코리아는 기존의 배송서비스등급과 응대서비스등급으로 나뉘어 있던 판매자 등급제도를 고객만족도를 반영한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 제도로 통합, 변경 운영해 고객만족도가 높은 우수 판매자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는 G마켓•옥션의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판매량을 충족한 판매자 중 배송 처리율, 게시판 응답률 등 고객만족도를 고려해 선정되고, 배송 처리율 90% 이상, 게시판 응답률 9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상품 검색 결과 상품 설명 등 고객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에 '고객만족우수' 인증표시를 다양한 형태로 노출하고 상품 검색 시 상단에 위치 할 수 있도록 상품전시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신청자에 한해 매월 최대 4,000명을 추첨해 G마켓•옥션 로고가 새겨진 포장재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 교육 지원

이베이 CBT사업을 하고자 교육에 참여한 개인, 일반인, 대학생,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전체 인원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연간 약 2만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지방으로 확대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이베이 비즈니스 설명회, 초보셀러 필수가이드 등 기본과정부터 주제별 특강에 이르기까지 매월 다양한 주제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을 따르고, 이베이 한국셀러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신고 및 수출신고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베이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대구대, 단국대, 동국대, 건국대, 우송대, 동아대, 경성대 등에서 1~2개월 과정, 특강, 한 학기 강좌 등으로 진행 중이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이베이코리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2010년 12월 3일, 글로벌 e-커머스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및 매분기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베이 CBT사업을 안내했으며, 2013년에도 약 100여 기업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접 판매 및 판매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또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G-FAIR KOREA',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소싱페어',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제조상생협력상품전, 발명진흥회의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전시회에 참여해 이베이코리아 GEP+(Global Export Platform) 지원프로그램을 약 300여 업체에 소개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 수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 전시회 및 여러 기관들과 함께 구매상담회를 추진해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와 상품을 소싱해 이베이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이베이 한국 탑셀러들간 만남의 장을 마련, 업체간 계약 및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CBT구매상담회

### 물류 인프라 지원

이베이코리아는 온라인 수출 상인들의 배송 목적에 최적화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B2B물류 전문기업인 범한판토스와 함께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 초 우체국의 K-Packet 및 범한판토스의 ePantos 상품이 출시됐으며, 두 가지 공히 기존의 소형포장물과 EMS, 그리고 그 외 특송 서비스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이베이 CBT 거래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크게 높지 않은 요금으로 무상 픽업, 온라인 배송 추적, 라벨프린팅, 배송기간 단축 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론칭 후 지속적인 사용 확대를 위해 이베이코리아 자체적으로 배송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미국 이베이 본사 및 USPS 등의 주요 국가 우정국과의 협업을 통해 셀러들이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판토스차량

### 등록비 지원

이베이코리아에서는 기존 이베이 셀러들의 상품 등록 확대 및 미국 외 지역 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이베이 사이트 상품 등록 시 발생하는 등록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제 판매로 이어질 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소 소극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던 셀러들에게 새로운 지역 및 상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격월 정도의 주기로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면 매번 400-500명의 셀러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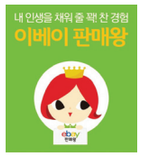
### 이베이판매왕 경진대회

이베이 판매왕 경진대회는 2011년부터 이베이코리아가 신규 판매자들의 창업과 해외 판로 개척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로, 지난 2회 행사에서는 총 32만개 제품이 거래돼 누적 판매금액만 800달러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3회를 맞는 올해 대회에는 600여개 팀이 참여해 총 5억여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20~30대 젊은층이 참가자의 80% 이상을 차지, 학생 비중도 45%에 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베이 판매경험이 있는 선배 판매자들을 대회 참가자들과 짝지어 수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우체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최고상으로 신설했다. 12월 12일에 진행된 수상식에서는 총 18팀의 온라인 수출역군에게 총 30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됐다.













### 중소상인 해외수출 지원 시스템

GEP(Global Export Platform)는 중소상인 해외판매 지원 시스템으로, 국내 판매자의 상품 정보를 해외판매용으로 전환, 이베이에 물건을 등록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GEP를 통하면 판매자의 해외 판매 동의 아래 이베이코리아와 협력사들이 해외 배송이 가능한 상품인지, 해당 국가에 법적 문제가 없는 상품인지 등을 고려한 후 상품 설명 등을 영문으로 번역해 이베이에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베이 물품 등록비용 및 번역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이베이코리아가 지원하고 있고 구매가 이뤄진 후에도 물류 및 배송, 고객 응대에 이르기까지 해외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베이코리아 및 협력사들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 1,500명에 달하는 G마켓 판매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KAKAO

## 카카오







### 동반성장 비젼 및 목표 수립

카카오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바일 소셜 플랫폼을 통해 3년내 수익을 내는 100만 파트너를 육성하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카오는 제3의 개발사 및 중소업자,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카카오톡의 방대한 소셜그래프와 트래픽을 활용해 사용자를 연결시켜주고 다양한 신규 수익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사업초기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이모티콘 저작권자와 공평하게 수익을 배분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카카오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의 게임플랫폼을 통해 성장한 파트너사인 선데이토즈(애니팡)는 2013년 11월 코스닥에 등록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2014년에는 파티게임즈(아이러브커피)가 코스닥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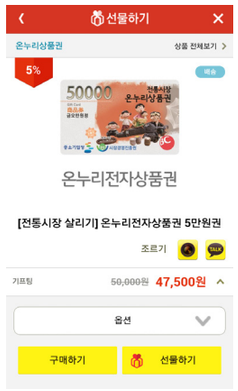
2013년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뮤직 등 새로운 상생 사업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앱개발사, 콘텐츠창작자, 음반사 등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 수익모델 제공 현황

| 구분 | 동반성장 파트너 | 내 용 |
|---|---|---|
| 게임하기 | 게임 개발사 | 모바일 게임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중소 게임사의 성공신화 창출 |
| 카카오스타일 | 중소 패션 소호몰 | 패션 소호몰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모바일 쇼핑 채널 |
| 선물하기 | 모바일쿠폰사 및 제휴사 | 모바일 커머스 분야에 새로운 기회 창출, 활성화에 기여 |
| 이모티콘 | 이모티콘 작가 | 콘텐츠 저작권자와 매출을 분배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 창출 |
| 카카오링크 | 앱 개발사 | 오픈 API로 자신이 개발한 모바일 앱 또는 웹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싶은 링크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접점 확보 및 콘텐츠 노출 극대화 |
| 카카오페이지 | 콘텐츠창작자 | 콘텐츠 창작자가 공정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제공 |
| 카카오뮤직 | 음반사, 기획사, 저작권자 | 친구와 함께 음악을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소셜 기반의 신개념 음악서비스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카카오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C카드, 시장경영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2013년 10월 31일),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 마케팅 등을 협력키로 했다.






## 파트너사와 같이 만드는 모바일 생태계 구축 계획 발표 및 추진

2013년 10월7일 카카오는 모바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트너사와 같이 만드는 모바일 생태계 구축안'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모바일 콘텐츠 기업의 발전 및 건강한 산업 환경을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통한 모바일 상생 생태계 조성**

**카카오 상생센터 설립**
- 5년간 100억원 투자
- 투자(VC) 및 퍼블리싱 알선
- UI/UX 제작 지원
- 테스트 환경 지원
- 정기 교육 및 소통 채널 제공

**시스템무상지원 확대**
- 랭킹시스템 서버 및 N/W 지원
- 100여개 업체,
  연간 약 10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존 대비 250% 확대)

**핵심 개발환경 공개 및 무심사입점 확대**
- 카카오 SDK 일반 공개
- 무심사 입점 확대

**(카카오 상생센터 설립)** 먼저, 카카오는 향후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카카오 상생센터(가칭)'를 설립하고, 모바일 게임, 콘텐츠, 커머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로 중소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에 대한 '투자 및 퍼블리싱 사업자 알선'과 '콘텐츠 제작 지원', '테스트 환경 제공', '정기 교육 및 소통 채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시스템 무상지원 확대)** 카카오 상생센터와 별도로 카카오게임 개발에 필요한 일부 시스템의 '서버 및 네트워크 무상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100여 개의 파트너사가 연간 최대 1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핵심 개발환경 공개 및 무심사 입점 확대)** 기존 파트너사들에게만 제공됐던 '카카오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모든 개발사와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1인 개발자를 비롯한 누구라도 카카오게임을 개발 및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핵심 개발환경 공개를 통한 정보격차 최소화에 앞장서고, 문화부 주최의 공모전에 입상한 게임의 경우 무심사 입점 기회를 별도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화부-미래부-카카오, 모바일콘텐츠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와 '모바일콘텐츠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소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 모바일 콘텐츠 기업 대상 정기교육'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지원 정책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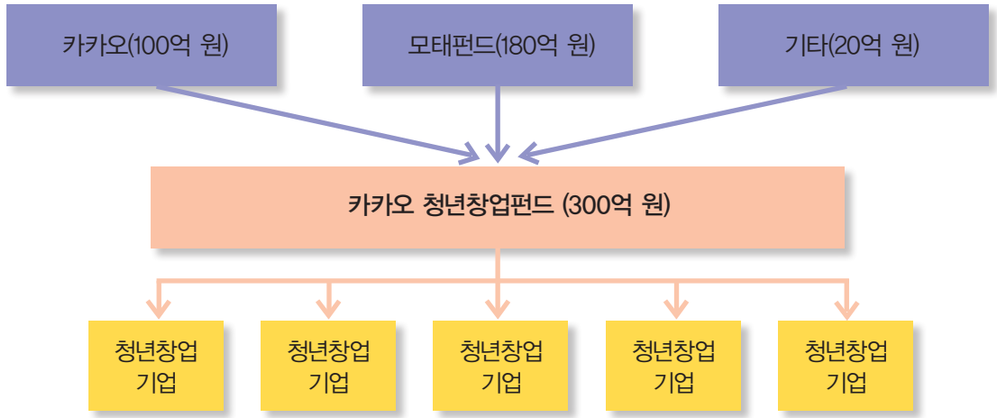



### '카카오 청년창업펀드 조성' 조성

청년창업으로 성공한 카카오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후배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4월 25일 '카카오 청년창업펀드' 출자 약정식을 개최했다.




총 300억원 규모의 카카오 청년창업펀드는 성공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민·관 공동펀드'로 투자만 하던 기존 펀드와 달리 선배기업이 출자자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자는 물론 성공창업 경험과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 등 차세대 IT산업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며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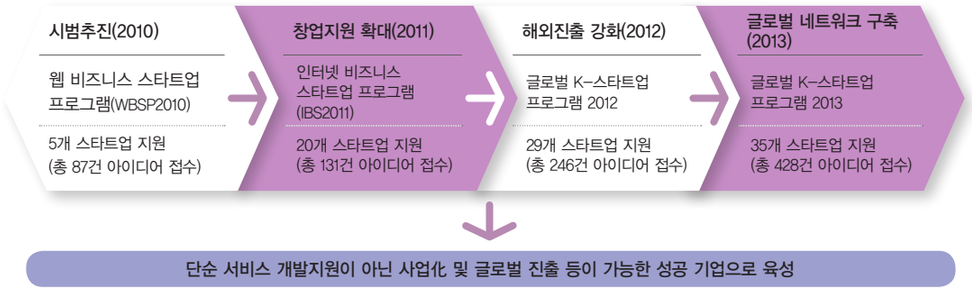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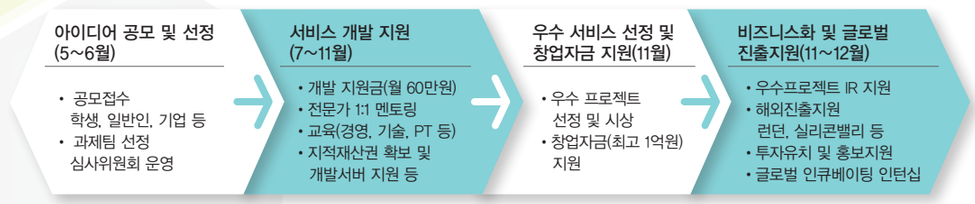


##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3(Global K-Startup Program 2013)

미래 성장을 견인할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중심축인 벤처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성장 정체기에 있는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고 이용자, 개발자 및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신규 인터넷 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化 지원과 오픈플랫폼 활용교육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상금을 수여하는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어를 선발해 전문가 멘토링, 기술·비즈니스 교육, 지식 및 경험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우수 서비스에게는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과 함께 런던, 실리콘밸리 등 해외 현지에서 서비스IR과 벤처캐피탈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스타트업 발굴·지원 프로그램이다.



구글코리아와 2년 연속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선순환적 인터넷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인터넷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및 국내 포털사·이통사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상생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 있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혁신적인 신규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5월부터 약 3주간 공모·접수를 진행해 총 428건을 접수했으며, 산·학·연 및 VC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심사단의 서류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35개 지원팀을 선발했다. 7월 D.CAMP에서 각 팀의 대표와 팀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다짐하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전문가 멘토와 국내의 다양한 인큐베이팅 기관 관계자 뿐 아니라, 전년도 우수 서비스로 선발됐던 말랑스튜디오의 김영호 대표를 비롯한 졸업 스타트업들이 참석해 올해 선발된 스타트업들을 응원하였다.






35개 선발팀에게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월 60만원)과 함께 스타트업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우수 기업가와 기술가들로부터 일대일 멘토링, 창업 및 경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전문교육, 특허·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확보, 내·외부 스타트업 및 분야별 전문가와 정보 및 인적교류 기회 등을 제공해 우수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스타트업 전문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이벤트

10월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2차에 걸쳐 인터뷰심사를 진행하여 그간의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현신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중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비스 10개를 선발하였고, 최대 1억원(총 2억8천만원 규모)의 창업지원금을 시상하여 우수한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상 훈 | 수상팀 | 서비스명 | 부상 |
|---|---|---|---|
| 대 상<br>(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크로키 | 비스킷 | 창업지원금 1억원 |
| 최우수상<br>(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 레진 엔터테인먼트 | 레진코믹스 | 창업지원금 각 4천만원 |
| | 엔씽 | 플랜티 | |
| 우 수 상<br>(구글상) | 스투비플래너 | 스투비플래너 | 창업지원금 각 2천만원 |
| | 내로우캐스트 | 비모트 동영상광고플랫폼 | |
| | 올드베스트 | 올드베스트 | |
| 장 려 상<br>(주한영국대사상) | 아이엠랩 | 심폐소생 시뮬레이터 | 창업지원금 각 1천만원 |
| | 지스트 | 지스트 | |
| | 위플래닛 | 스텝저널 | |
| | 런치버스 | 런치버스 | |

※해외진출 지원상(5개) 크로키, 레진엔터테인먼트, 엔씽, 스투비플래너, 아이엠랩

그 외에도 미국, 영국에서 활동하는 VC 등으로 구성된 해외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5개 서비스를 선발해 런던·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서비스 IR과 VC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

선발된 5개팀은 실리콘밸리의 VC 등 전문가의 지도 아래 투자자 대상 사업계획서와 피칭 기술, 실리콘밸리의 투자환경 및 네트워킹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후 11월3일부터 17일까지(2주간)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런던,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총 13회에 걸친 서비스 IR 기회를 가졌으며, 현지 스타트업과의 피칭 배틀이나 투자사, IT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미팅을 통해 투자 및 서비스 제휴제안을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가질 수 있었다.



멘토링




서비스IR



네트워킹

또한, 우수한 서비스의 장기적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9월에는 인터넷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상담회 'beGLOBAL'을 개최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미국 현지의 서비스와 제휴하거나 투자자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10월 美 실리콘밸리 유명 엑셀러레이터인 'Plug & Play Techcenter와 공동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해 3개월간 실리콘밸리 현지에 직접 거점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 및 코칭, 투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IR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도 했다.



인터넷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상담회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인턴쉽 프로그램

이 같은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3의 지원을 통해 총 20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졌고, 총 25개의 신규 서비스가 상용화되었다. 또한 6개 팀이 총 15억6천만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재도 투자 및 제휴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원팀의 창업, 상용화 및 투자유치 현황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합 계 |
|---|---|---|---|---|---|
| 지원팀 | 5 | 20 | 29 | 35 | 89 |
| 창 업 | 2 | 9 | 23 | 22 | 56 |
| 상용화 | 2 | 6 | 18 | 14 | 40 |
| 투자유치(억원) | – | – | 68 | 15.9 | 83.9 |

이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3년째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NHN, 다음, SK컴즈, 이베이코리아 등)과 함께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창출에 따른 서비스 개발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개발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픈플랫폼(OpenAPI 등)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청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약 519명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대 오픈플랫폼 활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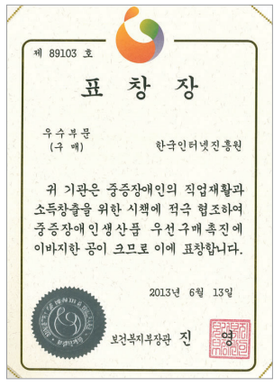
경북대 오픈플랫폼 활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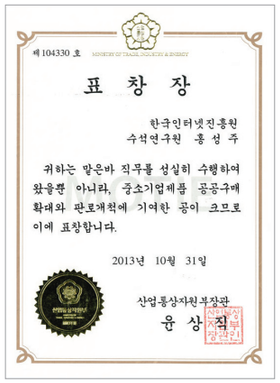
## 2013년 동반성장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과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KISA'를 모토로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내실 있는 동반성장 추진을 통해 2013년 동반성장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국정과제, 기관 비전 및 경영목표와 연계한 2013년 동반성장 4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전사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지속발전의 상생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인터넷·정보보호·방송통신 등 기관 주요사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산업통산자원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및 개인포상을 수상키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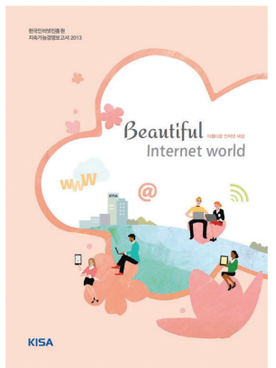




※ 2013년 동반성장 4대 추진과제 : ①ICT 신산업 창업 및 신생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②국내 정보보호기업 경쟁력 강화 ③정보보호 · 방송통신 분야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 ④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공정거래 관리 강화



## 2013 지속가능경영 '우수상' 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선도적 실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확대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기관의 가치를 제고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국제대회 금상 수상에 이어 2013년 국내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지속가능보고서

## 불공정거래 해소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제한경쟁으로 제품구매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계약의 선금 지급을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SW 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SW 관련 사업 발주 시 하도급 사전승인을 의무하 하고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제를 도입·운영해 부당한 거래를 개선하고 있다.

##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백신보급

전문성 부족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개인정보보 보호조치 수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웹 취약점 점검, 자가진단 도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준수 지원을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의 바이러스 백신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 사회공헌 Socially Responsible

네오위즈게임즈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CJE&M 넷마블
얼라이언스인터넷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카카오
티켓몬스터
한국인터넷진흥원





NEOWIZ GAMES

# 네오위즈게임즈



##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 사회공헌 활동

### 청소년 게임 직업 체험 프로그램 '커리어퀘스트'

2013년 여름, 4회를 진행한 '커리어퀘스트'는 게임 직업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총 2차로 나뉘어 1박 2일간 활동하며 특히, 올해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해당 기관에서 선정한 근로자들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청을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이틀에 걸쳐 게임회사를 설립하고, 게임 기획을 실행하는 등 다양한 게임 직업 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본인들의 기획물을 가지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발자 및 인사 등 멘토들의 강연 및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미래 게임 인재로서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청소년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업

올해 3회째를 맞은 '청소년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게 된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선발된 전문계고, 특성화고, 실업계고, 특목고, 대안학교, 학교간 연합동아리 등 23개 고등학교 10개 동아리가 참여, 활동비를 지원받아 '청소년 진로 탐색', '학교폭력 예방 연극', '장애인 인식개선', '재활용 업싸이클링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셜벤처 탐방,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 등 동아리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활동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소셜벤처 캠프에서는 발표대회를 갖고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동아리들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됐으며, 시상식 외에도 동아리부스 전시회, 나눔제(UCC, 수기 발표회), 초청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소셜벤처탐험 출범식



소셜벤처탐험 시상식



소셜벤처탐험 축하공연



소셜벤처탐험 포스터

### 찾아가는 음악창작활동, '소리배낭여행'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소리배낭여행'은 음악에 관심 있는 전국의 중학생들이 일상의 소리로 노래를 만들어가는 음악창작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게 일상 소리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음악을 직접 만들어 가는 창작 경험을 통해 협동심을 길러 준다. 네오위즈인터넷이 서비스 하는 음악포털 벅스가 함께해 학생들이 노래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충청도 지역의 2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1기는 충남 보령에 위치한 '미산중학교'와 충북 제천의 '제천동중학교' 학생들이 각각 1박2일간 하루 8시간씩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교, 놀이터 등 주변에서 채집한 소리를 녹음해 리듬을 만들고 직접 멜로디와 가사를 붙여 노래를 제작했다.

'소리배낭여행' 시즌5까지 만들어진 45곡의 음원은 벅스를 통해 디지털 앨범으로 발매됐으며 시즌6 역시 완성된 노래를 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들을 수 있다.


벨소리 만들기


소리채집

소리배낭여행 시즌6





소리배낭여행 녹음

### 기부서비스 플랫폼 '마법나무' 운영

네오위즈게임즈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하기 위해 게임포털 피망(www.pmang.com)에 기부서비스 마법나무(http://magictree.pmang.com)를 2012년 7월 오픈 후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마법나무는 피망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 모인 금액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온라인 사회공헌 서비스로, 피망 회원들이 피망캐쉬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오픈 이후 지체장애 핸드사이클 선수, 어린이 합창단 희망스폰서,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곳에 피망회원들과 함께 도움을 전하고 있다.

### 직원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오색오감(五色五感)'

'오색오감'은 2008년 처음 시작돼 매년 진행되고 있는 기업 대표 자원활동으로, 다섯 종류의 각기 다른 봉사 활동에 다섯 가지 감동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네오위즈홀딩스를 비롯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인터넷, 네오위즈CRS 등 전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네오위즈 및 계열사는 매년 송년회를 대신해 전 계열사 직원들이 모여 주위의 소외 계층을 돌보는 '오색오감'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한다.


오색오감 사랑의 연탄배달


오색오감 온정의 컴퓨터 선물

### 2013년 활동

10번째를 맞는 이번 '오색오감'은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약 4주간 12회차에 걸쳐, 약 40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이번 시즌은 ▲해외 입양 예정 신생아를 돌보는 입양아기 돌보기 ▲심한 일교차로 인해 고통 받는 아프리카 신생아들을 위한 '신생아 모자뜨기' ▲지역아동센터에 PC를 기부하고 설치하는 '온정의 컴퓨터 선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선물하는 '함께하는 연말 파티' ▲오색오감의 대표 활동 '사랑의 연탄 배달'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아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지역아동센터에 꼭 필요한 물품 중 하나인 PC설치를 비롯, 방학이 되어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등 함께 어울려 놀며 추억을 쌓는 시간 등이 새롭게 마련되기도 했다.


오색오감 '입양아기 돌보기'



오색오감 포스터

# NAVER

## 네이버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네이버의 한 걸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는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식을 키우고 나누는 서비스와 플랫폼을 선보이며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왔다. 네이버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상상력, 꿈, 문화와 예술 그리고 양질의 지식이 보다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접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3년 한 해에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알리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환경을 구축할 뿐 아니라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많이 있다. 그러기에 네이버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閣



네이버 라이브러리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카페



아름다운 한글 간판 나눔 – 한글.함께


네이버 웹접근성 체험공간


헬로! 아티스트


라인 Pray for the Philippines

##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기회 확장

■ **2013 네이버 한글한글 아름답게** http://hangeul.naver.com/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립니다.**

### ❖ 네이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글과 걸어온 길

네이버는 온라인 세상에서 한글로 된 생각과 정보가 더욱 많아지고,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한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한글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나눔글꼴' 배포부터, 2009년에는 약 3만 3천여명이 참여한 손글씨 공모전으로 나눔손글씨를, 2011년에는 잉크를 절약할 수 있는 나눔글꼴에코를 배포했다. 2012년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자 우리 시 공모전을 진행, 약 3만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사람들과 한글을 나누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네이버—
# 한글과 걸다
# ——2013-2008

### ❖ 생활의 중심이 된 모바일, 작은 화면에서 더 또렷한 한글을 위한 연구

우리 생활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한글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글꼴을 연구, 2013년 한글캠페인을 통해 나눔바른고딕을 배포했다. 나눔바둑고딕은 기존 네이버가 배포한 다른 글꼴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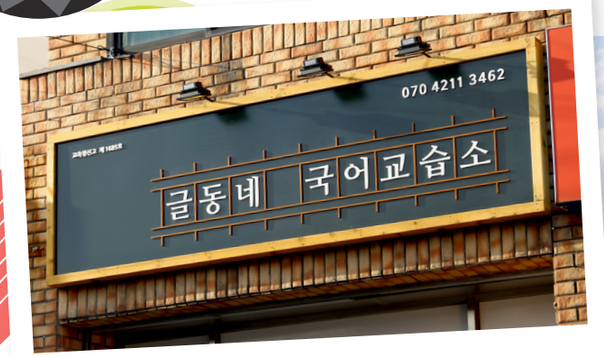

네이버 나눔글꼴의 지적 재산권은 네이버에 있다.
나눔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 할 수 있다.

### ❖ 아름다운 한글 간판 나눔 – 한글, 함께

네이버는 2013년 한글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한글의 가치를 나누고, 거리에 우리 한글이 더 잘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창업점포, 영세가게들을 대상으로 한글 간판 나눔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신청한 1013개의 상점 중 20개를 선정, 서울부터 제주까지 아름다운 한글 간판을 제작한 바 있다. 앞으로도 네이버는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통해 한글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한글을 나눌 예정이다.

"한글 글씨인데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예쁘더라구요"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예쁘고, 애들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줬어요"















■ **헬로! 아티스트**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발견하는 기쁨**

http://navercast.naver.com/list.nhn?cid=220&category_id=220

❖ **열정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네이버 문화재단의 프로젝트**

네이버 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가능성 있고 열정적인 시각예술분야의 작가들을 지원하는 헬로!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헬로! 아티스트를 통해 본인을 알리고 싶은 작가들의 신청을 받고, 미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소개할 작가를 정하며, 2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한다.

❖ **새로운 문화의 주역, 젊은 작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살아있는 작품 이야기**

"'헬로! 아티스트'에 작품이 소개된 시기에 개인전을 열었는데 '헬로! 아티스트'에서 정보를 접하고 개인전에 찾아온 관람객도 있었어요. 그 동안 열었던 개인전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죠"

– 서고운 작가



불안의 에너지를 그리는 작가, 서고운

작가들은 헬로! 아티스트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동영상 인터뷰, 글,사진 등과 함께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콘텐츠를 웹과 모바일로 접하는 사람들은 비평가나 평론가에 의한 어렵고 무거운 작품 해석이 아닌 작가 본연의 생각과 작품 의도를 그대로 만날 수 있다. 헬로 아티스트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9명의 작가를 소개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대중들이 더 많은 작가들과 만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작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봉틀의 '틀'을 깬, 정민기 작가


삶의 이면을 조각하는, 안경진 작가


히스테리를 콜라주하는, 염지히 작가

## 나눔을 일상으로 바꾸는 기부 플랫폼

■ **네이버 라인 Pray for the Philippines**
**필리핀을 위한 세계인의 기도**

❖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통한 전세계 유저들의 기부 참여**

글로벌 메신저 라인은, 지난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라인이 가진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 전세계 유저들이 필리핀 구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라인은 기부 스티커 세트 'Pray for the Philippines'를 출시, 필리핀에는 이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 나라에서는 0.99달러로 판매,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스티커 판매 매출액 전부를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복구 사업 지원금으로 필리핀 적십자사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약 한달 반 동안 진행돼 앱 수수료를 제외하고 JPY 58,773,190(약 6억원)이 모였다. 모리카와 아키라 라인주식회사 대표는 1월 15일 일본의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금액이 모인 것은 그만큼 필리핀 이재민 구호에 글로벌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앱으로 성장하고 있는 라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메신저 서비스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사회공헌적 기능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Pray for the Philippines 스티커 세트



일본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는 모리카와 아키라 라인 대표

### ■ 해피빈 기획 이슈 캠페인

**공익 이슈를 새롭게 바라보다**

http://happybean.naver.com/issueclub/Home.nhn

#### ❖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다

해피빈의 '기획 이슈 캠페인'은 블로거, 배우, 웹툰 작가, 영화사,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공익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는 캠페인이다. 참여형 공익 콘텐츠의 개발 및 이를 통한 공익 이슈의 환기를 목표로 시작된 '기획 이슈 캠페인'은 3월 지구촌 불끄기 어스아워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의 가까운 난민,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야만 하는 쪽방촌, 명절의 불편한 진실, 여성에 관해 가지고 있던 일상적 편견 등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변의 사안들을 여러 시각에서 조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은 글, 그림, 영상, 기부 이벤트 제안 등 다양한 재능 나눔을 통해 참여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피빈 기획 이슈 캠페인은 다양한 공익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만 달려가는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 ❖ 세상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나눔 커뮤니티'를 향해

이슈를 제기하고, 아는 데서 멈춘다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런 까닭에 해피빈은 이슈와 해피빈 기부 클럽과의 연계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기존에 혼자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부하고 참여한다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나눔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오늘도 해피빈은 생동감 넘치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향한 해피에너지, 나는 너를 사랑해




여름을 향한 해피에너지,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성을 향한 해피에너지, 변화를 만드는 솔직한 이야기



한가위를 향한 해피에너지,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지구를 향한 해피에너지, 나의 Earth Hour




난민을 향한 해피에너지, 돌이킬 수 없는 걸음

■ **네이버 행복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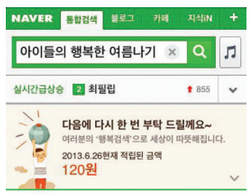
**검색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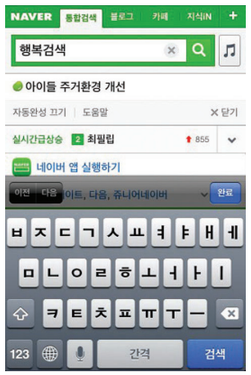
http://happybean.naver.com/issueclub/Home.nhn

### ❖ 공익적 단어를 검색만 해도 기부가 된다?

검색한 것만으로도 뿌듯해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검색은 없을까요? 네이버 행복검색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된, 검색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익 서비스다. '행복검색'은 검색창에 '행복검색' 또는 '독거노인 지원' 등의 공익적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횟수에 따라 기금이 적립되어 기부가 되는, 검색과 기부를 연결한 최초의 시도다. 회당 1억원의 모금을 목표로 2회에 걸쳐 진행됐고, 200만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참여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매 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해피빈 나눔캠페인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73개 단체에 지원됐다. 네이버 행복검색은 1초의 검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는 새로운 기부의 지표를 열고자 했으며 검색 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







## 장애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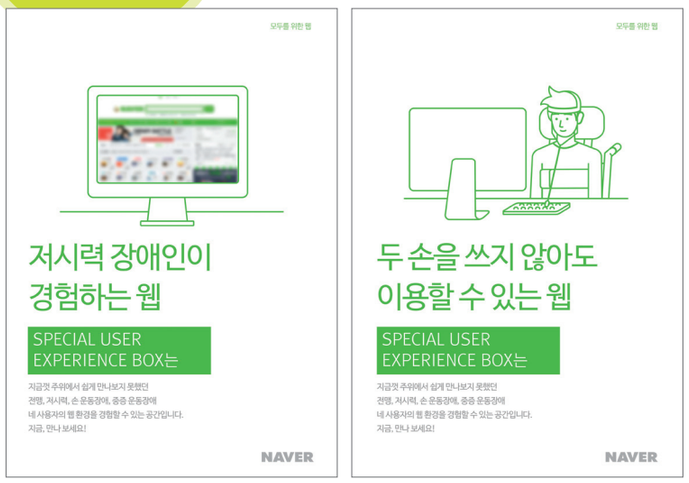
■ **네이버 웹 접근성 체험공간**

**장벽 없는 웹 세상으로 한걸음 더!**

### ❖ 웹 접근성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노력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웹 서핑을 해보셨나요? 평소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쉽고 간단하게 했던 작업조차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웹을 이용해 보자. 어디에 무슨 버튼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속해 이용한다는 웹이지만,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다. 이러한 문턱을 낮춰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웹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이다. 네이버는 '웹 접근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전체 네이버 서비스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웹 접근성 정보 공유 사이트인 '널리(nuli.navercorp.com)'를 운영하고, 네이버의 웹 접근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웹 접근성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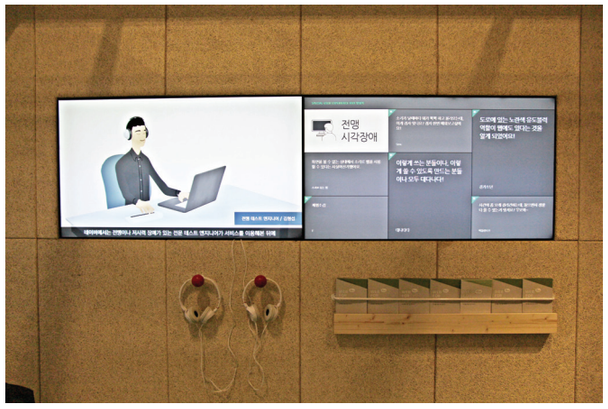
### ❖ 다양한 웹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오픈

네이버는 사옥인 그린팩토리 2층에 '네이버 웹 접근성 체험공간(Special User Experience Box)'을 오픈했다. '네이버 웹 접근성 체험공간'은 시력 및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네이버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웹 접근성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처럼 '들리는 웹'을 체험할 수 있고, 저시력 장애인들의 눈에 보이는 웹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마우스나 키보드 대신 운동장애인들이 쓰는 보조기구 및 소프트웨어도 이용해 볼 수 있으며, 네이버 직원뿐 아니라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차별 없는 온라인 세상, Web For Every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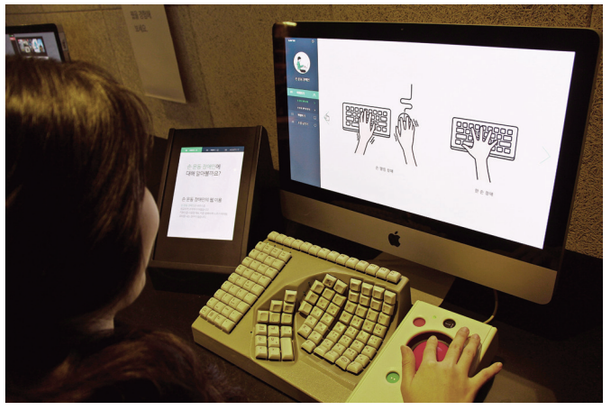
월드와이드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 요소"라고 했다. 웹의 힘, 즉 보편성을 위한 노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양한 환경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네이버 웹 접근성 체험공간'은 수많은 인터넷 이용환경 중 전맹, 저시력, 손 운동장애, 중증 운동장애 이상 4가지 장애 환경 일부를 제한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체험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웹 접근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 웹 접근성 기술이 발전하길 기대한다.









### ■ 오래오래 재미있게 함께 일하는 공간

**더딜지라도 함께 성장하는 세상**

#### ❖ 발달 장애인이 만드는 커피 한잔, 할머니 할아버지 사서가 있는 도서관

네이버 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카페를 만들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카페는 발달 장애인의 일터를 만드는 '베어베터(Bear. Better)'와 함께 지적장애나 자폐가 있는 청년들이 보조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카페보다는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오래오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카페로 만들고 있다.

네이버는 카페 공간을 만들고 판매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해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매출은 전액 바리스타들의 일자리에 쓰이고 수익은 100% 성남시 재활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다.

느리고 서툴지만 집중력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추후 책을 정리하는 업무 등, 더 많은 발달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도서관은 2010년부터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하기 위해 '실버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사서 보조 업무를 성남시 고령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현재까지 1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꼼꼼하고 따뜻한 태도로 도서관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있다.









##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공간

### ■ NAVER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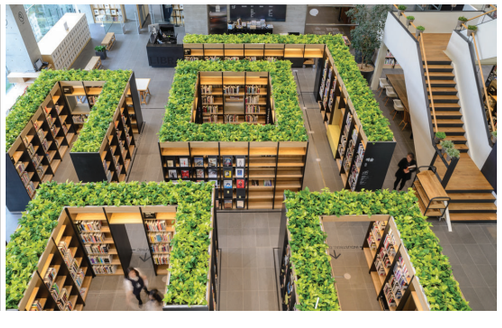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간 http://library.navercorp.com**

#### ❖ 네이버를 닮은 열린 도서관, 네이버 라이브러리

네이버는 2010년 사옥 1,2층에 IT,디자인 전문 도서관 LIBRARY1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지난 3년간 네이버의 직원들과 IT와 디자인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평균 200여명의 지역민들이 방문하는 도서관으로 자리잡았다. 2013년 직원 및 IT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과, 지역민들에게 더 사랑 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리뉴얼을 진행, NHN에서 NAVER로 사명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NAVER LIBRARY로 문을 열었다. 새로운 NAVER LIBRARY는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IT와 디자인 관련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 정보, 콘텐츠가 있는 다양한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다.







### ❖ 개발자, 디자이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장서로의 변화

기존 디자인과 IT 서적은 희소가치가 있는 책을 관련 직군의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열어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의 장서들이 모두 갖춰질 수 있도록 배려해, 국내외 양질의 매거진과 백과사전을 추가로 비치했다. 모든 장서들은 서점 등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지지 않지만 의미 있는 장서에서 비용이나 구매 과정이 부담스러운 것들까지 최대한 희소가치가 있는 장서들을 비치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매거진** 250여종
**디자인 서적** 1만 7천여 권
**백과사전** 1천 3백여 권
**IT서적** 7천여 권

##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

### ■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http://datacenter.nhncorp.com

**저전력과 고효율, 최고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 ❖ 서버가 내뿜는 열과의 싸움, 데이터센터

데이터 센터는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이버와 라인 서비스에서 오가고 기록되는 데이터를 서버에 보관하는 공간이다. 이른바 온라인 서비스의 숨겨진 심장이라 불린다.

서버는 24시간 365일 단 0.1초도 멈추지 않고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발산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는 뜨거워진 서버실의 온도를 내리기 위한 열과의 싸움을 발이고 있다.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데이터센터가 로키 산맥과 같이 해발고도가 높은(온도가 낮은) 곳에 자리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10년 여간의 전국의 온도 추이를 연구해 연 평균 기온이 낮은 춘천 구봉산 자락에 데이터 센터를 위치 시켰고, 시원한 바람이 건물로 잘 들어오도록 계단식 지형을 그대로 살려 건축했다.



### ❖ 건물의 설계, 건축, 운영까지 전반에 걸친 친환경적인 노력

최대 50도까지 올라가는 서버실은 불가피하게 전력을 사용해서 낮춰야 하지만 사용되는 전력을 최소한으로 쓰도록, 고열에 잘 견디는 네이버 서버를 자체 제작했고 서버를 꽂는 랙(rack) 또한 고집적화해 공간 효율을 높였다. 저렴한 심야 전력으로 밤 사이에 얼음을 얼리고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한 낮에 사용하고, 서버를 식히고 뜨거워진 공기, 즉 폐열은

데이터 센터 내에 조성된 온실의 식물을 재배하거나 한 겨울에는 주변 도로의 눈을 녹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주 작게는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전문 인력들이 손 씻은 물을 버리지 않고 화장실에 사용하고 있으며 빗물을 모아 냉각수나 소방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는 세덤이라는 식물을 심어 실내 온도가 더워지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완화하고, 센터 내에서는 전기차로 이동하도록 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LED 전등으로 전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구에 해를 덜 끼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구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친환경에 대한 노력을 인정 받아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하는 세계적인 기준인 LEED로부터 데이터센터로는 세계 최고 점수인 95점을 받아 Platinum 을 획득한 바 있다.

(LEED – NC Platinum V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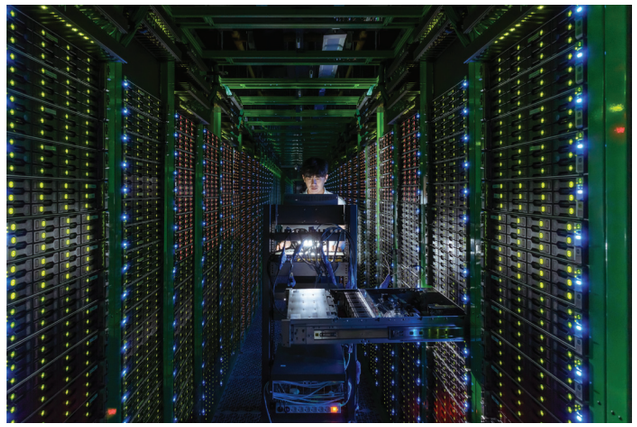







**❖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기록하는 일**

데이터 센터 각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에서 '각'을 따와 이름 지어진 것으로 수천 만명의 사람들이 남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후대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이 기록은 10년 20년이 아니라 몇 백 년 이 지났을 때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오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고 환경의 도움을 받을 때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비용적인 절감도 얻고 지구에도 좋은, 결국 지구와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다음커뮤니케이션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변화를 희망해

## 多音(다양한 소리)의 소통을 통해 다음(Next)세대에 '희망'을 주는 Daum(인터넷)




### 사회공헌 연혁

2013. 12 제 10호 미얀마 지구촌 희망학교 협약식
2013. 12 지구촌희망학교 건립기금 모금 – 2013 설레는 바자회
2013. 11 〈다음세대재단〉 2013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On
2013. 10 비영리단체 IT 교육프로그램 IT ProBono @Daum 11기
2013. 09 제 8호 타지키스탄 지구촌 희망학교 설레는 휴가
2013. 09 제주 비영리 IT컨퍼런스 ChangeON @SUM
2013. 06 지구를 위한 다음인의 설레는 행동 – NO PAPER CUP DAY
2013. 02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단체지원 확대
2013. 02 희망해 모바일웹 오픈
2012. 10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다음 희망해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2. 05 제주 올레 모바일앱 제작,기부
2012. 04 제주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홈커밍데이
2011. 09 비영리단체 IT 교육프로그램 IT ProBono @Daum
2011. 04 제주 창의 IT교육 업무협약
2011. 04 'Daum희망해' 오픈 (온라인 모금서비스 개편)
2008. 11 제주 올레 웹사이트 제작 후원
2008. 03 제주공동모금회와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MOU 체결
2007. 12 온라인 모금서비스 '희망모금' 오픈
2006. 12 제1호 캄보디아 지구촌희망학교 완공
2005. 12 사회공헌팀 조직, 연말캠페인을 시작으로 온라인 공익캠페인 전개
2001. 09 인터넷 기업 최초 〈다음세대재단〉 설립

### ❖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변화를 '희망해'

**네티즌의,** Daum 희망해는 네티즌(비영리단체, 기업 포함)이라면 누구나 모금이슈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네티즌 모두의 온라인 모금 서비스다.

**네티즌에 의한,** Daum 희망해는 네티즌에 의해 모금이 제안되고, 네티즌에 의해 서명이 진행되며, 네티즌에 의해 모금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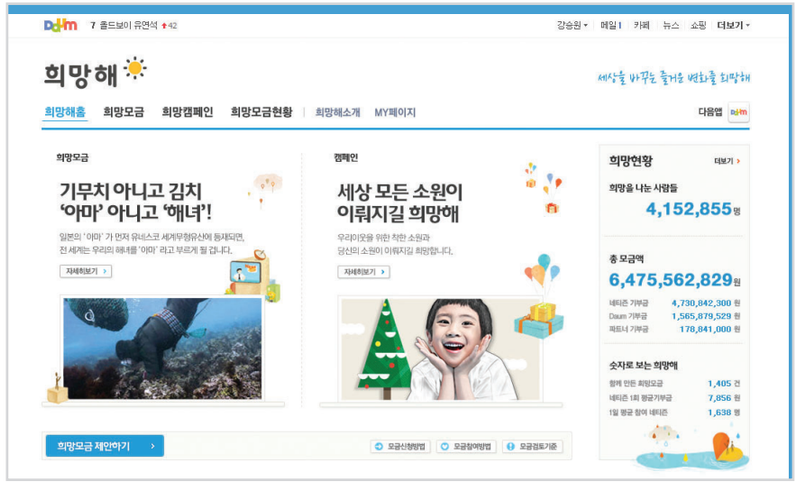
**네티즌을 위한,** Daum 희망해는 수혜자에게는 기부금 후원을, 기부자에게는 신뢰감 있는 모금후기 전달을 통해 모두가 다같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나눔의 기쁨을 선사한다.

**그리고 Daum이 함께 합니다.** Daum은 댓글, SNS 등을 통해 모금이슈가 확산될 때마다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 수천만 네티즌이 함께하는 인터넷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네티즌에 의한 모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함께 후원할 계획이다.




2013년 2월 희망해 모바일 웹 서비스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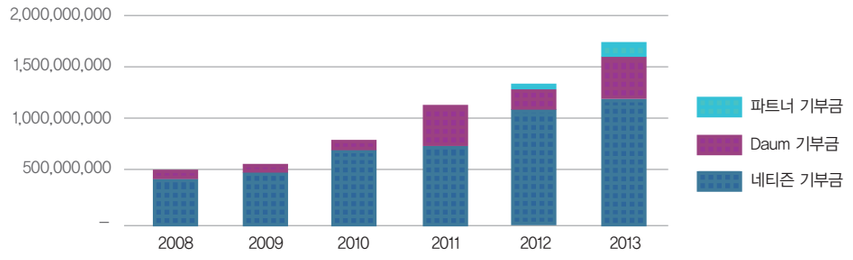
m.hope.daum.net




### ❖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희망을 만드는 방법.
### 바로, Daum희망해 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아고라 청원에서 시작된 희망해가 6년 만에 총 모금액 64억원을 훌쩍 넘겼다. 참여한 네티즌의 수는 누적으로 415만명! 그동안 네티즌이 발의하고 참여한 모금은 1,400개이며, 네티즌은 1회 평균 7,821원이라는 인터넷상에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기부했다. 모금당 평균 450만원 이상의 금액이 희망을 만드는 곳에 전달됐다.

전체모금의 28%가 넘는 모금이 목표금액을 조기에 달성 했고, 모금당 평균 1,523명이 넘는 네티즌이 댓글 등을 통해 이슈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약 1,550명의 네티즌이 숫자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http://hope.daum.net/stats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네티즌 기부금 | 423,491,707 | 468,206,609 | 684,217,775 | 737,949,197 | 1,089,549,693 | 1,167,546,742 |
| Daum 기부금 | 3,246,780 | 2,141,947 | 104,405,518 | 381,563,041 | 178,555,950 | 421,944,042 |
| 파트너 기부금 | | | | | 36,623,000 | 143,179,000 |
| 기부금 계 | 506,738,487 | 560,348,556 | 788,623,293 | 1,119,512,238 | 1,304,728,643 | 1,732,669,784 |

## 2013 희망해 주요 모금

**희망해의 모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3년에도 희망해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모금이 진행됐다.**

###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폐쇄를 막아주세요

상하이 폭탄 의거로 꺼져가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린 매헌 윤봉길 의사.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재정난으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의 청원으로 9월11일 모금이 시작됐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잘 보존되어 후대에 전해지길 바라는 8,225명 네티즌들의 마음이 모여 단 하루 만에 10,047,372원의 모금액이 달성됐다.




hope.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08264

### ❖ 이승기 팬카페의 나눔 활동

이승기 공식 팬카페 '아이렌'에서는 이승기 씨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특별한 날,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승기 씨의 데뷔 기념일에는 중증 장애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목욕의자 후원 모금을, 생일을 맞이해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 모금을 진행했다. 건강한 팬문화를 형성하며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모습, 진짜 아름다움이 아닐까?




hope.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077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한 모금 청원자의 감사 글 -

### ❖ 필리핀의 눈물이 멈추길 희망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했다. 1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도시 전체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무너졌다. 희망해에서는 필리핀 태풍 피해를 위한 긴급구호를 진행했고, 8개 구호 기관과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캄캄하기만 했던 그 곳에, 작은 촛불 하나를 건넨 소중한 나눔이었다.




hope.daum.net/campaign/typhoon2013.daum

**2013년 분야별 주요 모금**

[어 린 이] 항암치료에도 씩씩한 지수에게 따듯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참여인원 4,882명 모금액 13,672,798원 모금기간 6월18일~7월16일

[우리이웃] 지하방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세 자매를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6,253명 모금액 20,000,100원 모금기간 2월18일~2월26일

[공익/사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희망과 용기를
참여인원 2,730명 모금액 5,000,004원 모금기간 11월14일~12월1일

[환 경] 핵사고 피해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해요
참여인원 1,412명 모금액 3,588,231원 모금기간 6월5일~7월5일

[동 물] 포천 보호소의 이전이 시급해졌습니다. (동물보호소 이전을 위한 모금)
참여인원 5,885명 모금액 14,556,381원 모금기간 8월3일~8월29일

[지구촌나눔] 생명이 꺼져가는 타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참여인원 7,497명 모금액 16,674,412원 모금기간 1월21일~2월23일

## 나눔기업과 희망해

**■ 나눔을 실천하기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희망해가 나눔의 통로가 되었다.**

나눔기업과 희망해 캠페인은 기업의 사회공헌 및 공공캠페인의 요구 증가에 따라 Daum에서 마련한 기부플랫폼이다.

희망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고, 온라인 공익캠페인을 강화하며, 더욱 많은 네티즌이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티즌이 참여하면 희망기업과 Daum이 기부금을 내는 클릭후원으로 캠페인이 진행된다.




## 스타와 희망해

**명실공히 스타 대표 모금으로 자리잡은 스타와 희망해! 단순히 나눔을 이야기하는 스타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스타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 영향력을 나눔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스타들이 있다. 스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 하나가 네티즌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망을 만들어낸다.

### ❖ 2013년 희망해와 함께한 스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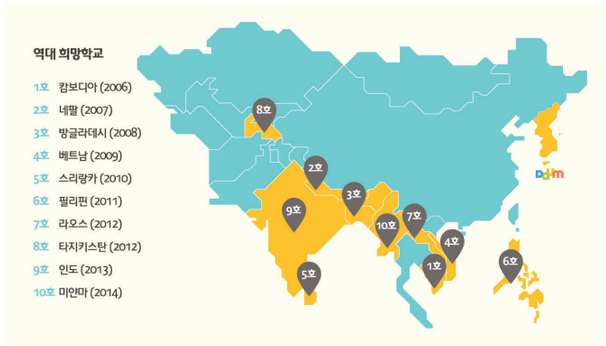



### ~2012년 '스타와 희망해'를 함께 한 스타들

이효리★와 함께 동물보육원을 희망해
소지섭★과 함께 6남매의 미소를 희망해
윤은혜★와 함께 환아의 소원을 희망해
원빈★과 함께 동티모르의 내일을 희망해
박신혜★와 함께 네팔 동화책을 희망해
김혜수★와 함께 푸른 지구를 희망해
김윤아★와 함께 푸른 지구를 희망해
크라잉넛★과 함께 푸른 지구를 희망해
CNBLUE★와 함께 아프리카의 꿈을 희망해
이연희★와 함께 다답 난민촌의 꿈을 희망해
유지태★와 함께 거리 아동의 꿈을 희망해
박지성★과 함께 축구 꿈나무의 미래를 희망해
수애★와 함께 방글라데시 소녀의 미소를 희망해
나경은★과 함께 따뜻한 쉼터를 희망해
알렉스★와 함께 난치병 어린이 합창단을 희망해
변정수★와 함께 필리핀 맘센터를 희망해

## 지구촌 희망학교

**매년 한 호씩 제3세계에 지어지는 지구촌 희망학교! Daum人의 기부금으로 지어지고 아동결연을 통한 정기후원 등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 ❖ 제3세계 아동들을 위한 다음인의 나눔
### 지구촌 희망학교

지구촌 희망학교는 매년 Daum人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제3세계 아동들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인도까지 총 9개의 지구촌 희망학교를 완공했고, 2014년도에는 미얀마에 10호 희망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10호를 맞이하는 지구촌 희망학교 사업에는 다음인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기부금 총 21억2천만원이 기부됐으며 이로 인해 총 7,296명의 제3세계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지구촌 희망학교 사업은 단순히 학교를 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희망학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 3년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지구촌 희망학교 아동과 임직원의 자매결연을 통한 결연기부, 임직원 자원봉사 '설레는 휴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 ❖ 희망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설레는 휴가

지난 2007년부터 다음인과 희망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나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는 설레는 휴가를 진행 중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Daum人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탈춤, 태권도 등의 전통 공연을 연습하고 벽화, 티셔츠 그리기,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설레는 휴가를 떠나면 현지에서는 무더위, 불편한 잠자리, 낯선 음식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희망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휴가 보다 진한 추억을 남긴다. 피부색은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바로 Daum이 지난 8년 간 이어온 설레는 휴가이다.






### ❖ 나눔이 있는 특별한 연말 설레는 바자회

매년 연말 다음인은 아주 특별한 송년행사를 진행한다. 희망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설레는 바자회가 바로 그것이다.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설레는 바자회는 임직원들이 물품기부, 판매, 구매의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과 재사용을 실천한다.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와 공연으로도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다문화 음식판매, 사회적기업 물품 판매 등을 통해 착한 소비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심어주는 다음만의 특별한 전통이 되고 있다.





## IT ProBono @Daum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라틴어의 약자다. 인터넷 위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Daum은 Daum이라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IT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비영리 IT ProBono @Daum은 인터넷 활동이 꼭 필요한 비영리단체 담당자들이 블로그와 SNS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25명 규모의 소규모 IT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275명의 참가자, 147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총 11기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5회의 실습형 강의로 진행되며 교육 참가자들이 새로운 소셜미디어의 세계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대일로 지원한다.

### ❖ 언제나 5분 이내에 모집 마감!! 이미 인기프로그램.

2013년에는 총 다섯 기수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Daum 본사가 위치한 제주와 한남오피스에서 수업이 진행됐으며,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심화과정(제11기)을 개설하는 등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진화돼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좌(9기)를 개설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13 Daum 환경캠페인

**지구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머그컵을 사용하고 대기전력을 줄이는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다. 2013년 Daum은 푸른 지구를 희망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 ❖ 희망해 온라인 환경캠페인 푸른 지구를 희망해

희망해는 매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에 온라인 환경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2013년에는 '푸른 지구를 희망해'라는 타이틀로 멸종 위기종 보호, 보육원 어린이 환경교육, 녹색교통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8,849명의 네티즌들이 환경의 소중함에 공감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총 19,132,987원이 모금됐다. 지구를 살리는 환경캠페인은 2014년 6월에도 계속된다!




### ❖ 지구를 사랑하는 Daum人의 사내 환경캠페인 '설레는 행동'

4월 5일 '식목일'부터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약 두 달간 Daum에서는 사내 환경캠페인 설레는 행동 시즌3가 진행됐다.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머그컵 파파라치, 머그컵 스탬프 캠페인, No Paper Cup Day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이를 통해 매년 20% 이상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모니터 파파라치'를 진행해 사용전력의 10%를 차지하는 대기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 제주와 희망해

**제주는 Daum에게 특별한 의미의 땅이다. 2012년 4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한 Daum은 2013년도에도 제주 지역사회를 즐겁게 변화시키기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 제주 이웃의 소원을 들어주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제주의 수호신 돌하르방처럼, Daum은 도움이 필요한 제주이웃을 돕기 위한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2008년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이 제주이웃의 소원을 이뤄주는 개인사연에만 집중했다면, 2013년부터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과 제주를 즐겁게 변화시킬 수 있는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사연 분야를 신설했다. 그와 더불어 사업비 역시 2012년 대비 3배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넓혀나가고 있다.




Daum은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제주 사회복지단체의 다양한 바람에 더욱 귀 기울일 예정이다.




### ❖ 제주올레의 친구기업, Daum

Daum은 제주올레의 친구기업으로서 2008년 제주올레의 첫 번째 홈페이지와 2010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홈페이지 제작을 후원했으며, 2012년에 제주올레 공식 모바일앱을 제작해 기부했다. 이후 제주올레 간세인형전(2012년 3월)을 제주본사 사옥에서 개최하고, 직원 및 가족들이 제주올레 이어걷기 행사(2012년 11월)에 참여하며 제주올레와 함께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제주올레 걷기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걷기축제에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더 많은 네티즌에게 제주올레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참가신청은 PC버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주사진동호회 '장수사진' 봉사활동

제주사진동호회 '다사인'은 2008년부터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한 한복과 소품을 준비하고, 손자손녀의 마음으로 옷 매무새를 다듬어 드리는 등 Daum 임직원이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 ❖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스마트에듀데이

Daum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2008년부터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2011년 '언플러그드데이'에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스마트에듀데이'를 개최해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컴퓨터과학 체험활동을 지원 중이다.

### ❖ 제주 지역문화를 위한 Daum의 후원 활동

도민대상 영화강연시리즈 '엔딩크레딧 가까이 보기',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영화제' 등 Daum은 제주 지역 문화인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행사들을 후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다음세대재단

인터넷기업이라는 신생의 영역에서 태어나 이제 10년을 넘어 무르익어가는 다음세대재단. 그 독보적인 사회공헌 활동들은 오로지 더 나은 다음 세대를 바라는 힘에서 비롯됐다.

**다음세대와 희망해**

2001년에 설립된 다음세대재단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스톡옵션의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현명한 사용을 통해 가치 있는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다음세대 창조』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유스보이스', '아이티캐너스', '올리볼리' 사업을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 유스보이스 YouthVoice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듣는 세상을 꿈꿉니다**

유스보이스는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유스보이스는 지난 10년 동안 〈유스보이스 Lab〉 〈미디어 컨퍼런스〉 〈프렌토〉 등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미디어 교육자들의 성장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아이티캐너스 ITcanUS

**공익적 가치가 기술을 통해 더욱 커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티캐너스는 『IT로 우리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가능케 한다』는 믿음 아래,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IT지원센터다. 〈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체인지온〉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 〈소리아카이브〉 〈오픈노하우〉 〈e하루616〉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지원, 사회적 웹서비스, 기술·기금 지원 등을 통해 비영리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IT 기술을 통해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올리볼리 OllyBolly

**다름에 대한 이해로,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올리볼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석사논문지원, 문화다양성 기금 사업을 통해 여러 문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학문적 토대와 현장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3년 12월까지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복지관, 도서관, 학교, 이주민센터 등에서 총 17개 올리볼리관이 운영되고 있다.



# CJ E&M 넷마블



**대한민국 NO.1 게임 퍼블리싱 기업 CJ E&M 넷마블(이하 넷마블)은 게임업계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대표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넷마블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게임회사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마블의 3대 비전 키워드는 ▲장애 없는 세상 ▲아이들의 미래 ▲가족과의 소통으로 세 가지 테마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없는 세상'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마음의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되는 관련활동으로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게임여가문화체험관, 게임 내 장애우 돕기 캠페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꿈나무들의 튼튼한 체력과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CJ마구마구 야구단, 지역청소년 진로교육 강연회, 전국 공부방 야구교실, 게임 문화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부모게임문화교실, 가족문화 소통캠프, 가족 소통 컨퍼런스, 사례공모전 등을 진행하는 '가족과의 소통'은 부모와 아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 'CJ 나눔재단 도너스캠프'와 연계해 'CJ 마구마구 나눔10번타자' 등의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내 임직원 봉사CCJ단인 쿠키봉사대가 정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및 기부에 나서고 있다.
또 카카오게임하기 최초로 이용자 참여형 스마트 나눔활동인 '에브리 넷마블 스마트 나눔활동'을 기획해 '다함께 차차차 사랑의 휠체어 캠페인', '다함께 퐁퐁퐁 사랑의 발도장 캠페인', '모두의 마블 천사카드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나눔문화 확산과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 넷마블만의 특화된 '소통' 프로그램 지속

넷마블은 2013년에는 특히 장애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넷마블은 2009년부터 5년간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아동들의 '온라인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ESC(onEStepClosertofamily) 프로젝트를 기획해 2011년부터 국내 게임기업으로는 처음 실시한 바 있는 학부모 게임교실을 2013년에 더 확대해 6천명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연간 85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이외 청소년 게임문화 캠프, 가족문화캠프를 개최하고, 게임문화체험존을 용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조성해 '게임'에 대한 가족들간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 행사는 게임을 매개로 가족 간 공감대를 만들어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 장르와 이용 동기, 게임 속 문화 등을 이해하고 게임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져 부모와 아이의 '벽'을 허무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 게임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게임 회사가 잘할 수 있는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넷마블은 게임회사로는 최초로 2012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행복나눔인상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CJ E&M 넷마블 2013년 사회공헌 · 상생활동

| 시행일시 | 종료일시 | 기간 | 프로그램명 | 대상 | 주최 | 주요내용 |
|---|---|---|---|---|---|---|
| 1.16 | 2.15 | 1개월 | 〈다함께 차차차〉 사랑의 타이어 캠페인 | 장애학생 | 넷마블, 국립특수교육원, 연세재활학교 | 이용자 참여형 나눔캠페인, 교통약자 장애학생에 휠체어 지원 |
| 4.4 | 5.4 | 1개월 | 〈다함께 퐁퐁퐁〉 사랑의 발도장 보내기 캠페인 | 유기 고양이 | 넷마블,고양시 캣맘협의회 | 이용자 참여형 나눔캠페인, 병들고 다친 유기 고양이 치료 사업비 지원 |
| 4.17 | 4.17 | 당일 | 넷마블, CJ엔투스 장애학생 나눔멘토링 | 장애학생 | 넷마블, CJ엔투스, 연세재활학교 | 장애학생e스포츠 선수 멘토링 |
| 5.1 | 11.15 | 7개월 | 〈ESC Project〉 학부모게임교실 | 학부모 | 넷마블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 총 85회, 6,000여 명 교육 게임문화, 미디어교육 |
| 6.23 | 12.29 | 7개월 | 〈ESC Project〉 게임문화체험존 | 학부모& 가족 | | 게임용어, 플레이방법교육 |
| 2.20 | 2.22 | 2박 3일 | 〈ESC Project〉 청소년게임캠프 'YES캠프' | 청소년 | | 게임창작워크숍,진로캠프 |
| 7.26 | 7.27 | 1박 2일 | 〈ESC Project〉 '다함께잡(JOB)아라' | 청소년 | | 게임창작워크숍,진로캠프 |
| 10.25 | 10.25 | 당일 | 〈ESC Project〉 '2013 미디어 소통 컨퍼런스' | 학부모, 교사, 학계 | | 가정 내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ESC프로젝트 효과성 결과 발표 등 |
| 6.26 | 7.25 | 1개월 | 〈스페셜포스2〉 우리역사 바로알기 캠페인 | 청소년 | 넷마블, 반크 | 우리나라 역사 퀴즈 정답자에게 독도 지도 제공 등 |
| 7.3 | 7.3 | 매월 | 〈정기봉사〉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함께 걷기 | 장애우 | 넷마블, 구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 팥빙수 직접 만들어보기 |
| 8.22 | 8.22 | 당일 | 넷마블, CJ엔투스 장애학생 나눔멘토링 | 장애학생 | 넷마블, CJ엔투스 | 장애학생e스포츠 선수 멘토링 |
| 9.3 | 9.4 | 매년 |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 청소년 | 넷마블, 국립특수교육원,한국복지대학교 |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전국 2천여명 참여) |
| 9.13 | 9.13 | 매월 | 〈정기봉사〉 구로구립장애인보호 작업장 함께 걷기 | 장애우 | 넷마블, 구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 가을 대운동회 진행 |
| 9.16 | 9.16 | 매월 | 〈정기봉사〉 이화어린이집 한가위큰잔치 | 장애 아동 | 넷마블, 어린이집 | 장애,비장애아동통합반과 한가위 민속놀이 진행 |
| 10.14 | 11.13 | 1개월 | 〈모두의마블〉 천사카드캠페인 몰래산타 봉사활동 | 영아 | 동방사회복지회 |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시설의 영아들에게 diy장난감 선물 |
| 11.7 | 11.7 | 매월 | 〈정기봉사〉 마리스타공부방 꿈키움나눔 | 아동 | 넷마블, 공부방 | 공부방아이들과 겨울맞이 김장 담궈 삼계탕 파티 |
| 11.13 | 11.13 | 매년 | 김장봉사활동(6년째) | 저소득가정 | CJ도너스캠프 | 매년 대표이사, 임원, 임직원 김장봉사활동 실시 |
| 11.27 | 11.27 | 매월 | 〈정기봉사〉 마리스타공부방 꿈키움나눔 | 아동 | 넷마블, 공부방 | 공부방아이들과 겨울맞이 김장 담궈 지역 어르신께 배달 |
| 12.1 | 12.31 | 1개월 | 몰래산타 봉사활동 | 영아 | 동방사회복지회 |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시설의 영아들에게 가젯수건 선물 |
| 12.6 | 12.6 | 매년 | 연탄봉사활동(9년째) | 어르신 | 연탄나눔운동본부 | 홍제동 독거노인마을에 연탄 4천장 전달 |
| 12.20 | 12.20 | 매월 | 〈정기봉사〉 이화어린이집 재미노리 | 장애 아동 | 넷마블, 어린이집 | 송년큰잔치, 넷마블 산타의 마술쇼, 캐롤송 |
| 12.1 | 12.31 | 1개월 | 몰래산타 봉사활동 | 영아 | 동방사회복지회 |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시설의 영아들에게 가젯수건 선물 |

## 사회공헌활동 설명

### 1. ESC프로젝트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전국 학교, 지역시설, 정부기관 등에서 학부모,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게임문화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09년 : 총 30회, 전국 272개 학교, 2만2천482명/ 12년 : 총 600개 학교

11년 : 학부모게임교실 총 10회/ 청소년 캠프1회/ 가족캠프 1회

12년 : 학부모게임문화교실 현재 30회 진행/ 청소년 캠프 7월 진행/ 가족캠프 9월 진행

13년 : 학부모게임문화교실 85회 진행/ 청소년 캠프 2월, 7월 진행/ 가족 소통 컨퍼런스 10월 진행

### 2.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건전한 여가 생활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등 총 2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종목은 스포츠게임, 보드게임분야 '마구마구', '차구차구', '오델로', '오목', '사천성' 등이다.

- 2011년 전국 6천여명 예선, 700여명 결선(8월 30~31일)
- 2012년 전국 6천여명 예선, 1천700여명 참여(9월 4~5일)
- 2013년 전국 6천여명 예선, 2천여명 참여(9월 3~4일)

### 3. 게임여가문화체험관

장애인 여가문화 양극화 개선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08년부터 시작됐으며, 전국 14개 학교 장애학생의 게임의 교육적 활용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2008년 6개교(성은·자혜·월봉·영명학교·신암·천동초)
- 2009년 5개교(한국선진·덕희·혜원학교·개화·중앙초)
- 2010년 6개교(매봉·구남초, 동방·혜화·함평 영화학교, 성우학교)
- 2011년 3개교(목포 인성학교, 관기초, 속초청해학교)
- 2012년 2개교(인천 연일학교, 안동 진명학교)
- 2013년 2개교(전북 푸른학교, 천안 나사렛 새꿈학교)

### 4. 게임연계 CSR활동

게임이용자들과 함께하는 CSR활동 기획·실행을 통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지원하고 있다.

- 〈다함께 차차차〉 사랑의 타이어 캠페인 :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타이어'를 지인과 주고받으면 자동 기부가 되어 국립특수교육원 산하 장애학교에 기부금이 제공된다.
- 〈다함께 퐁퐁퐁〉 사랑의 발도장 보내기 캠페인 : 게임 플레이 필요한 '발도장'을 지인과 주고받은 누적 횟수에 따라 유기고양이 치료 기금을 고양시 캣맘협의회에 기부한다.
- 〈모두의마블〉 천사카드 캠페인 : 게임 이용자와 넷마블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나눔 봉사로 게임에 등장하는 달, 주사위 모양의 DIY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동방사회복지회 일시보호 아동에 전달한다.
- 〈스페셜포스2〉 역사 바로알기 캠페인 :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다.
- 제 2회 〈클럽엠스타〉 대학생 UCC 공모전 :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의 취지로 공모전 진행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항해시대〉 장애우 응원 캠페인 : 〈대항해시대〉 이용자 중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이용자들이 모금과 넷마블의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Alliance ECO AD PROJECT Internet

# 얼라이언스인터넷



## 2013년 사회공헌 원년으로!

얼라이언스인터넷은 2013년 본격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V2청년응원단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V2청년응원단이란 『청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의 앞글자를 따 만든 명칭으로, 배너광고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참여의 의지가 돋보이는 스타트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2014년 1월 사회적기업 '더사랑'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한 팀이 돼 구급키트를 제작하는 더사랑은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마케팅에 대한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찾지 못하던 중 V2와 만나게 됐다. 이를 통해 3주 동안 40여개의 사이트에 3800만번의 노출과 5000회가 넘는 클릭수를 기록하며 더사랑의 제품 판매와 홍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 ㈜얼라이언스인터넷은 V2청년응원단을 통해 단순 후원이 아닌 얼라이언스인터넷의 기술을 통해 작은 도움이나마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생의 가치 실현과 참된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도 계속 앞장설 계획이다.




V2청년응원단 더사랑 배너광고

## 소통의 장을 마련하다 '파트너스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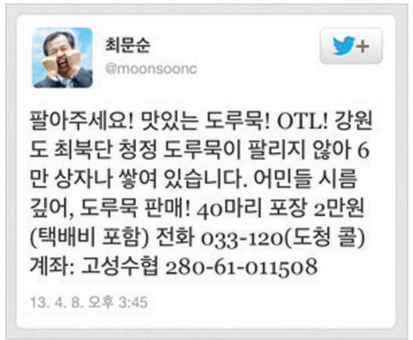
2013년 2월14일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자사만의 축제로 끝내지 않고 제휴 매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매체사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로 '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가로수길 행사장에서 스탠딩 파티로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맛있는 음식들을 뒤로한 채 모두들 다리 아픔도 느끼지 못하며 서로 인사하고 네트워킹에 힘썼으며 네이버에서도 참여해 대중소기업대표, 담당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음 행사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으며 얼라이언스에서 마련한 자리지만 매체사들이 스스로 참여한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였으며 기업간 제휴와 협력은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행사였다.



## 배너 광고로 나눔을 실천하다 '고성군 어민 도루묵 팔아주기 프로젝트'

2013년 V2 오픈시 강원도 고성군 어민들이 추운 겨울 바다에서 애써 잡은 도루묵이 팔리지 않아 냉동 창고에 무려 6만 상자에 쌓여 있다는 소식이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트윗을 통해 전해졌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V2 플랫폼을 통해 송출된 강원 도루묵 홍보 배너

강원도청과 협의해 배너 광고를 얼라이언스인터넷의 재능 기부로 집행키로 했다. 어민들을 돕기 위해 배너 광고를 직접 제작하고 비용을 들여 얼라이언스인터넷 V2 플랫폼을 통해 V2와 파트너쉽을 맺은 중소인터넷 매체에 집행했다. 그 결과 1억 2천회가 넘는 광고 노출과 이곳 저곳에서 뻗친 도움의 손길로 열흘 만에 도루묵 6만박스가 8천 박스로 줄어들었다는 최문순 지사의 트윗을 볼 수 있었다. 작은 나눔들이 모이면 큰 힘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얼라이언스 인터넷만이 할 수 있는 광고 나눔이었으며 중소매체들의 광고효과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됐다.

# SK 플래닛



SK플래닛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문화가족 지원에서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릴레이, 생명 나눔을 위한 장기기증운동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T아카데미를 통해 받은 지원을 앱 개발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원하는 '상생의 선순환' 사례는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저소득 소외계층 꿈을 위해 희망의 집 짓는다

SK플래닛은 T아카데미 출신 앱 개발자들과 함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지 제공을 위한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를 통해 '상생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T아카데미를 통해 창업의 기회를 얻게 된 앱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받은 지원과 혜택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으로 환원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 SK행복마을'은 SK그룹이 2006년 수원시 및 비영리 국제 NGO단체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의 보금자리를 선물하기 위해 건축된 곳으로, 지난 5월 증축 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7개동 총 60가구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제공됐다.




SK플래닛, T아카데미 앱 개발자들과 함께 희망의 집 짓는다

또 SK플래닛은 'T맵 스타음성' 서비스를 출시하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부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1,700만의 사용자를 보유한 국민 내비게이션 T맵에 김준호, 황해 등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의 스타음성을 넣고 여기서 판매된 금액을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것.




SK플래닛, 「T맵 김준호 스타음성」 매출 전액 기부한다

T맵 스타음성 서비스는 대중들에게 사랑 받는 인기 연예인들의 목소리로 T맵의 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13년 8월 인기 스타 유행어들이 담긴 상품이 첫 선을 보인이래 황해 버전 등이 큰 인기를 얻어왔다.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치과 버스 운영

SK플래닛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구강전문기업 제니튼과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해피 스마일 치과버스'를 통한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피 스마일 치과버스'는 SK플래닛의 통합 마일리지 플랫폼인 OK캐쉬백과 전국 250개의 서울대 출신 치과네트워크를 보유한 제니튼이 공동으로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을 돌며 구강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의료나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2013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총 410명에게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지원 IT교육 프로그램인 '희망앱 아카데미'를 통해 IT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인 신망원에 6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LED TV를 전달키도 했다.



SK플래닛, 신망원에 사랑의 컴퓨터 기증

'사랑의 컴퓨터' 증정은 SK플래닛이 개최한 글로벌 IT 테크 컨퍼런스 '테크플래닛'의 사전등록비 전액을 IT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사용한 것.

한편, SK플래닛은 야간이나 주말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야간보호사업 시설인 성남 중앙동복지관 희망돌봄교실에 IT기기, 교육 기자재 등의 물품을 기증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SK플래닛,희망돌봄교실 리모델링 지원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로 사옥을 이전한 SK플래닛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IT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

SK플래닛은 이번 기증으로 희망돌봄교실에 빔프로젝트/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설치하고, 책상/의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교체, 200여 권의 아동 권장 도서 증정,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야간이나 주말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기부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테크플래닛 행사 전경

ebay tm

# 이베이코리아



## 국경을 넘어 나눔을, 바다를 건너 사랑을

G마켓 청년봉사단 GLOVE를 통해 19~20기 400명의 단원들을 선발,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파견하고 있으며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모아진 독도후원금 4,500만원을 광복절을 맞아 독도기념관 건립 및 독도수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했다.

### ■ G마켓 청년봉사단 GLOVE 19~20기 파견

G마켓의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인 청년봉사단 GLOVE는 매년 2회에 걸쳐 단기 해외봉사단을 선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파견한다. 다른 봉사단과 달리 대학생 외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열어 젊은이들이 다양한 세계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현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용기와 도전정신을 키우고 지구촌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GLOVE로 선발된 해외봉사단원은 서류심사와 면접, 합숙교육을 거쳐 매 기수별 200명씩 선발되며 단원들이 직접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 10~13일간 파견봉사를 펼치게 된다. 파견된 봉사단원들은 파견국 현지 NGO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현지 주민들과 아동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2010년부터는 참여인원과 파견국가를 대폭 확대해 한 해 400명, 5~9개 국가 파견이 이뤄지고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세계에서 나눔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 이외에도 봉사단원들이 현지의 문화와 생활상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문화체험 및 홈스테이 등을 병행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 총 20개 기수, 약 1,600여명의 인원을 파견 중에 있다.

20기는 국내봉사단을 신설해 해외 25개국에서 50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을 선발, 국내로 초청해 국내에서 선발된 50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10일간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진행한 초청지원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받는 봉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국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대하며, 외국인 및 외국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혔고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19기 활동사진



20기 활동사진

### ■ 한글공부방 지원 사업

제 567돌 한글날을 맞이해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방송인 서경석씨가 전 세계에 한글을 알리기 위해 각국의 한글 공부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G마켓이 함께 하고 있다. G마켓은 후원사로 참여해 필리핀에 위치한 한글공부방 두 곳에 한글교재,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도서기증을 했다. 도서기부는 G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G마켓이 택배 수거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한글날, 한글 알리기 프로모션을 통해 자신이 기부한 책이 한글을 공부하는 내외국인 학생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서경덕 교수 한글공부방

## 다음세대의 푸른 삶을 약속합니다

### ■ 초록숲길 가꾸기

G마켓이 후원하는 '초록숲길' 사업은 서울 근교 산의 등산로 및 숲길을 대상으로 안내시설물 정비, 나무 심기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숲길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관악산 숲길 가꾸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수락산 아름다운 숲길 가꾸기'로 수락산에 약 50개소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했으며 노후화된 종합안내판 2개소를 재정비했다.

2013년에는 서울시 생명의 숲과 MOU를 체결해 2015년까지 '초록숲길'이라는 숲길 정비 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초안산과 쌍문역사산책길을 정비한 바 있다.

초안산 걷고 싶은 길은 총 길이 4.6km에 163개의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했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24회 실시해 총 817명의 참가자와 함께 둘레길 시찰을 하였다.

G마켓 초록숲길 사업 진행현황

| 대상자 | 진행연도 | 조성거리 | 시설물설치 (철거) | 프로그램 횟수 | 프로그램 참가자 | 캠페인 횟수 | 캠페인 참가자 |
|---|---|---|---|---|---|---|---|
| 관악산 | 2008 | 0.32km | 31 | 4 | 205 | 1 | 30 |
| | 2009 | 1.5km | 37 | 36 | 804 | 1 | 517 |
| | 2010 | 2.24km | 36 | 21 | 422 | 1 | 7,000 |
| | 2011 | 0 | 0 | 37 | 492 | 2 | 2,000 |
| 수락산 | 2012 | 9km | 50(13) | 24 | 492 | 2 | 350 |
| 초안산 | 2013 | 4.6km | 163 | 24 | 817 | 0 | 0 |
| 쌍문 | 2013 | 5.6km | 205 | 9 | 255 | 1 | 450 |
| 합계 | 2008~2013(6년) | 23.26km | 522 | 155 | 3,487 | 8 | 10,347 |

2008~2009년도는 숲길 정비 및 시설물 설치 / 2010~2013년도는 숲길안내체계 개선사업임

쌍문역사길은 총 길이가 5.6km로 205개의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완료됐으며 10월30일 제막식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9번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총 300명의 참가자들이 걷고 싶은 길을 함께했고 10월 26일 도봉환경교실과 함께 100여 가족을 초청해 환경에 관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각 안내판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자세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해설판의 경우 웹페이지 연결을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G마켓은 향후에도 유익한 산이 더욱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제막식 사진




이정표 사진

## 생활 속 나눔, 나눔 속 보람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상품의 판로개척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후원세일즈는 쇼핑과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선도를 목적으로 일방향이 아닌 쇼핑과 재기부를 통해 고객의 후원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 ■ 후원세일즈 The V

The V는 SAVE 할인을 받고, GIVE 기부하고, LOVE 나누는 1석 3조의 후원쇼핑 세일이벤트다. 2012년부터 시작한 후원세일즈 The V를 통해 NGO의 후원상품 및 후원에 동참한 셀러들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쇼핑을 통해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G마켓의 특성을 살려 상품구매를 통한 후원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고자 매달 관련상품들을 특별할인 운영해 왔으며, 참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NGO 및 재단의 상품을 후원하고 상품 구매와 재기부를 통해 기부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후원세일즈 페이지


Give마켓
안 쓰는 물건, Give마켓에 보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한다.
물품을 기증한다.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기증합니다.
현금 5만원 이상 택배로 15cm*15cm 기증합니다.
현금 5만원 이하 편의점

## 힘내라! 대한민국의 미래!

### ■ 2013 사랑의 동전 모으기

G마켓은 월드비젼과 함께 4년째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2012년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만들어진 50억원의 모금액은 230만개의 저금통, 1천명의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국내 소외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본사 미니밭 행사


청계천 행사

2013년은 250만개의 미니저금통을 전달했고 50여억원의 모금액이 모였다. G마켓은 4년째 후원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임직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저금통을 수거해 미니동전밭 행사를 역삼동 본사에게 진행했다.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직접 저금통을 행사장에 가지고 와서 동참했으며, 월드비젼 친선대사 탤런트 박상원씨와 전재현 월드비젼 본부장 및 이베이코리아 임원들이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 ■ 대학생 식권 후원 이벤트 – 반값식권

등록금, 학업, 취업 등으로 지쳐있는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2010년부터 시작한 G마켓 대학 식당 식권후원 이벤트는,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대학 식당 식권 가격의 반값을 G마켓이 부담하는 후원이벤트로, 대학생의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 부담을 줄여주어 호응도가 높은 이벤트로 자리매김 했다. 올해는 전국 20개 대학의 식권 40,000장을 10,000명의 학생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반값식권 페이지



CSR 서포터즈 단체사진

### ■ CSR 서포터즈 운영

G마켓이 진행하고 있는 CSR 활동들에 대해 알리고 직접 발로 뛰며 참여하고 기획까지 해보는 CSR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했다. 5월에 면접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서포터즈들은 팀 미션과 개인미션을 통해 매달 G마켓의 CSR 활동을 취재하고 참여하며 의미 있는 6개월을 보냈다.

개인 블로그에 취재활동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G마켓의 CSR 활동과 의미에 대해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직접 참여하기도 했으며 우수활동 단원은 GLOVE에 파견되는 특전도 누렸다. 대한민국의 많은 대외활동 중 CSR 활동만 특화해 진행하는 첫 대외활동이란 것에 단원들은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 ■ 세계 어린이 합창제 후원

월드비전 2013 세계 어린이 합창제는 미국, 스위스, 호주, 필리핀 등 7개국의 정상급 어린이 합창단과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을 비롯해 국내외 수준 높은 합창단이 참가해 각국의 민속 음악에서 클래식,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여주는 합창제다.

G마켓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자 'A voice for the voiceless(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 라는 주제로 열린 제 5회 월드비전 세계어린이 합창제를 협찬사로서 함께 했다.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펼쳐진 합창제는 예술의 전당, 명성교회, 세종문화회관, 서울랜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합창을 통해 수준 높은 합창음악의 진수를 경험하는 귀한 국제문화교류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국내 유일의 세계 어린이합창제로서 국내 합창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창제 페이지

### ■ 불금댄스 후원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주관하고 G마켓이 후원한 불금댄스는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 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새로운 춤에 목마른 사람, 누구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춤추게 하자 는 목표를 내건 춤 파티로 100명 정원에 1300명이 몰렸을 만큼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 행사는 마포구 서교동 서교 예술실험센터에서 열렸다. 안무가 최용원씨가 국민체조를 응용해 만든 안무를 통해 함께 연습을 하고 일렉트로닉 음악에 맞춰 다 함께 춤을 즐김으로써 누구나 즐겁게 문화를 즐기고 함께하는 장을 만들었다. 20~30대와 소통을 하고 이들의 청춘을 응원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스트레스를 잊고 다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었다.

###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세미나 지원 (춘/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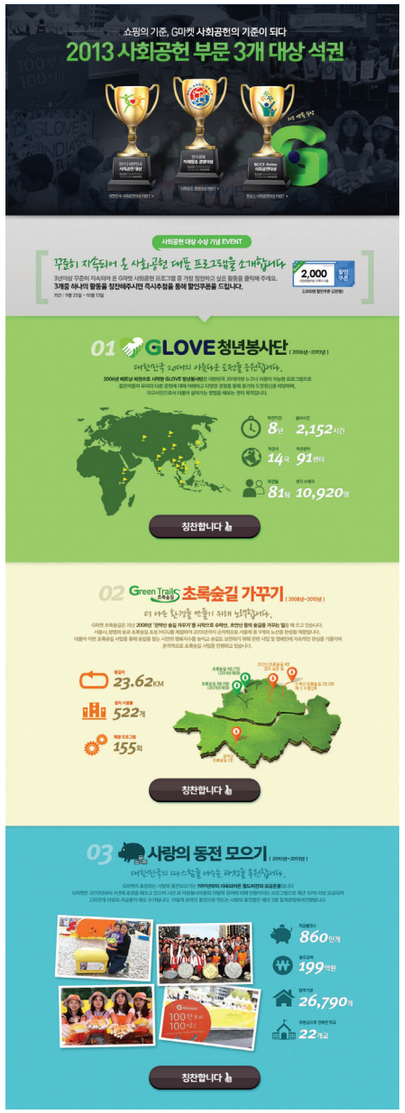
2010년 가을부터 진행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의 학술대회는 학계와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복지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이다. 학술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소리와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는 공간이다. G마켓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하고 있다.

### ■ 1:1 아동 후원 캠페인

G마켓과 월드비젼이 함께한 일대일 아동후원캠페인인 200명의 생일소원은 나와 기념일이 같은 달에 태어난 해외의 아이를 후원해 나에게 더욱 특별한 날을 함께 나누는 이벤트다. 생일이 같은 후원이 가능한 아이를 확인한 후 아이 생일날 정기후원을 통해 그 기쁨을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 ■ 사회공헌 대상 수상

G마켓은 2013년 4개의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후원쇼핑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다양한 분야의 지원에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 2013 미래창조경영대상 사회공헌분야 기업가정신사회공헌분야, 2013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지역사회공헌부문, 2013 대한상의,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청소년지원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권위 있는 사회공헌 대상으로 꼽히는 포브스, 대한상공의 사회공헌 대상은 2년 연속 수상 및 3회 수상으로 그 기쁨을 더 했다. 수상기념으로 마련한 프로모션에서는 감사의 뜻을 할인쿠폰으로 고객들에게 전하고 고객들의 칭찬 댓글 한 건당 1리터씩을 기아대책의 식수지원 캠페인에 기부해 총 2,298리터의 물을 기부했다.



사회공헌대상 프로모션

## 나눔패밀리

나눔패밀리는 옥션 최고의 고객봉사단으로 노력봉사, 재능기부 등 신체봉사뿐만 아니라 나눔쇼핑 물품 구매, 자선경매 입찰 등 나눔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봉사, 기부의 문턱을 낮추는데 주력해 왔다.

현재까지 '나눔패밀리'를 거쳐간 자원봉사자는 150여명, 나눔쇼핑을 통한 기부금은 2,291,911,425원에 달하고, 특히 단순 일회성 나눔행사가 아닌 지속기부를 통한 나눔프로그램의 조직화로 기업과 단체, 그리고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옥션 내 나눔패밀리 사이트는 그 동안 옥션이 국내 유수의 기업, NGO 단체 및 고객 참여를 통해 진행해 왔던 각종 봉사활동, 기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나눔활동에 대한 고객참여를 이끄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낡은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변신시켜주는 봉사프로그램 '사랑의 트랜스포머'와 취약가구 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교체 봉사 프로그램 '희망하우스'를 비롯해 'SBS 스타나눔경매' 및 고객들이 기증한 중고품을 재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나눔박스'에 이르기까지, 옥션에서 진행한 다양한 기부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나눔박스

옥션의 나눔박스 캠페인은 옥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 중고품 기부 상설코너로,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수거해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고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3년 나눔박스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기증받은 중고품 2만 3천여점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돼 총 3천500여 만원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됐다.










■ 나눔쇼핑

옥션은 쇼핑과 기부를 연동한 기부 시스템인 나눔쇼핑을 운영 중이다. 나눔쇼핑이란 옥션 사이트 내에서 '나눔상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판매자는 제품 등록 시마다 '나눔상품' 신청 여부를 결정, 기부 기간 등을 매번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옥션은 구매자가 본인의 소액 또는 소멸 예정 포인트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 포인트 기부 상설 코너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기부한 기부총액은 후원 단체 기부 및 옥션의 각종 후원 사업에 이용될 계획이다.

나눔쇼핑으로 모인 금액은 백혈병어린이재단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보내져 현재까지 소아암환아 60명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120명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사용되었다.

■ 희망하우스

옥션 고객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올해 2월, 6월, 8월, 3회에 걸쳐 66가구의 도배시공,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하우스 캠페인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이 행사는 옥션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정한 '재난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옥션 고객봉사단 나눔패밀리를 비롯해 총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희망하우스를 통해 재난으로 취약해진 가정의 낡은 장판, 벽 등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한 결과, 올 한 해 전국 66가구가 재탄생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 ■ 사랑의 트랜스포머

옥션은 노루페인트와 제휴해 보육원 등 주변의 낡은 건물들을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사랑의 트랜스포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노루페인트와 옥션, 그리고 고객봉사단이 직접 참여해 주변의 낡은 건물을 다양한 컬러와 벽화로 새롭게 변신시켜 주는 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역민과 아이들이 보다 밝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나눔 캠페인이다.





### ■ SBS스타애장품경매

SBS스타나눔경매는 작년 11월을 시작으로SBS TV,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베이코리아가 공동 참여하는 행사다. SBS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애장품을 기증받아 경매를 진행, 그 수익금을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현재까지 21개의 드라마에 출연한 스타의 애장품은 100여점 이상으로 총 낙찰금액은 3천300여 만원에 달한다.






### ■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 모금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국가재난 사태에 놓인 필리핀을 위해 옥션도 필리핀 복구 지원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옥션 홈페이지에서 '희망의 100원 나눔 클릭하기'를 누르면 1회당 100원의 후원금을 옥션에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한 아이디당 하루 1번의 참여가 가능했다. 옥션은 이렇게 조성된 금액을 사회단체에 전달해 필리핀 물난리 복구 지원금으로 활용했다.

앞서 옥션은 지난 2011년 7.3 규모의 강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터키를 비롯해 일본 대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돕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 ■ 사랑의 자선냄비 행사

옥션은 올 해 '사랑의 자선냄비' 모금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와 협력, 옥션 임직원 및 옥션 나눔패밀리 봉사단이 직접 기부활동에 참여했고, 구세군 모금 캠페인은 온라인과 함께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11월 27일에는 시청광장에서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함께 시종식을 가졌고, 시종식에 설치된 옥션 전용부스에는 옥션 나눔박스 및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 바자회를 진행해 소정의 판매금액이 기부됐다.



자선바자회

또한 12월 10일부터는 이베이코리아 본사에 설치된 자선냄비를 통해 임직원 모금활동도 진행됐다. 각층 엘리베이터 앞에 '옥션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총 15일 동안 모아진 금액을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에 전달했다.



사랑의 자선냄비

12월 19일부터는 명동, 청계천 등 서울지역에서 '옥션 사랑의 자선냄비'를 실시해 각 지역에 대형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2인 1조로 구성된 고등학생 옥션 봉사단 나눔패밀리들이 기부 참여를 도왔으며,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구세군 캐롤CD, 손난로 등 기념품을 함께 증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모금액은 12월 25일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에 전달됐다.

# KAKAO

## 카카오



### 모바일 소셜 플랫폼, 카카오!

-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온 국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카카오톡'.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온 국민을 연결하는 스마트 커넥터로 자리잡았다.
-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사용량과 소셜 네트워크 파워를 기반으로 카카오스토리, 게임하기도 잇따라 성공가도를 달리며, 카카오는 '스마트 커넥터'로 도약했다. 나아가 개발사, 기업, 작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 카카오는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마케팅 ▲커머스 ▲게임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플랫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파트너, 개발사, 콘텐츠 창작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성장의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며 모바일 산업 성장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 카카오의 가장 큰 미션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커뮤니케이션의 요구를 해소하고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100만 파트너와 함께 동반성장을 목표로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카카오 같이가치TF?

- 카카오는 2013년5월 29일 사용자, 파트너, 카카오크루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같이가치TF'를 발족했다.
- 같이가치 TF는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분야를 정하고,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의 구성원(이하 카카오크루)이 안건을 발제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성'을 근간으로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다.
- 또한, 전국민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와의 서비스 레버리지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 이를 통해, 카카오 내의 같이가치에 대한 취지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파트너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카카오크루와 함께하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힐링프로젝트

-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젝트(momproject.net)는 전문가가 일반인에게 하는 수직적 치유가 아닌 치유를 경험한 시민이 치유활동가가 되어 또 다른 시민들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치유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의 로고 개발, 홈페이지 구축과 '엄마가 필요해' 플러스친구 오픈을 재능기부 해준 카카오크루14명이 참석했고, 카카오크루 16명이 5주간의 치유워크샵 수료하고 치유활동가가 됐다. 카카오 치유활동가들은 김제동 힐링톡 콘서트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5개사의 구성원들과 함께 5주간의 치유워크샵을 직접 진행했다.
- IT 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 기획자들은 빠른 서비스 진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24시간 서비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정신 노동자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2014년에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중증 지체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드래곤플라이트 게임 대회

- 중증 지체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중증 지체장애인을 자립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새벽지기'의 오영철 소장은 "손가락 하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도 드래곤플라이트는 40만점까지 할 수 있다"며 중증 지체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게임 대회를 제안했다.
- 게임 대회는 새벽지기의 지체장애인들과 파트너사인 넥스트플로어 자원봉사자 15명과 카카오크루 자원봉사자 40명이 힘을 합쳐 스스로 기획해 게임 대회 현장을 운영했다.
- 중증 지체장애인들에게는 모바일 게임이 장애인들에게는 사회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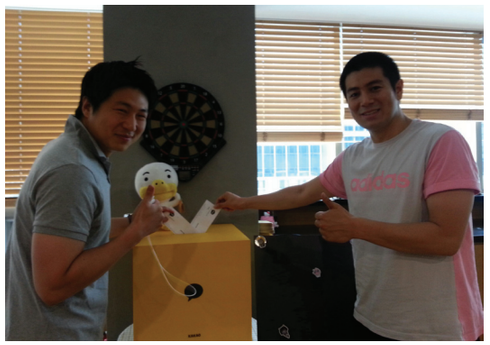







### 카카오크루와 함께하는 필리핀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

- 필리핀에 오랫동안 거주한 카카오크루가 필리핀 재난을 지인들로부터 듣고 뜻을 같이 한 카카오크루 9명이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3일간 진행된 모금 캠페인에서 카카오크루 50%이 넘게 참여해 약 700만원의 기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카카오는 매칭펀드로 총 1,400만원을 기부했다.
- 필리핀 월드비전을 통해서 생필품 키트를 제작해 수해 지역에 전달했으며, 카카오크루들의 자발적인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카카오프렌즈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 카카오크루와 함께하는 해카톤, 24K

- 카카오크루들의 잉여 대방출의 시간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24hr for Krew의 약자로 24시간동안 카카오크루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평소에 생각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까지 진행하는 사내 행사였다.
- 24K 행사 기획도 사내 개발자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됐으며, 15명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준비됐다. 24K는 총 150명이 50개의 팀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개선사항 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 향후 24K를 통해 카카오크루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도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세상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기업, 브랜드들이 카카오톡 사용자의 친구가 되어 정보, 혜택, 콘텐츠를 미니프로필, 대화창, 브랜드홈을 통해 제공하며, 상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플러스친구를 개설해 청소년, 학부모 등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하고 건전한 이용정보와 캠페인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
- 경찰청과 함께 '경찰청' 플러스친구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파밍 등 신종범죄에 대한 경보, 허위사실 유표 및 긴급하고 중대한 치안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한다.
- 소방방재청과 '재난알리미' 플러스친구를 개설해 폭설, 폭염, 호우, 지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긴급재난정보를 신속히 실시간으로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 유니세프, 사랑의 열매,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이 플러스친구를 개설해 약 70만명의 카카오톡 유저들과 함께 긴급구호 봉사활동, 헌혈, 기부문화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 카카오스토리, 스토리플러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모바일 문화

- 스토리 플러스는 기업, 브랜드들이 친구 수 제한 없이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다.
- 현재 스토리플러스는 상용화 이전 테스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개설해주고 SNS서비스를 활용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계정을 개설하고 약 53만명의 카카오스토리 사용자와 범죄예방과 유익한 치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플운동본부도 선플달기운동 캠페인을 기획해 카카오스토리 오픈을 진행 중이다.

### 카카오 같이가치!

- 카카오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기를 꿈꾼다. 혼자 가면 빨지 갈수는 있겠지만 함께 가는 것이 더 멀리,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카카오는 기업시민으로써의 카카오크루, 사용자, 파트너들과 함께 의미있는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TICKET MONSTER

## 티켓몬스터



### 티몬, 소셜기부와 함께 성장한 1년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티몬의 사회공헌 캠페인이 2013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기부금 모금 및 사회적 기업의 제품 판매액, 파트너사의 자발적 후원 등을 통한 2013년도 총 기부활동금액은 1억1천400만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NGO단체에 기부된 금액이 6천500만 원, 수수료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상품의 판매액이 4천800만원이며 이러한 기부활동에 참여한 고객의 수는 2만5천597명에 달했다.  이는 2012년의 8천만 원보다 30% 성장했고 기부의 형태나 전달 대상, 참여자 수도 폭 넓어져 '소셜기부'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티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티몬의 '소셜기부'는 2010년 12월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수수료 없이 판매 대행하던 것에서 나아가 2012년 NGO 단체와 고객을 연결하는 기부금 펀드라이징 형태로 확장됐다. 이 같은 좋은 뜻에 동참하는 파트너사들과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판매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기부하는 '쇼핑기부'가 활성화됐으며, 기부 전달 대상도 유엔세계식량기구(WFP)와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글로벌 단체 위탁으로 시작해 애견협회나 지자체를 통한 수혜자 직접 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쇼핑기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HP와 AMD, 티몬이 공동 진행하는 〈아름다운 노트북〉 딜은 100대 판매 시 1대의 노트북을 증정키로 해 2013년 한 해 동안 40여대를, 총 누적으로 64대가 기부됐으며 지금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착한 전시회 나눔 캠페인〉으로 유명 사진 전시회 티켓을 구매한 고객과 판매처인 티몬,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함께 티켓 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1천380만 원을 구세군에 기부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유기견 돕기 후원금 마련으로 진행된 딜을 통해서는 1천600만 원이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에 전달됐고, 티몬의 대박 히트 화장품 업체인 '여우무기'는 지난 4월 자사의 인기 제품 '애스톤네이처' 1천개 물량 판매분의 전액인 1천160만 원을 구호단체에 기부키도 했다.

| 2013년 | 소셜기부명 | 참여자수 | 금액 | 비고 |
|---|---|---|---|---|
| 12월 | 성북구 소외계층 난방 지원 | 476 | ₩1,444,000 | 기부액 |
| 12월 | 착한전시회 나눔 캠페인 | 2848 | ₩13,871,160 | 기부액 |
| 12월 | 유기견돕기 후원금 한국반려동물 사랑 연합 1차 | 8830 | ₩8,830,000 | 기부액 |
| 11월 | 필리핀 태풍피해 이재민 돕기 | 620 | ₩2,064,000 | 기부액 |
| 11월 |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 838 | ₩15,554,500 | 총판매대금 |
| 10월 | 세계식량의 날 맞이 시리아 긴급구호 | 397 | ₩1,081,000 | 기부액 |
| 9월 | 아름다운커피 핫초코와 초콜릿 판매 | 1816 | ₩17,623,200 | 총판매대금 |
| 8월 | 유기견돕기 후원금 한국반려동물 사랑 연합 2차 | 7111 | ₩7,111,000 | 기부액 |
| 7월 | 에코파티메아리 친환경 디자인 소품 판매 | 29 | ₩131,100 | 총판매대금 |
| 6월 | WFP 콩고 학교급식지원 캠페인 | 134 | ₩1,165,000 | 기부액 |
| 5월 | 세이브더칠드런 아프리카 희망학교 프로젝트 | 35 | ₩285,000 | 기부액 |
| 4월 | 장애인의 날 맞이 중증장애인 생산품〈꿈드래〉 판매 | 206 | ₩3,592,000 | 총판매대금 |
| 4월 | 판매금 전액기부 _애스톤네이처 갈락토미세스 | 1000 | ₩11,600,000 | 기부액 |
| 3월 | WFP 콩고 난민캠프 식량 지원 | 82 | ₩740,000 | 기부액 |
| 2월 | 유기농 100% 이퀄 공정무역 초콜릿 판매 | 1010 | ₩9,999,000 | 총판매대금 |
| 1월 | 꿈의 노트 by 플래닛드림 판매 | 121 | ₩1,790,800 | 총판매대금 |
| 연중 진행 | 아름다운 노트북 100대 판매시 1대 기부 | 4400 | ₩17,556,000 | 기부액 399천원*44 |
| 총 합계 | | 29953 | ₩114,437,760 | |

| 2012년 | 소셜기부명 | 참여자수 | 금액 | 비고 |
|---|---|---|---|---|
| 12월 |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연말 따뜻한 나눔 | 27 | ₩215,000 | 기부액 |
| 12월 | 아름다운 노트북 100대 판매시 1대 기부 | 2000 | ₩7,980,000 | 기부액 399천원*20 |
| 11월 | 2012년 겨울, 달콤함 도넛 & 따뜻한 기부 | 166632 | ₩16,400,000 | 기부액 |
| 11월 | 우리밀 위캔쿠키 | 3049 | ₩9,604,350 | 총판매대금 |
| 10월 | WFP 케냐 학교급식 지원 | 136 | ₩1,360,000 | 기부액 |
| 9월 |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 초콜릿&코코아 | 355 | ₩2,794,500 | 총판매대금 |
| 8월 | WFP 아프리카 사헬 긴급구호 기부 | 255 | ₩2,345,000 | 기부액 |
| 7월 | 바리의 꿈 청국장 된장 4종 | 34 | ₩284,550 | 총판매대금 |
| 6월 | 쿠키트리 수제쿠키 5종 | 520 | ₩653,800 | 총판매대금 |
| 5월 | 공기좋은 치아파스의 맛있는 커피 | 229 | ₩1,142,700 | 총판매대금 |
| 5월 | 아름다운 가게 – 초콜릿 | 1875 | ₩8,814,000 | 총판매대금 |
| 4월 | 소셜기부 위캔쿠키 | 88 | ₩2,483,360 | 총판매대금 |
| 3월 | 영양만점 '세하앤 약초쿠키' | 289 | ₩2,734,830 | 총판매대금 |
| 2월 | 자연의 선물, 아름다운 커피 드립백 | 291 | ₩6,124,800 | 총판매대금 |
| 2월 | 우리밀로 만든 유기농 스택, 추억의 과자 | 273 | ₩3,878,600 | 총판매대금 |
| 1월 | 공정무역 유기농 인증 아라비카 커피 | 139 | ₩2,916,000 | 총판매대금 |
| 1월 | 달콤한 나눔, 정직한 핫초코 | 715 | ₩11,109,000 | 총판매대금 |
| 총 합계 | | 176907 | ₩80,840,490 | |

고객과 파트너사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소셜기부'가 지속 가능한 티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게 됐고, 향후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티몬의 신현성대표(오른쪽)과 직원들




성북구 소외계층 난방지원 후원금 전달을 위해
가정을 방문한 티몬 직원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및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개발 추진해 국민들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①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총 48회)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이하, 온누리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온누리 캠페인은 전국 장애인·아동·노인 시설 등 IT 취약계층인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무료 PC청소, 보안점검, 백신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경기도청·안랩,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관들과 민·관 협약을 체결, 협약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들과 결합해 KISA만의 '온누리 캠페인'에서 지역사회 협업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6개 권역(서울, 전남, 인천, 충남 등), 11개 대학교(전남대, 가톨릭대, 백석대 등) 대학정보보호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48회(봉사자 194명, 보안점검 PC 533대)의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방 이전 예정 지역인 나주를 총 4회를 방문해 전남대, 조선대 등 해당 지역 대학생들과 지역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온누리 캠페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쳐,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무료 PC보안점검 · 백신 설치 및 PC 청소

### ②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총 23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은 기관차원과 개별 부서차원으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노인·아동 복지기관 등에 생필품과 도서 기증, 독거 어르신 배식 봉사, 연탄 나르기, 헌혈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활동은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체봉사로 진행됐다.



연탄 나르기




노사공동

더불어 지역사회와 보다 밀착된 사회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별 사회공헌리더를 선정, 부서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배식 봉사, 음식 만들기, 환경미화, 장애우 학습 체험, 소외계층 어린이 현장 학습 등 총 23회 걸쳐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으며 도움이 필요로 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부서별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사회공헌리더들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사회공헌활동 시 협조사항들을 서로 공유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관·부서 차원의 봉사활동 외에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송파구 석촌 골목 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어버이날 어르신 세족식



추석 맞이 송편 만들기

### ③ KISA 행복나눔단 출범

2013년 8월, 인터넷·정보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KISA 행복나눔단이 출범됐다.

KISA 행복나눔단은 출범 이후, 복지시설 PC 보안점검과 백신 설치 등 기관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인'온누리캠페인'과 독거 어르신들과'인터넷 세대공감'을 위한 인터넷 효(孝)앨범을 직접 제작·기증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송파 지역)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의 연탄 나르기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앞으로 KISA 행복나눔단은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 봉사 등 참신하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위해 더욱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나눔단 발대식 및 활동

##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창설된 청소년 단체인 '한국인터넷드림단(idreamstr.kr)'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단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사회활동 및 인터넷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단원들은 인터넷윤리교육을 수료한 이후 아름답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캠페인, 선플달기 운동, 인터넷효앨범 제작 등에 참여하고 있다.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


인터넷윤리교육

### ① 인터넷효앨범 제작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인터넷을 통한 세대공감'이란 주제로 학교별 인터넷동영상앨범제작 교육 후, 주변 지역의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동영상 앨범을 제작해 전달해 드리는 지역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앨범 제작과정을 통해 단원들과 어르신들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효앨범제작


인터넷효앨범제작

### ② 소외계층 지원

한국인터넷드림단의 일부활동은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기초수급대상 단원을 대상으로 캠프활동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 산간 지역 단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인터넷윤리교육 및 잡월드 체험 지원 등 다양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잡월드 탐방 지원



찾아가는 윤리교육

# 부록 :
# 인터넷 나눔마당



# 인터넷 나눔마당 8호

## 소프트웨어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 NHN NEXT 학교가 만들어 갑니다.

*"교육은 제조과정이 아니라 농사의 과정입니다. 학생은 이미 어떤 열매를 맺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의 종류는 서로 다릅니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그 다양성을 획일화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농부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NHN의 'NEXT' 학교가 지난 1월 새롭게 한국 IT의 메카로 떠오르는 경기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 문을 열었다. 수시 및 정시전형을 거쳐 선발된 90명으로 첫 입학식을 치룬 넥스트는 산업 수요에 맞춰 제조하듯 인재 양성을 외치는 기존 고등교육기관과 달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가치로 실현시키는 공간을 목표로 세워졌다. 김평철 학장은 이 같은 넥스트의 설립 철학을 소설 〈연금술사〉에 비유해 설명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신의 신화', 즉 Personal Legend를 찾아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넥스트에서) 자신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돌을 깨는 석공이 100번의 망치질로 돌을 깼을 때, 돌을 깬 것은 마지막 100번째의 망치질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99번의 망치질 때문이었습니다. 99번의 망치질에도 깨지지 않은 돌에 100번째 망치질을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데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될 것이고, 넥스트의 선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넥스트의 교육과 커리큘럼은 기존 고등교육과 비교하면 혁신 그 자체다. 실제, NHN이 넥스트를 설립한 배경에는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커리큘럼과 교수진, 강의방식을 만들어보았지만 이를 받아들일만한 대학이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개강에 앞서 학생들에게 넥스트의 철학과 제도, 전공을 이해시키기 위한 '북 캠프'를 연 것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교육을 진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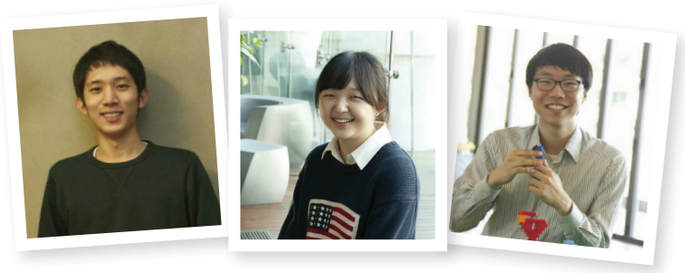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NEXT는 교육의 본질이 '학생들의 배움'에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의 개발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역시 제대로 된 배움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수업 역시 현장과 동일한 학습 환경에서 전문가와 함께 만든 커리큘럼을 통해 실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배움을 위한 NEXT의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생의 다양성 존중과 배려가 그 정점에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NEXT의 철학이다. NEXT의 한 교직원은 "학생들이 자라온 환경과 배움의 방식,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꿈도 각양각생입니다. 이러한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고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NEXT에서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 타 학기의 과목을 개설하거나, 언제나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휴먼 디자인 프로젝트'란 특별한 수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NEXT는 이 같은 모든 제도에 유효기간을 둬 학생들의 배움에 얼마나 그 제도가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 NEXT 입학생 인터뷰

"NEXT의 가장 큰 매력은 저처럼 소프트웨어에 관심만 있는 문과 학생도 공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는 거였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교양으로 들을 수 있지만 확실히 전공자랑 차이가 생기잖아요.

NHN의 NEXT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에겐 기회가 없었을 텐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어요. 유일하게 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앞으로 쉬운 인터페이스에 개성이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미래의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시험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맘껏 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임을 만드는 걸 꿈꿔요."



고등학생 대상

## ‘NHN NEXT 소프트웨어 창의체험활동’

NHN의 NEXT 학교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가 지니는 무한한 가치와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NEXT 소프트웨어 창의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들어내는 방법과 이를 맞이하는 자세를 함께 고민한다. 지난해에는 3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올해도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총 4회의 창의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NEXT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은 지식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엄격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식을 함께 탐구해 나가는 살아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라며 “NHN의 NEXT는 학생들과 교수 모두 함께 발전해나가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참여자 인터뷰

“제대로 된 컴퓨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늘 아쉬웠었어요. 잘 알지 못했던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식들과 여러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도 없는 상태였고 이쪽 분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까지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편견이 사라지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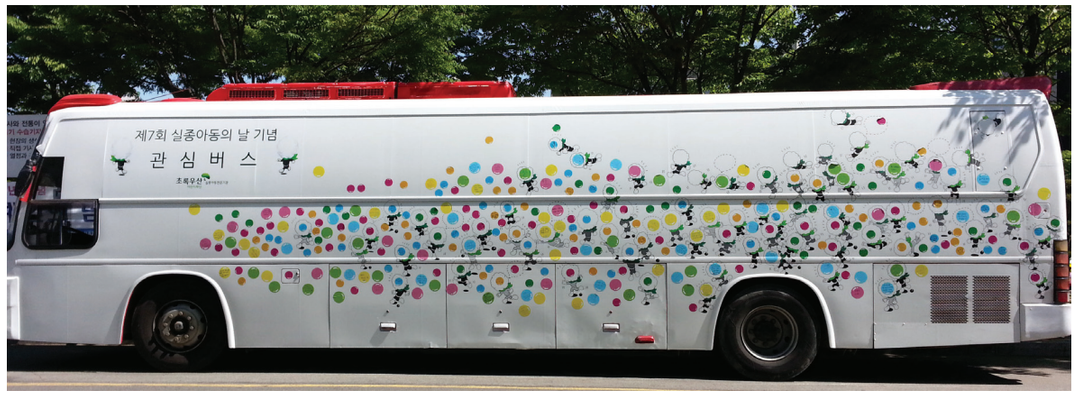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지니는 가치와 비전을 정확히 알게 돼 정말 좋았어요. 특히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들어 보아서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된 활동이었어요.“



SK컴즈

# 인터넷 나눔마당 9호

## SK컴즈의 ‘사이좋은세상’ 실종예방캠페인




###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품은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들은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있었던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복의 달이다.

반면,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 더욱이, 오랜 시간 실종·유괴 등으로 아이를 잃어 애태우는 실종아동가족들에겐 이 기간이 더없이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들이 아닐 수 없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처럼 실종아동으로 고통 받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2010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과 함께 사회공헌플랫폼인 싸이월드 ‘사이좋은세상’을 통해 매년 예방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 “아차 하는 순간, 5월의 슬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발생한 실종이동 신고건수는 1만1천425건. 이로 인해 자녀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힘겹게 생활 중인 장기 실종가족은 166명에 달한다.

특히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되기까지의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 순간의 방심으로 누구나 실종이동가족이 될 수 있다. 일단, 아동이 실종되면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종예방교육이다.

이를 위해, 사이좋은세상은 2011년 미아·유괴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용 퀴즈 플래시를 제작, 엄마·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함으로써 아동 실종에 대해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짧은 순간의 방심으로 아이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실종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부모들이 실종예방 팔찌 도안을 다운로드해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동 실종 없는 행복한 세상, 예방이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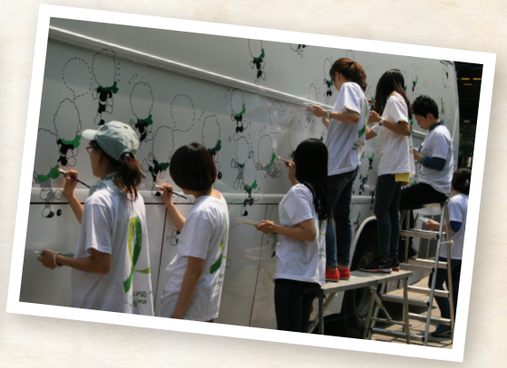
특히, 올해에는 기존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에서 벗어나 실종 및 유괴는 더 이상 어느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해결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서울 거점을 중심으로 관심버스를 운행 중이다.

관심버스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님의 디자인 기부로 뜬구름 천사라는 캐릭터가 그려진 버스를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버스 외관을 완성해 가고, 실종가족들에 대한 희망 메시지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사이좋은세상은 관심 버스 운행 취지 및 운행 일정 등을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를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참여유도를 위해 관심버스 인증샷을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에 올리기, 실종가족에 대한 희망댓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 및 실종예방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사이좋은세상은 앞으로도 실종예방 및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그리움이 더하는 5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종, 유괴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 인터넷 나눔마당 10호

## 힘내라 대한민국 20대!



G마켓 청년봉사단

## GLOVE

‘GLOVE’는 G마켓을 의미하는 G와 LOVE의 합성어로, 봉사를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G마켓 봉사단을 의미하며 그 동안 해외 지역 파견 봉사 중심이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면서 국내 지역 봉사도 포함해 운영

G마켓이 매년 운영해 오고 있는 ‘G마켓 해외봉사단’을 올해부터 ‘GLOVE’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꾸고,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GLOVE’ 20기를 모집했다.



이번 ‘GLOVE’ 20기는 국내에서도 좋은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해외와 국내 각각 100명씩 나눠 모집하며, 국내 봉사단의 경우 총 50명을 선발하고, 외국인 50명을 초청해 국내 산촌분교 및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GLOVE 해외 봉사단은 20명씩 5개 팀으로 구성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총 5개 국으로 각각 파견하며 G마켓이 파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전 참가자에게 봉사활동확인증을 발급 및 우수 단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G마켓 마케팅실 김소정 상무는 “G마켓 대표 후원 프로그램인 해외봉사단을 올해부터 ‘GLOVE’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꾸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기존 해외 파견 봉사 외에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는 국내 봉사 등 활동 내용이 더욱 다양해진 만큼 2030세대의 좋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 G마켓




**G마켓의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인 “밥은 먹고 다니냐”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전국 20개 대학의 학생식당과 제휴를 통해 식권값의 50%를 G마켓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0년에 처음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식비를 절감할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G마켓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500원짜리 식권 4장(1세트)을 반값인 5000원에 판매하였고 총 1만 세트를 준비했으며 20개 대학중 19개 대학에서 판매완료가 되었다.

G마켓의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한 응원은 계속될 예정이다.

## 3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지마켓이 월드비전과 함께 동전을 모아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 하였다.‘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은 ‘사랑의 빵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교육지원, 식수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는 나눔 행사로 전국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각 매장 등 곳곳에 약 210만개의 저금통을 배포하였다.

배포된 저금통을 모아 5월 3일부터 5일까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형 동전밭을 만들고 나눔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 약 50만 명이 동전 모으기에 참여 했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사장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은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나눔 행사”라며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인 만큼 올해도 많은 분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하였고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저금통을 무료 배포하였다.

지마켓은 지난 2010년부터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3년째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30만개의 저금통이 모았고 1000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약 50억 원을 모금한 바 있다.

올해는 사내에도 저금통을 배포하고 미니동전밭을 설치하여 임직원들의 참여의 의미를 더했으며, 직원들의 사랑의 동전밭 행사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임직원 가족 포함 30명이 당일 행사의 취지를 더하였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며 모으신 저금통은 언제든 월드비전 사무국으로 보내 면 된다.



## 희망하우스

나눔패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낡은 집 도배, 장판 교체로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재해 가구 주거개선 프로젝트







현황

1차 : 2013.02.22(금)~02.24(일) 까지 3박 4일 진행 / 충남 예산의 21가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00만원 기부
나눔패밀리 20명 선정 봉사 활동 진행

2차 : 2013.05.17(금)~05.19(일)까지 3박 4일 진행 / 충북 청원의 21가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00만원 기부
나눔패밀리 21명 선정 봉사 활동 진행



## 나눔박스

나눔패밀리 여러분이 생활중고품을 기증하여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한 후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캠페인

현황

2012년 12월 13일 오픈

프로세스 : 옥션에서 나눔박스 신청 〉 고객에게 나눔박스 무료로 배송 〉 고객이 나눔박스에 기증품 포장 〉 택배사 수거(무료) 〉 아름다운가게에서 재생산 〉 판매 〉 수익금 기부

나눔박스 신청자 : 1,348명 / 기부 참여 : 445명 기부 참여

1차 특별 기증전 : 2013.02.02(토) 옥션 나눔패밀리가 기증한 물품 1,220건이 판매되어
수익금 총 6,031,800원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 됨

2차 특별 기증전 : 2013.03.03(토)옥션 나눔패밀리가 기증한 물품 1,623건이 판매되어
수익금 총 7,217,600원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 됨

# 인터넷 나눔마당 11호

## 제3세계로 떠나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 '설레는 휴가'



## 8년간 이어온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설레는 휴가'

지난 2006년부터 Daum 임직원 기부금으로 제3세계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 '지구촌 희망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자원봉사 '설레는 휴가'는 매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구촌 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문화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덧 벌써 8번째를 맞이 하고 있는 '설레는 휴가', 2013년에는 이미 3월에 7호 희망학교인 라오스 하이캄 초등학교로 다음인이 다녀왔다. 벽화그리기, 교실환경미화, 비누방울놀이, 티셔츠 페인팅, 마술, 태권도시범 등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이다.





그리고 올해의 두 번째 '설레는 휴가'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8호 타지키스탄 희망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타지키스탄 아이를 만날 10명의 다음인이 모두 결정되어있는 상태. 평소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음인, 현지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후원을 하고 있는 다음인, 공연·디자인 등 뛰어난 특기가 있는 다음인 등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타지키스탄 '설레는 휴가'의 출발까지는 아직 두 달이 넘게 남았지만, 이미 프로그램 준비가 한창이다. 현지의 문화, 조건, 정서 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획하여 현지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설레는 휴가'는 무더위, 불편한 잠자리, 낯선 음식, 예상치 못한 변수 등으로 유명하다. 또한 참가자 모두 개인휴가를 사용하여 참여하고,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도 내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해마다 많은 신청자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선발된 사람들은 입사시험에 합격했을 때만큼 기뻐하며, 많은 이들이 참가자를 축하해주고 또 부러워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10호를 바라보는 지속성, 1회성 이벤트가 아닌 3년간의 장기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다음인의 꿈과 희망으로 성장하고 있는 '설레는 휴가', 10호 20호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10년 뒤에도 오늘의 인터넷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면.."

e하루616 캠페인은 지난 2004년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들이 "그날의 인터넷"을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다음세대재단과 정보 트러스트 운동에 뜻있는 네티즌, 전문가들이 함께 매년 6월 16일의 인터넷을 기록하는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2012년부터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이트를 네티즌과 전문심사위원의 참여를 통해 선정하는 'e하루616 디지털 유산 어워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로 Mobile, People, Social, Like, Life, Work, Friend, Issue 등 총8개 영역에서 무려 5,321개의 사이트가 수집되었으며 'e하루 616 디지털 유산 어워드'에는 총44개의 추천된 사이트 중 네티즌 추천과 전문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본상" 3개 사이트와 "네티즌 인기상" 1개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본 상 수상작인 '대한민국 현대 미술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akive.org)'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내 현대 미술 작품들의 디지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니아DB(http://www.newstapa.com)'는  순수한 음악수집가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로 앨범음악의 가치있는 재발견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애니멀파크 (http://www.animalpark.or.kr)'는 개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 2천여종의 생생한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네티즌의 투표결과에 따라 선정되는 네티즌 인기상은 웹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탐사 보도로 많은 네티즌의 공감대를 형성한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가 수상했다.








# 인터넷 나눔마당 12호

## 체험, 현장속으로~
##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 게임직업체험 캠프 커리어퀘스트




올해로 시즌4 진행,
현업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청소년 이끌어




지난 7월 25일과 26일, 그리고 8월 1일과 2일에 진행되었던 커리어퀘스트는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이사장 나성균)이 사회적기업 노리단과 함께 네오위즈게임즈, 블레스 스튜디오 등 계열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게임직업체험 캠프다. 참여자들은 직접 게임을 기획해 볼 뿐만 아니라 현직에 근무중인 직원들을 멘토로 삼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모집 공고가 뜨면, 기본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선택된 참여자들은 첫 날 어색함을 덜고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는 다양한 게임을 즐길 뿐 아니라 조를 나눠 회사를 세우고 게임을 기획해야 한다. 기획한 게임은 이튿날 네오위즈게임즈에 방문해 게임 개발자, 디자이너, 인사팀, 마케터 등 현직 종사자들에게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다.

물론 발표하기 전에 멘토들의 강의는 기본이다. 게임이 서비스되기 위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을 배울 뿐 아니라, ▶직업의 의미 ▶회사의 인재상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 팁 등은 덤으로 가져간다. 강연 후 더욱 정신 없는 참여자들, 본인이 발표할 게임을 좀 더 완벽히 만들기 위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료도 손본다.

## 네오위즈










청소년들은 또래가 만든 게임에 대해 서로 감탄하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동한다. 본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경험이 쌓인 멘토들이 살짝 수정해 준다. 작은 충고, 소소한 의견 하나가 아이들에겐 소중하다. 게임을 즐기는 자에서 만드는 자로 변화하는 것은 순간이다. 감동 하는 것은 멘토들도 마찬가지다. 창의적인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발표 앞에 누구보다 진지해진다. 앞으로 동료로 후배로 만날 날도 기대해 본다.

시즌4 1회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을 받아 1박 2일 단체 숙박도 진행했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각 조마다 투입된 대학생 멘토들의 염려와 달리 아이들은 발표할 게임을 손보느라 하얗게 밤을 새우기도 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한, 커리어퀘스트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예정이다.

##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배우고 착한 기업 꿈꿔요!
##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 청소년 소셜벤처 탐험




지마켓이 월드비전과 함께 동전을 모아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 하였다.'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은 '사랑의 빵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교육지원, 식수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는 나눔 행사로 전국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각 매장 등 곳곳에 약 210만개의 저금통을 배포하였다.

배포된 저금통을 모아 5월 3일부터 5일까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형 동전밭을 만들고 나눔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 약 50만 명이 동전 모으기에 참여 했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사장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은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나눔 행사"라며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인 만큼 올해도 많은 분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하였고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고객에게도 저금통을 무료 배포하였다.
지마켓은 지난 2010년부터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3년째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30만개의 저금통이 모았고 1000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약 50억 원을 모금한 바 있다.
올해는 사내에도 저금통을 배포하고 미니동전밭을 설치하여 임직원들의 참여의 의미를 더했으며, 직원들의 사랑의 동전밭 행사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임직원 가족 포함 30명이 당일 행사의 취지를 더하였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며 모으신 저금통은 언제든 월드비전 사무국으로 보내 면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0개의 동아리는 각자 활동을 별도로 지원받을 뿐 아니라, 전체 참여자가 모여 '솔루션 워크숍'을 실시해 서로의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기도 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커뮤니티를 강화하기도 한다.





7월에만도 각 동아리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내 바자회를 개최하고 ▶말기 암 환자 지원을 위해 아로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으며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캠프를 개최하고 ▶지역 전통 시장을 찾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는 등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졌다.

8월 31일에는 동아리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중간 점검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사회적기업가 지원단체인아쇼카 한국의 이혜영 대표의 강연도 듣는 '모여라 LTE(Let's Talk, and Encourage each other)하자!'도 실행될 예정이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 되는 9월에는 다시 한번 모여 지금까지의 진행된 상황을 발표하는 대회도 개최된다.

이웃과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착한 기업가 육성, 청소년 소셜벤처 캠프가 그 씨앗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인터넷 나눔마당 13호

## 티몬다운 생각, 티몬다운기부…
## 티몬SO speCIAL GIVE

'소셜기부 (SO speCIAL GIVE)'는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으로, 홍보가 절실하나, 현실적으로 수수료 지급 또는 제품 할인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 티켓몬스터의트래픽을 활용한 판매와 홍보 채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티몬에 올라오는 여타 상품들처럼 '소셜기부'도 티몬을 홍보 채널로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쓰이고, 티몬 역시 상품을 판매한 대가 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이다.




###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티몬 '소셜기부'

티켓몬스터가 탄생한 지 1년 째 되던 해 연말을 기점으로티모니언들은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론은 우선 첫째, 연말에 남들이 다 하는 형식적인, 생색내기 식의 기부 프로그램 말고, 깨어있는 젊고 쿨한젊은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만든 '티몬다운'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살린 '티켓몬스터'만의 차별화된 기부 방법을 활용하자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즐거운 기부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탄생하게 된 '소셜기부'의 주요 특징은: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기부 프로그램이며, 티몬만의 플랫폼과 티모니언들의'재능'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꾸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돕자는 것이다.

기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봉사/기부'의 참된 의미를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티몬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컨텐츠 에디터들, 포토그래퍼들, 컨텐츠 디자이너들이 많다. 많은 분들이 재능을 기부해주고 있으며, 그 재능을 갖고 홍보 채널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2월,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핫초코 상품을 첫 '소셜기부'딜로 시작해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들과 사회적 기업에서 출시한 디자인 상품 등을 월 1회 판매하고 있다. 티켓몬스터는'소셜기부'를 통해아름다운가게, 위캔센터, 샘 크래프트, 위누, 온바로 등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WFP (세계식량기구),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내/외 유명 인도주의 기관들과 함께 총 39회의 소셜기부딜을 진행했고, 그 동안 무려 26,216명의 고객이 이에 참여했다.

티몬과 가장 많은 딜을 진행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연을 맺어온 두 단체, 아름다운가게와위캔센터와의'소셜기부' 사례를 보면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2010년 12월에 진행된 '소셜기부' 첫 딜을 포함, 총 12회의 딜을 함께 진행했다. 공정무역 상품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 딜 진행 시 같은 상품이 아닌 커피, 초콜릿, 과자, 홍차 등 다양한 품목들로 진행했고, 이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ticketmonster







첫딜이었던 '핫초코' 딜은 무려 907명이 참여해 총 1천3백 만원이 넘는 기부액을 기록했다. '소셜기부'를 통한 좋은 성과 덕에 신제품 출시 때마다 티몬을 통한 0원 딜과 사내 시음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또한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위캔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드는 곳인데, 여태까지 티몬과총 4회의 딜을 함께 진행했다. '소셜기부'를 통해 위캔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고, 우수한 국산재료로 만든 좋은 품질의 쿠키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매 진행마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협력에서 벗어나 현재는 티켓몬스터 사내 직원 봉사활동, 사내 판매전 등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티몬은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그들을 티몬 고객들에게 선보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티몬 플랫폼을 활용한 딜 진행 외 티켓몬스터 사내 직원들의 오프라인 후원 활동 등으로 연결시켜 나갈 예정이다.



대부분의 공익적 상품들이 그 상품이 가진 가치에도 불구하고 판로를 찾지 못해 소비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티몬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익적 상품을 만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할인율은 크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부, SO speCIAL GIVE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셜기부'의 목표다.




## 쇼핑만 해도 자동으로 '기부천사'!
## 티몬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착한 쇼핑

티켓몬스터는 지난 4월 진행한 화장품 제품의 딜 판매 전액인 1,160만원을 파트너사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착한 쇼핑'을 통한 기부액이 6개월 만에 5천 만원을 돌파했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기부로 이어지는 착한 소비형태의 '쇼핑기부'딜이티몬 플랫폼을 통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티몬의'쇼핑기부'딜은 가장 소셜커머스다운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판매 성과 또한 좋아 지속적으로 많은 파트너들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업체 '여우무기'는 자사의 인기 에센스 제품인 '애스톤네이처갈락토미세스'를을 강반기까지티몬에 단독으로 총 5회에 걸쳐 판매한 바 있으며, 전 회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기부의 의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쇼핑기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취지가 더해져 준비된 1,000개의 물량은 단 2일만에 완판됐다.




애스톤네이처 갈락토미세스의
판매금을 티몬과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에 전액 기부합니다.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애스톤네이처 고객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적, 종교,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기관으로, 아동권리옹호, 보건의료, 아동발달, 아동보호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티몬의'쇼핑기부'딜의첫 사례는 작년 11월 중순 HP, AMD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아름다운 노트북'딜이다. 노트북 100대가 판매될 때마다 40만원 상당의 동일 기종 노트북 1대를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는 형태다.시즌 2까지 총 46대의 노트북이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되었고, 올 5월경 진행된 시즌 3 역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기부된 노트북은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IT 환경을 구현하는데 지원되어 어린아이들의 정보습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크리스피크림도넛은 작년 11월 말, 판매 건당 100원을 기부하는 'Share The Love 산타가 되어주세요' 딜을티몬과 함께 진행해 약 1,640만원을'함께 하는 사랑밭'에 전달,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 노인을 돕는데 사용했다.

티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셜기부'와 더불어 '쇼핑기부' 역시 파트너사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티켓몬스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인터넷 나눔마당 14호

게임의 순기능 '소통'으로 전달한다
## 게임문화선도기업 'CJ E&M 넷마블'




### 게임을 통해 소통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 〈장애없는 세상·아이들의 미래·가족과의 소통 등 3가지 테마로 활동〉

CJ E&M 넷마블은 게임업계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마블은▲장애없는 세상 ▲아이들의 미래 ▲가족과의 소통 등 세 가지 테마의 온·오프라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장애없는 세상'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마음의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중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게임여가문화체험관, 게임내 장애우 돕기 캠페인 등이이에 해당된다.
'아이들의 미래'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튼튼한 체력과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지역청소년 진로교육 강연회, 전국 공부방 야구교실, 게임 문화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부모게임문화교실, 게임문화체험존등'ESC프로젝트(onE Step Closer to family)'를 진행하는 '가족과의 소통'은 부모와 아이의 벽을 허물고 더 나아가 게임을 통해 서로를이해하고화합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 'CJ 나눔재단도너스캠프'와 연계, '전국 공부방 지원 사업'등의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내 임직원 봉사단이 정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및 기부에 나서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출동 마블캅스'프로그램을 통해, 실종아동찾기,장애인 긴급지원 SOS, 불법거래신고센터로 건강한 PC방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제한 등의 '자녀사랑'서비스로 건전한 게임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게임이라는 업의 특징을 살린 색깔 있는나눔활동은넷마블을 게임업계 사회공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지난 해에는 게임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인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했다.

## CJ E&M 넷마블

### 2013년 핵심 프로그램

### 〈장애인e스포츠대회, 학부모 게임문화교실 등 '넷마블'만의 특화된 '소통' 프로그램 지속〉

넷마블은 2013년에는 특히 장애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넷마블은 2009년부터 5년째'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를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장애아동들의 '온라인 올림픽'으로불릴 만큼 대표적인 문화활동프로그램이자 장애학생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로자리잡았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ESC(onE Step Closer to family)프로젝트를 기획,2011년부터 국내 게임기업 최초로 진행중인 학부모 게임교실을진행중이다.올해는 작년 대비 2배 확대해 총 70회 5,0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외 청소년 게임문화캠프, 가족 게임문화캠프를 개최하고, 게임문화체험존을 용산에 위치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조성해 '게임'을 통한 가족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을 매개로 가족간 공감대를 형성해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장르와 이용동기, 게임 속 문화 등을 이해하고 게임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져 부모와 아이의 '벽'을 허무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주요사업

1) 장애없는 세상
- 게임여가문화체험관 구축 : 전국 특수학교 멀티기기, 온, 오프라인 게임기부, 2008년부터 매년 구축, 현재 25개소 구축.
-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 개최 : 장애학생 신체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진흥 2009년부터 매년 1,700명 이상 장애학생 및 교사 참여

2) 학부모 게임교실 ESC 프로젝트
- 학부모 게임교실 : 전국5,000명이상, 70회 (교육청, 미디어센터 연계)
- 청소년 게임캠프 : 총 150명, 2회 (게임 직업탐색, 게임창작 워크숍)
- 가족 게임문화캠프 : 총 150명 참여, 1회 (가족소통 RPG 롤플레잉, 가족 게임기획, 가족화 그리기 및 발표회)
- 가족게임문화체험존: 상시 오픈, 매월 2회 게임 강연 진행

3) 게임연계 캠페인
- 다함께차차차 : 사랑의 타이어 캠페인_국내 최초 카카오톡게임하기를 통한 이용자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누적된 타이어 개수에 따라 연세재활학교 장애학생들에게 전동 휠체어 기부
- 다함께퐁퐁퐁 : 사랑의 발도장 캠페인_ 이용자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누적된 발도장 개수에 따라 길고양이 치료기금을 고양시캣맘협의회에 전달
- 모두의마블 : 천사카드 캠페인_이용자 참여형 재능봉사 캠페인으로 넷마블 임직원 및 모두의마블 이용자들이 국내외로 입양되지 못한 임시보호 위탁가정 아동을 위해 게임에 등장하는 주사위 모양의 DIY키트를 직접 만들어 전달



###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트렌드

## 넷마블, 이용자와 함께하는 나눔봉사




게임업계 사회공헌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CJ E&M 넷마블(이하 넷마블, 부문대표 조영기, www.netmarble.net)이 나눔활동의 범위를 스마트 세상까지 확대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1월'카카오 게임하기' 게임 중 최초로 이용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다함께 차차차 사랑의 타이어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용자들이 친구에게 보낸 타이어 누적 개수에 따라 교통 약자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한 달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총 2,000만원에 기부금이 누적됐으며 넷마블은 기부금을 연세대 재활학교에 전달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의 전동휠체어 및 보행보조 의료 기구 구매 등을 지원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에브리넷마블 스마트나눔 2탄으로 '다함께 퐁퐁퐁사랑의 발도장 캠페인'을 실시해 이용자 참여형 나눔활동에 저변을 넓혔다.

고양시캣맘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이 캠페인은 이용자들의 게임 참여에 따라 누적된 기부금을 유기고양이들의 치료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넷마블은 장애학생과 유기동물 지원에 이어 최근'모마 천사카드 캠페인'을 진행하며 에브리넷마블 스마트 나눔 활동의 지원대상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유아까지 확대했다.

9월 25일부터 한달 간 진행한 '모마 천사카드 캠페인'은현재 국내외로 입양되지 못한 2~3세 위탁가정 보호아동들에게 〈모두의마블〉 이용자와 함께 게임에 등장하는주사위 모양의 DIY장난감을 만들어 보내는 이용자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모두의마블〉 이용자와 넷마블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 모집 첫 날 모집 대상자 300명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인 바 있으며 넷마블 임직원 봉사대도 이와 같은 나눔 열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에 합세하게 됐다.

넷마블은 '모마 천사카드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cjgames)에 '모마 천사카드 캠페인 인증샷 콘테스트'를 지난 10월 20일까지 진행했으며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후기와 훈훈한 참여 인증을 남겼다.

넷마블 조영기 부문대표는 "이용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 새로운 나눔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게임의 순기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넷마블 공식블로그〉(http://blog.netmarbl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나눔마당 15호

광고로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꿈꾸다.

## 얼라이언스인터넷의 'Eco AD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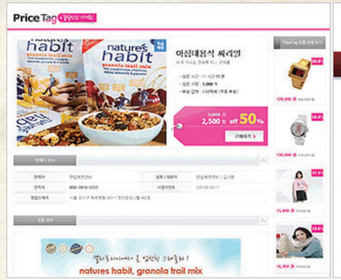

### Visual 〈 인터넷생태계 일러스트 〉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는 방법에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상생의 방법도 존재해야 한다. ㈜ 얼라이언스인터넷은 2011년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에 상생의 중요성이 이슈화되며 발족한 상생협의체의 실천 계획 중 하나로 NBP(Naver Bsuiness Platform), 나스미디어, 씨디네트웍스 등이 투자에 참여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인터넷 대기업과 중소 기업들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양질의 콘텐츠를 가진 대한민국 중소매체에 네이버 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첫번째 'Eco AD Project'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4월, 얼라이언스인터넷은 2년간 개발한 배너광고플랫폼 "V2"를 런칭하며 인터넷중소매체에게는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을 제공하고, 광고주에게는 좀 더 다양한 매체에 간편하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얼라이언스인터넷는 80여개 인터넷중소매체에 수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수익은 많은 인터넷 중소기업들에게 본연의 콘텐츠에 좀  더 집중하고 자체 서비스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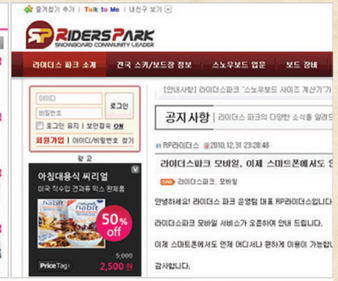
### 〈 배너 광고로 상생을 실천하다. PriceTag 〉

많은 소상공인들은 사업규모가 작아 광고 및 홍보는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엄두를 내어 온라인광고를 하려고 해도 변변한 자사 쇼핑몰도 없고, 큰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지도 못한 상태라면 랜딩페이지(광고를 클릭 한 후에 보여지는 광고주의 프로모션페이지)가 없어서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지난 7월 팔 물건은 있으나 적절한 판로가 없고 랜딩페이지조차 없어 온라인광고를 할 수 없는 소상공들을 위해 'PriceTag'라는 광고 상품을 출시했다. 'PriceTag'는 광고주가 배너광고와 함께 간편하게 상품 내용과 가격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판매페이지까지 만들어져서 즉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게다가 물건이 판매됐을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과금체계를 적용함으로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익 없이 광고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광고노출은 무료여서 광고 홍보를 우선해주고, 판매되었을 경우 수수료를 받는 과금 방식인데 수수료도 광고주가 직접 정할 수 있게 했다.

얼라이언스인터넷이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과금체계를 지닌 광고 상품을 서비스하는 이유는 중소매체를 위해서는 중소광고주들 즉,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 라는 판단에서이다. 먼저 소상공인 광고주들에게 인터넷중소매체의 좋은 광고상품을 제시하고 효과를 본 광고주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중소매체에 광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것이 인터넷생태계를 살리는 궁극적인 선순환을 만들 것이란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Price Tag 쇼핑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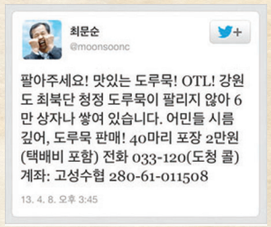


V2와 제휴된 매체사의 컨텐츠 페이지에 송출되는 상품 베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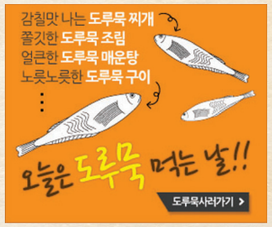
### 〈 배너 광고로 나눔을 실천하다. 고성군 어민 도루묵 팔아주기 프로젝트 〉

2013년 V2 오픈시 강원도 고성군 어민들이 추운 겨울 바다에서 애써 잡은 도루묵이 팔리지 않아 냉동 창고에 무려 6만 상자에 쌓여 있다는 소식이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트윗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광고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어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강원도청과 연락해 배너 광고를 얼라이언스인터넷의 재능 기부로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어민들을 돕기 위한 좋은 배너 광고를 직접 제작하고 비용을 들여 얼라이언스인터넷 V2 플랫폼을 통해 V2와 파트너쉽을 맺은 중소인터넷 매체에 집행했다. 그 결과 1억2천회가 넘는 광고 노출과 이곳 저곳에서 뻗친 도움의 손길로 열흘 만에 8천 박스로 줄어들었다는 최문순 지사의 트윗을 볼 수 있었다. 작은 나눔들이 모이면 큰 힘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얼라이언스 인터넷만이 할 수 있는 광고 나눔이었으며 중소매체들의 광고효과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

상생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힘이다. 이미 성장하고 힘이 있는 쪽은 힘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를 돌봐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업의 리더로서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아직 힘이 부족하고 성장이 덜된 쪽은 스스로 충분한 자생력이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양쪽의 중간에 인터넷 대중소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과 인터넷 업계 상생을 도모하며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꿈꾸는 회사, 얼라이언스인터넷이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V2 플렛폼을 통해 송출된 강원 도루묵 홍보 배너



NAVER

# 인터넷 나눔마당 특별호

네이버가 시작합니다

##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




### 네이버가 NHN NEXT학교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게임만 하던 아이가 역사책을 펼쳐 스토리를 구상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 폰만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가설을 세워가며 앱을 설계합니다.
재미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하지만어느새 책을 펴고, 논리를 익히게 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네이버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NHN NEXT 이민석 학장입니다. 네이버가 NHN NEXT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선 이번 겨울 방학에 초등학교 몇 군데를 정해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차츰 그 대상을 중·고교까지 넓혀가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 깊숙이 와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늘 어딘가에 연결됨으로써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따뜻함과 감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또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미 존재하던 것들과 어울려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 NAVER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뛰어난 문제 해결 도구이기는 하지만, 모든 주제가 그렇듯이 누구에게나 소프트웨어가 가장 재미있고도 편한 도구는 아니며, 소프트웨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자체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능력이 우선입니다.



### 아이들은 놀면서 배웁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문제를 스스로 찾고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에 가장 적합한 방법 일 뿐만 아니라한발 더 나아가 상상한 것들을 현실화하는 성취감을 줍니다.꿈꾸는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경험을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진정한 배움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어진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르고, 그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교육 환경은 아이들과 사회를 위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네이버와 NHN NEXT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는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나, 아이들이 상상하던 것을 구체화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주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문제로 만들어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조그만 성취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적어도 몇 명에게는 소프트웨어가 꽤 멋진 문제해결 도구라는 기억이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더 커서 엄청난 것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점점 더 소프트웨어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학생들을 지도 및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멘토인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전문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경험하고 그 가능성을 느끼며, 그 느낌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그 효과를 더하고 또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은 한두 개의 기업이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선생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개발자들에게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조금 앞쪽에 네이버와 NHN NEXT가 서겠습니다.

### 2013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경기도 초등학교 3개를 선정, 해당 학교 학생들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3~6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 3,4학년 | 컴퓨터 이야기책 만들기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를 통해 친숙한 동화 스토리를작게 분해하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익히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요

* 스크래치란? 아이들이 상상한 스토리를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조립하여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래밍 도구

| 주차 | 회수 | 수업내용 |
|---|---|---|
| 1주차 | 1회 | 캔자스 드넓은 초원, 갑자기 불어오는 회오리바람 |
| | 2회 | 뭉크킨 나라에서 난쟁이들과의 만남 |
| | 3회 |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
| | 4회 | 여행 게임 :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와의 여행 |
| 1주차 | 5회 | 원숭이 잡기 게임 : 서쪽마녀와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
| | 6회 | 프로젝트 : 스토리 만들기 |
| 1주차 | 7회 | 프로젝트 : 만들어진 스토리에 따라 스크래치 제작 |
| | 8회 | 프로젝트 : 결과물 완성 및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기 |

#### 5,6학년 | 창의적 제작물 만들기

개방형 플랫폼 '아두이노'를 바탕으로 로봇, 자동차 등 움직이는 사물의 원리에소프트웨어가 사용됨을 알고 스스로 이를 적용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 아두이노란? 여러 장치들을 결합하여 통제 가능한 상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일보드

| 주차 | 회수 | 수업내용 |
|---|---|---|
| 1주차 | 1회 | 전등(LED)켜고/끄기 조절하기 |
| | 2회 | 버튼으로 전등(LED) 밝기 조절 |
| 1주차 | 3회 | 바람개비 만들기(서보모터 기반) |
| | 4회 | 사운드 크기 조절(기울기 센서/거리 센서 기반) |
| 1주차 | 5회 | 조에트로프(원통형 장치)를 이용한 움직이는 연속 그림 제작해서 보기 |
| | 6회 | 아두이노 보드로 컴퓨터 캐릭터 동작 제어 |
| 1주차 | 7회 | 종이를 이용한 버튼 조작 |
| | 8회 | 자동차 만들기 |

## 2014년,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

새해를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함께 우리의 소원도 '단단하게' 이뤄지길 희망하며.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온 다음의 대표적인 모금 플랫폼 '희망해'에서는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연말을 만들기 위한 여섯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누구보다도 추운 시간을 보냈던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하면서.






### 2013년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경기 침체로 인해 삭막해지는 사회를 따뜻하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2013년 희망해 캠페인. 올해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는 가족과 가정을 테마로 여섯 가지 모금이 진행됩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는 장면보다 따뜻한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은 '재소자 가정 할머니의 소원', 친구들과 함께 2학년에 올라가고 싶은 미연이의 치료비 모금을 위한 '다문화 가정의 소원.'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희망하는 김순자 할머니와 독거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르신 가정의 소원.' 7남매 민준이와 다자녀 가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의 소원.' '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 할 줄 아는 소년소녀 가장 설비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년소녀 가장의 소원' 엄마와 둘이 사는 진우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 가정의 소원'까지 오랜 시간 꺼내지 못하고 꽁꽁 숨겨두었던 가족들의 소원들이 따뜻한 대한민국을 통해 이뤄질 겁니다.
새해엔 따뜻한 대한민국을 통해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져 2014년을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해주세요.

### 기부방법 Chapter 1. 소원만 남기고 기부하기

"주변 사람을 통해 내 소원이 이루어졌던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그리고 좋은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희망해를 사랑하는 수많은 네티즌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빌어볼 뿐만 아니라 '착한 기부'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1. 새해를 마주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찬 2014년 꿈꾸기
2. 2014년의 소원을 빌어보기
3. 이 소원을 희망해 연말 캠페인 페이지에 남기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바로 천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네티즌이 연말 소원을 희망해 캠페인 페이지에 남길 때마다 다음이 1천원씩 소외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정에 희망을 선물하는 '착한 소원 남기기' 이벤트! 우리의 소원까지 함께 빌어보아요.

## 기부방법 Chapter 2. 마이피플 스티커 사용해서 1억 기부하기




우리의 소원을 스티커로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번 캠페인을 위해 네티즌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마이피플 '희망해' 스티커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전국민 소원 랭킹 TOP4. 대박나길 희망해, 연애하길 희망해, 다이어트 희망해, 취업하길 희망해 등 총 8종의 스티커를 통해 소원을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게다가 스티커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이피플 이용자가 하루에 8종의 스티커를 캠페인 기간 동안 매일 보낼 경우 최대 2만 5,600원까지 기부할 수 있답니다.
(이미지 링크 : http://hope.daum.net/campaign/yearend2013.daum )

## 기부방법 Chapter 3. SNS 공유로 기부하기




세상 모든 소원에 함께 하는 또 다른 방법은 SNS 공유를 위한 여러분의 '클릭'입니다. 기존 희망해 모금과 같이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SNS로 공유하면 Daum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연말 연시, 우리는 종종 한해를 마감하는 소감과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들을 SNS에 적어보곤 합니다. 그렇죠? 이 때,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 캠페인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 함께 이뤄지길 희망하면서 말이죠.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Daum캐쉬 등 직접기부는 물론 클릭, 스티커 등 Daum 기부금까지 네티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2013년, 대한민국의 온도는 지금, HOT!

가족,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살아가다보면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여섯 가정엔 지금 여러분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희망 댓글과 소원이 진우, 설비, 민준이, 미연이, 민혁이,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에겐 큰 힘입니다.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 캠페인은 2014년 1월 1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응원의 메시지'로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참 따뜻합니다.
2014년엔 동원오빠 님의 소원처럼
"세상 모든 소망,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ebay

## '행복한 나눔'과 G마켓이 함께하는 중고물품 기증서비스 Give마켓







비영리단체 기아대책의 '행복한 나눔'과 G마켓이 함께하는 중고물품 기증서비스인 Give마켓은, 물품순환(재사용품 기증)을 경험하고 기증품은 공익적으로 사용하여 감동,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Give마켓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 년 내내 중고물품을 기증받고 바자회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나눔의 가치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시 기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심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 시내 4곳의 대학교 캠퍼스, 경북 상주 축구장 및 공연장에서 현장 기증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거된 기부물품은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 '행복한 나눔'을 통하여 판매되며 이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해외식수 지원사업인 '1리터의 생명'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쓰는 물건 기부하고, 필요한 물건 초특가로!
### Give마켓 V바자회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진행되는 바자회 행사로, 오프라인에서는 Give마켓 기증물품 약 1만점을 판매 및 새로운 물품을 기증받으며, 온라인에서는 미리 기증된 물품에 대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은 기아대책 식수지원 캠페인 '1리터의 기적'과 행복한 나눔 비마프렌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바자회 일정

– 오프라인 바자회: 2013년 12월 27일(금) 10:00–16:00, 기아대책 본관 1층 공정무역 카페&나눔매장

– 온라인 경매이벤트: 1차–12/17일 오전 10시~12/23일 오전9시

2차–12/23일 오전 10시~12/27일 오후 9시

## G마켓·옥션, 제5회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페어 시상식 개최



'G마켓·옥션 지자체 e마케팅 페어'는 전국 지자체의 먹거리, 우수 농수산물, 여행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최초이자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2013년에는 10월 22일부터 총 20일간 시행해 전국 120여개 지자체, 2만여 개의 우수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우수지자체 선정투표에는 고객 참여수가 198만건을 기록했습니다.종합대상인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상에는 각각 충청북도와 청송군, 경기도와 부안군, 전라북도와 포항시가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 대상에 전라남도 외 5곳이, 최우수상에는 당진시 외 15곳이 수상했습니다. 수상 단체에는 총 1억원 상당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또 이베이코리아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e마케팅페어를 수상한 지자체 대상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G마켓·옥션, 제5회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페어 시상식 개최




㈜이베이코리아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제3회 이베이 판매왕 경진대회' 시상식을 12일 오후 4시에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베서더 강남에서 개최했습니다.이번 대회에서는 총 18팀의 온라인 수출역군에게 총 3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특히 다육식물을 미국 등 30개국에 수출한 영농법인이 올해 처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출역군이 발굴돼 눈길을 끌었습니다.이번 대회에서는 기존에 강세였던 화장품–의류는 물론 식물–수집용품 등 다양한 상품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수출대상 국가도 북미–유럽에 집중되어 있던 예년에 비해 브라질, 러시아 등 다양한 제3세계 국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CJ E&M netmarble

## 모두의 행복을 위한 넷마블의 사랑의 나눔활동

# 릴레이 봉사



**릴레이 봉사 1탄**
공부방 아이들과 '모두의 김치' 만들어 어르신께 전달

비넷마블 임직원 봉사단 '쿠키봉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리스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센터 아이들과 형편이 어려운 인근지역 가구에 전달할 김장 김치 3백포기를 담가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모두의 김치' 김장 나눔활동에는 넷마블 신규입사자 20여명과 함께 넷마블이 5년째 정기봉사를 진행 중인 마리스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릴레이 봉사 2탄**
9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전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 넷마블 임직원 봉사단인 쿠키봉사대가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9년째 꾸준히 진행되고있습니다. 이번 나눔활동에는 쿠키봉사대와 넷마블 인턴사원 40명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릴레이 봉사 3탄**
장애 · 비장애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

올해로 3년째 진행중인 '몰래산타'임직원 재능봉사는 연말이면 더욱 소외되는 이웃들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 선물하는 성탄맞이 봉사활동으로 올해는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일시 보호중인 영아 400여명을 위해 임직원 봉사대 200명이 유아용품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 “G마켓, 이렇게 착해도 되나요?”



“우리는 오지랖도 참 넓습니다. 공짜로 광고도 해주고 하루 수익금을 몽땅 나눠주고 전 직원이 월급도 기부하고 세상을 돕기 위해 내 일엔 빵점, 남의 일엔 백점입니다.”

한 홈쇼핑의 TV광고에서 개그맨 유재석의 나레이션이다. 이 같은 착한 쇼핑몰이 온라인에도 있다. 바로 G마켓이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며 기업가정신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는 가운데, G마켓은 수년째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원조 ‘후원쇼핑’

설립 13년차를 맞은 G마켓은 지난 2005년부터 ‘후원쇼핑’을 운영 중이다. 후원쇼핑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쇼핑몰의 특성을 살려 만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 약 7천여명의 판매자가 등록해 동참하고 있다.



쇼핑몰의 특성을 살린 ‘나눔’ 활동은 이뿐만 아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고객들이 신청하면 ‘나눔박스’를 무료 배포해 생활중고품을 수거하고 이를 판매에 얻는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 시작한 이 캠페인으로 올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총 2천843건의 물품이 판매돼 1천300여만의 기부금이 마련됐다.

### “반값 등록금? 우린 반값 식권 쏜다”

2010년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 시작된 G마켓의 ‘반값 식권’은 인기 사회공헌 상품(?)이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전국 20개 대학의 학생식당과 제휴해 식권값의 50%를 G마켓이 부담한다.

대학생들의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 지난 15일에는 2천500만짜리 식권 4장을 한 세트로 총 1만 세트가 20개 대학 중 19개 대학에서 완전 판매되는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G마켓의 나눔 대상은 대학생에 그치지 않는다. 식수와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데도 앞장선다. 월드비전과 함께 3년째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230만개의 저금통을 모아 약 50억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 청계과장에는 대형 동전밭을 만들어 나눔 활동을 축제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는 50만명이 참여했으며 G마켓은 올해 사내에도 미니동전밭을 만들어 나눔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여행?, 봉사하러 갑니다”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객의 수가 늘고 있지만, G마켓에는 해외봉사단 ‘GLOVE’의 숫자가 하나 더 늘었다.

2006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천300여명의 해외봉사단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100명의 ‘GLOVE 20기’가 추가 합류했다.

특히, 20기부터는 국내 활동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외봉사단 100명 이외에 100명이 추가로 선발돼, 국내 산촌분교와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파견 비용은 G마켓이 전액 부담한다.



김소정 G마켓 마케팅실 상무는 “해외봉사단원들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등 총 5개국에 20명씩 파견돼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봉사 활동도 강화된 만큼 봉사단에 참여한 2030 세대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름휴가? “설레는 여행 어떤가요?”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에는 여름휴가로 색다른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 제3세계 자원봉사에 나서는 ‘설레는 휴가’ 팀이다.

31일 다음에 따르면, 다음 임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설레는 휴가’팀이 오는 9월28일부터 일주일간 타지키스탄 희망학교로 자원봉사를 떠난다. 설레는 휴가는 다음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제3세계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 ‘지구촌 희망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다.

2006년부터 시작돼 제3세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다음이 일곱 번째 지구촌 희망학교로 지은 라오스의 하이캄 초등학교를 찾아가 벽화그리기, 종이접기, 티셔츠 페인팅, 마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교 아동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또 설레는 휴가팀은 예체능 수업이 낯선 아이들과 체육대회를 하고 태권도 공연, 소고춤 등을 함께 즐기면서 교육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나누기도 했다.



다음 관계자는 “무더위와 불편한 잠자리, 낯선 음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도 내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나눔의 기쁨을 누리려는 임직원들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며 “1회성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지구촌 희망학교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때문에 매년 설레는 휴가에 참여하려는 다음 임직원들의 경쟁률은 10대 1이 넘는다. 제3세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자 휴가도 반납하고 도전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5월까지 인천공항을 출국한 여행객은 826만명. 비수기가 사라졌다고 할 만큼 해외여행을 떠나는 숫자는 매년 신기록 행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제3세계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설레는 휴가’를 떠나는 다음 임직원들의 숫자도 매년 신기록을 새로 써나가고 있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 “초보 게임 개발자님,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서 만드는 개발자로’

청년 실업 여파 탓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캠프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분야는 게임이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1일부터 이틀간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이사장 나성균)의 게임직업체험 캠프 ‘커리어 퀘스트’에는 참여 경쟁률이 3대 1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폭발적이다.

커리어 퀘스트(Carrer Quest)는 단순히 견학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직접 게임을 기획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직접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다. 커리어 퀘스트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적기업인 노리단, 네오위즈게임즈, 블레스스튜디오 등이 함께하고 있다.

마법나무재단 관계자는 “참여 학생들은 직접 게임을 기획해 볼 뿐만 아니라 현직 종사자들 멘토로 삼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며 “학생들이 기획한 게임은 네오위즈게임즈에서 직접 게임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현직 종사자들에게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발표 전 멘토들의 현장감 넘치는 전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게임이 서비스되기 위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을 배울 뿐 아니라 직업의 의미,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 팁 등은 덤이다.

학생들은 같은 또래가 만든 게임에 대해 감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동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멘토들이 도움을 준다. 작은 충고, 소소한 의견 하나가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소중하다. 게임을 즐기는 자에서 만드는 자로 변화되는 순간이다. 멘토 역시 창의적인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발표 앞에 누구보다 진지해진다.

마법나무재단 관계자는 “시즌4 1회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을 받아 1박2일 단체 숙박도 진행했다”며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각 조마다 투입된 대학생 멘토들의 염려와 달리 아이들은 발표할 게임을 손보느라 하얗게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열기를 전했다.



네오위즈 마법나무재단의 게임직업체험 캠프 ‘커리어 퀘스트’에는 참여 경쟁률이 3대 1을 넘어설 정도로 등 청소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 기부도 ‘소셜 시대’

‘남들 다하는 형식적인, 생색내기 식은 하지 말자’

티켓몬스터가 ‘젊고 쿨 한’ 자사만의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며 다짐한 포부다. 연말이면 기업들이 의례적으로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기부로 포장한 홍보에 열중해 온 반감 탓이다.

이렇게 만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티켓몬스터의 ‘소셜기부(So Special GIVE)’다. 소셜커머스 기업으로서 잘 하는 일을 기부와 연결시키자는 의미와 지속가능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지도 담았다.

소셜기부는 티켓몬스터에서 여타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똑같지만, 상품 판매 수수료와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을 위해 쓴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 2010년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핫초코 상품을 첫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소셜기부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위캔센터 샘크래프트, 위누, 온바로 등 사회적 기업과 WEP(세계식량기구),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내외 인도주의 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총 39회, 2만6천216명의 고객이 소셜기부에 동참했다.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첫 소셜기부 상품이었던 핫초코 판매로 1천3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확보했으며, 총 12회 동안 딜을 진행하면서 공정무역 상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티켓몬스터는 파트너사와 함께 판매액 전액을 기부하는 ‘착한쇼핑’ 문화를 만들어내며 기업들을 소셜기부 캠페인에 동참시키는 선행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티켓몬스터의 사회공헌활동인 ‘소셜기부(So Special GIVE)’가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내며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화장품업체인 여우무기는 티켓몬스터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판매된 자사의 에센스 제품이 전회 매진을 기록하자 동일 제품 1천개를 쇼핑 기부로 내놓았다. 또 제과업체인 크리스피크림 도넛은 건당 100원을 기부하는 판매를 진행해 총 1천640만원을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돕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해 소셜기부와 연결시키고, 티몬 플랫폼을 활용하는 딜 이외에도 사내직원들의 오프라인 후원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소셜기부로 소비자들이 공익적 상품과 만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게임이 중독물질? 가족 간 ‘소통의 도구’

게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면서다. 순기능은 고려치 않고 역기능만 강조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몰이해, 편협한 시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9조7천525억원, 게임 수출액은 26억3천891만달러(약 2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중형차 14만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280만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산업적으로도 게임이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게임은 장애아동과 학부모를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넷마블은 2009년부터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후원을 통해 게임을 장애아동들과 학부모, 사회를 연결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 중이다.

특히, 올해로 3년차를 맞는 학부모 게임교실에는 연간 5천여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게임을 매개로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넷마블의 게임 이용자 참여형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새로운 나눔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 장르와 이용 동기, 게임 속 문화 등을 이해하고 게임을 체험하면서 부모와 아이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참여 가족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닌 소통의 도구로써 게임이 활용되면서 사회공헌에서도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인 ‘다함께 차차차’에서 사랑의 타이어 캠페인을 진행해 총 2천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의 전동휠체어 및 보행보조 의료기구 구매를 지원했다.

게임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도 즐기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이용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두의 마블’에서도 국내외로 입양되지 못한 2~3세 위탁가정 보호아동들에게 이용자들이 게임에 등장하는 주사위 모양의 DIY장난감을 만들어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모집인원이 조기 마감되는 열기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이용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 새로운 나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의 순기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소통하는 순기능의 도구로써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 강원도 '도루묵' 사건을 아시나요?

#. 2013년 4월8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트위터에는 '팔아주세요! 맛있는 도루묵!'으로 시작되는 짧은 글이 게시됐다.
#. 이후 보름이 지난 시점 최 지사의 트위터에는 "8천 박스 남았습니다. 어민들의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감사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강원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연인즉슨, 올 봄 강원도에는 고성군 어민들이 지난 추운 겨울 바다에서 잡은 도루묵이 팔리지 않아 6만 상자(박스 당 40마리)가 냉동 창고에 쌓여 있었다. 팔로워가 13만여명에 이르는 파워트위터리안인 최문순 도지사가 이 같은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알렸고 보름 만에 5만2천 상자(약 208만 마리)가 팔려나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도내 어민을 아끼는 최 지사의 훈훈한 마음이 이뤄낸 결과지만 여기에는 상생과 나눔에 앞장서온 '얼라이언스인터넷'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인터넷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나스미디어, 씨디네트웍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얼라이언스인터넷은 강원도청과 협력해 어민들을 돕기 위한 배너 광고를 재능기부로 제작하고, 자체 비용을 들여 파트너십을 맺은 중소인터넷 매체에 이를 게재했다.

그 결과 1억2천회가 넘는 광고 노출이 이뤄졌고 이곳저곳에서 뻗친 도움의 손길이 쌓여 있던 도루묵 6만 상자를 8천 상자로 줄여낸 것이다.

얼라이언스인터넷 측은 "작은 나눔들이 모이면 큰 힘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얼라이언스인터넷만이 할 수 있는 광고 나눔이었다"며 "중소매체들의 광고효과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오른쪽)과 얼라이언스인터넷이 재능 기부로 만든 배너 광고

'상생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믿는 인터넷얼라이언스의 기업 활동이 올 한 해 인터넷업계를 뜨겁게 달군 상생 이슈의 대안이 되길 기대해본다.

## 인터넷 기업들 '얼굴 없는 선행'… 2014년도 '계속'

'얼굴 없는 천사'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이를 표현한 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업계는 '상생과 나눔'을 화두로 이슈가 끊이질 않았지만 정작 인터넷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서 펼치는 선행은 모르는 이들이 많다.
'어린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학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 '중고물품 기부', '독거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봉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 광고'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의 상생·나눔 활동 역시 1회성 행사가 아니다. NHN의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약정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가 매칭 기부를 하는 엔젤스(N'gels) 클럽 활동은 햇수로 15년째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인터넷 기업들의 활동은 여느 중견·대기업 못지않다.

###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

게임만 하던 아이가 역사책을 펼쳐 스토리를 구상하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가설을 세워가며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면? 요즘 부모들이라면 만세를 부를만한 이 같은 일은 상상이 아니다.
NHN이 검색, 포털, 게임, 소셜 네트워크 등 일반 이용자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NEXT 학교'에서 올 겨울방학 동안 벌어질 일이다.

경기도 3개 초등학교 학생 118명이 오는 28일까지 4주 동안 NEXT 학교에서 컴퓨터 이야기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아이들이 상상하던 것을 구체화하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경험을 주겠다는 NHN의 실험학교다. 올 겨울방학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의 NHN의 계획이다.



네이버가 오는 28일까지 4주간 경기도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2014년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2005년부터 사랑의열매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진행해 온 '희망해' 캠페인 국내 대표적 모금 사업이다. 네티즌이 다음의 희망해 페이지에 소원을 남길 때마다 혹은 마이피플의 스티커를 보내거나 SNS를 공유하면 기부금이 적립된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2013 희망해' 캠페인에는 약 1천800만원이 모금됐으며 이는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어르신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재소자 가정 등 여섯 가족의 소원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모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여섯 가족의 소원은 소박하다. 친구들과 함께 2학년에 올라가고 싶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치료비, 7남매 가정의 생계비, 소년소녀가장의 교육비 등에 사용된다.



다음이 지난해 진행한 희망해 기부 캠페인으로 약 1천800만원을 모금해 형편이 어려운 여섯 가족을 돕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새해를 맞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올해 희망하는 일 꼭 이뤄지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곤 하는데 '희망해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2014년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안 쓰는 물건은 '기부마켓'으로

지난 연말 모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경매에 붙여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을 방송한 적이 있다.
G마켓에서는 이 같은 취지의 'Give마켓' 행사를 1년 내내 비영리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진행한다.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온·오프라인 바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나눔의 가치'로 공유하고, 수익금은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해외식수 지원사업인 '1리터의 생명' 캠페인에 사용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시 기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4곳의 대학 캠퍼스, 경북 상주 축구장 및 공연장에서도 현장 기능 이벤트를 진행키도 했다.

### 사랑의 릴레이 봉사

'산타, 김치, 연탄' 형편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성탄절과 연말이면 늘 부담으로 돌아오는 단어 들이다. CJ E&M 넷마블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쿠키봉사대'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아동센터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찾아 봉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마음을 선정해 연탄을 배달하고, 3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3년째를 맞는 '몰래산타' 재능봉사에는 임직원 봉사대 200명이 참여해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일시 보호중인 영아 400여명에게 유아용품을 선물키도 했다.

### 광고로 인터넷 생태계를 복원한다

인터넷 기업들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만 찾는 것은 아니다. NBP(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나스미디어, 씨디네트웍스 등이 투자해 설립된 회사인 얼라이언스인터넷은 인터넷중소매체를 위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에코 애드 포르젝트(Eco AD Project)를 진행하며 건전한 생태계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팔 물건은 있으나 적절한 인터넷 판매처나 온라인광고가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프라이스 태그(PriceTag)'라는 광고 상품을 출시해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얼라이언스인터넷의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강원도 어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냉동 창고에 쌓인 6만 상자의 도루묵을 처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 편집자 리스트 Editor's List

| | | | |
|---|---|---|---|
| NEOWIZ GAMES | 네오위즈게임즈 | 윤정연 | prague@neowiz.com |
| NAVER | 네이버 | 양상환 | drfist@navercorp.com |
| | | 김지현 | jihyeon.kim@navercorp.com |
| DAUM | 다음커뮤니케이션 | 강승원 | swkang@daumcorp.com |
| | | 이현재 | hard508@daumcorp.com |
| CJ E&M netmarble | CJE&M | 배민호 | baeminho@cj.net |
| Alliance Eco Ad Project Internet | 얼라이언스인터넷 | 이영 | zerofree@allianceinternet.co.kr |
| SK planet | SK플래닛 | 김은태 | etkim@sk.com |
| ebay | 이베이코리아 | 김나연 | naykim@ebay.com |
| | | 신승재 | seushin@ebay.com |
| KAKAO | 카카오 | 김우정 | isara@kakao.com |
| TICKET MONSTER | 티켓몬스터 | 황수정 | crystal.hwang@tmon.co.kr |
| 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 | 안인회 | anih@kisa.or.kr |
| K internet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김영란 | yran@kinternet.org |
| | | 김주미 | jumi01240@kinternet.org |


발행일 2014. 02. 28
주최 인터넷상생협의체
주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자인 지디넷
문의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02-563-4114 www.kinternet.org